

응답자를 가족처럼 ...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응답자를 가족처럼」을 내면서



어릴 적 이솝우화에 나오는 “팔려 가는 당나귀”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재미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통계 조사원의 체험 수기를 읽으면서 그 의미가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통계청이 보다 세분화되고 더욱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느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계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조사를 하고 꼬치 꼬치 묻느냐는 이야기합니다.

통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가 달갑다는 사람 또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통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긴 한데 나에게 통계 조사한다고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양쪽 이야기를 따로 들으면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조사원들의 애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 현장은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데 해야 할 조사는 자꾸만 늘어 갑니다. 그런 간극을 우리 조사원의 정성과 눈물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열 번, 스무 번 문을 두드리는 끈질긴 노력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맛있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늘을 만들 듯이 정확한 조사가 좋은 통계를 만듭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뿌리의 존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감으로 현장을 뛰는 통계 조사원들에게 깊은 관심과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 책이 통계 이용자와 응답자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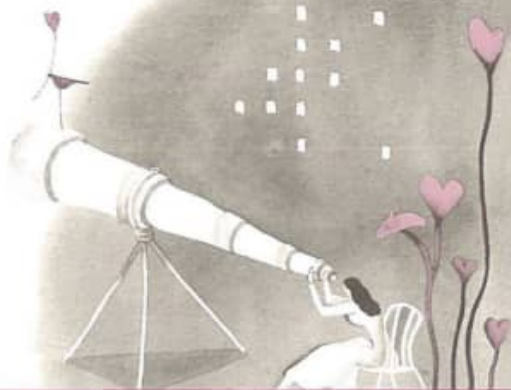
통계청장 이 창 호



응답자를 가족처럼

|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최소연	내 200명의 가족들	8
박한금	역시 강남은 강남이구나	18
김옥경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으로!	24
이혜진	나의 세 번째 부모님	31
여미숙	현장조사에서의 나, 그리고 우리의 현재	39
전옥순	어촌계장 설득작전!!	45
백찬중	고구마가 냄비에서 익어 가는 기적 소리 '뽀~이익~'	50
정현희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약밥	56
인영민	조사대행 사업, 그리고 숨 가뻐던 2달	61
정순옥	또 다른 나의 가족들	66
이상심	입사후의 시간들	71
이정혜	응답자 마음을 열자	76
김신영	시작이 반이라더니	80
전보형	우리 집 가게부는 빨간 신호등	84
공미옥	엄마는 공부 중	91
서종성	남자와 가게부	94
최화숙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96
권순화	'신양호' 마님의 단축번호 1번	99
윤용현	통계세상 속의 삶의 현장	105
박미경	또다른 만남을 준비하며	115



권연경	토성리의 전투	119
오정엽	농가경제조사 실패본조사 실패담	125
유애경	3년째 통계청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129
이성희	가계 불응 설득사례	133
최은주	인내의 산물, 통계	136
송춘자	나는 오늘도 웃음을 저축한다	143
김경희	내 인생의 멘토	148
김종록	당신이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156
신재순	평화의 메신저	162
권정숙	또 하나의 가족	168
최유라	꽃고추만 보면 생각나는 그녀	174
강현숙	좋은 인연	180
이미경	아름다운 동행	185
김소영	가계부는 나의 운명인가?	190
김형준	통계청 조사관으로 산다는 것	196
손창호	돌고래와의 항해	203
박진영	신랑의 용돈	208
성윤경	아쉬운 이별	210
김진경	뜨거운 햇살에 나가 일한농부의 기쁨을 알기까지...	213
신성자	모범 답안지를 꿈꾸며	217

경은숙	불용기구에게 보내는 편지	222
정동섭	아버지의 끈	227
조경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232
김선주	종이 한 장의 실패	237
김미정	후회 없는 선택	241
이성진	통계청이 안겨준 행운	245
황진숙	두 번씩 쓰는 가계부? 일제부?	248
이금례	징그럽게 귀찮은 통계청	251
박판숙	가계부를 쓰기까지	254
배영민	과거는 현재의 스승	257
오미숙	유토피이를 꿈꾸며	262
장선남	고난속에 피는 꽃 가계부	267
송은정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273
정미화	100%에의 도전	279
장길호	물 한잔의 훈훈한 정을 느끼며	286
김현남	홍곡리의 다정한 정을 그리며	289
조순희	진심과 농심	293
진규현	SUN of MOON 17년	297
진영아	소중한 만남	300
이은정	만남과 헤어짐 속의 15년	306
심영자	아~ 통계청이여	310
이현화	신입조사원의 좌충우돌 체험기	316
최혜경	주차해 드릴요?	323
김지범	태풍나리가 남기고 간 자리	326



응답자를
가족처럼 ...

내 200명의 가족들



최소연 | 경기지방통계청 부천출장소 |

우와~ 발로 차서 쳐들어가면 되는구나!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이 늦어지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천출장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출근하자마자 사업체파트에서 지침서를 읽으며 첫 업무가 시작되었다. 우선은 앉아서 지침서만 읽게 되었다. 읽고 또 읽어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제조업체라는 내용도 처음 접했지만 지침서에 나온 온갖 용어들이 낯설기만 했다.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 머리도 아프고 인상을 쓰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직원분이 “그냥 나가면 다 알게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위로랍시고 해주신다.

하지만 이틀도 못가서 출산휴가로 비워진 가구팀 자리에 곧바로 투입되어 일하게 되었다. 오자마자 지침서나 읽게 될 줄 알았던 운명이 하루아침에 현장을 뛰는 처지로 바뀌게 될 줄이야! 사람들도

낮설고, 사무실도 낮설고, 일도 낮설어 어리벉벉했던 나는 정신을 차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출산휴가로 비워진 3개월 동안 내가 맞게 된 조사구가 세 곳이고, 가계조사는 뭐고? 경제활동은 뭐라는 건지? 머릿속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이 집은 어찌고? 저 집은 어찌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선배 언니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게 다 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하라는 건지? 아무튼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선 조사구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언니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나 혼자 조사구에 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집이 가계부를 쓰는 집인지?, 어느 집이 불응하는 집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가구명부에 이것 저것 잔뜩 기록되어 있었지만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잘 찾을 수도 없었고, 아파트 복도에 서서는 '에라 모르겠다. 이 라인이 다 맞을 거야 들어가면 되겠지 뭐~' 라는 생각에 무작정 들어가기 시작했다. 출산 휴가 들어간 언니 대신 오게 된 직원이라 말하고 이집 저집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인사를 하고 다니게 되었다.

어머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자 난 신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채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얼른 집 안쪽으로 발을 쑥~넣고는 어머님 얼굴이 보이는 즉시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들어간 언니 대신 왔는데요." 하면서 줄줄이 내 소개를 호들갑스럽게 한참 하고 있었다.

헌데 이 어머님, 내 얼굴만 뵈히 쳐다보고 계신다. 나의 트레이드마크인 '환한 웃음'을 지어 보여드렸는데도 내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얼굴은 점점 굳어져가는 어머님께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저 목이 마른데 물 한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했더니만, 어머님께서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라고 하신다. 이게 무슨 반응이란 말인가? 어 ...?

‘이게 바로 불응이구나!’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왜 안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라인은 다 조사표본인데요 윗집, 아랫집, 옆집 다 하는데요”라며 언니에게서 듣고 배운 온갖 내용들을 내뽐고 있었다. 그러자 어머님이 흥분한 날 진정시키려는 듯 물을 가져다 주셨다. 그리고는 결국 끝까지 설득하게 되었다.

‘와~내가 설득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어머님을 설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그 어머님께서 가계부까지 쓰게 되셨다. 헌데 정말 얼떨결에 성공하게 된 나의 첫 설득이었다. 알고 보니 그 어머님은 평소에 문도 잘 열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한다. 주위 이웃들과의 소통도 없고, 워낙 문을 꽂꽂 닫고만 사시던 분이라 당연히 통계청의 조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지만 마침 운이 좋았던 나는 어머님을 뵈 수 있었고,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간 나의 당연스러움에 넘어가신 것이다.

출산휴가 들어간 언니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든 나여서인지 언니 도움으로 3개월이 그렇게 잘 흘러갔다. 일단 발로 차고

들어가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나는 몇 달 후 눈물 흘리며 생각이 바뀌게 될 줄은 그 당시엔 알지 못했다.

내가 잡상인이야?!

5개월이 지나고 파트타임이 아닌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가구 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제야 안정적으로 일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처음 가구 팀에서 일한 3개월은 언니의 도움으로 잘 지냈고, 오자마자 맞게 된 세 조사구도 사실 잘 차려진 밥상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미 조사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담당 조사원이 바뀐 것에 조금은 낯설어했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 끝자리가 3번이었던 광명의 00아파트 조사구가 연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도 파란만장한 조사원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언니들의 말이 아파트니까 조사하기는 편할 거라고 말씀해주시니 약간의 위안은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조사원이든 그랬다고는 하나 나 역시 새로운 집에 처음 방문할 때는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에라~발로 뺨 차고 들어가면 되겠지 뭐~' 하는 생각에 첫 번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가 나오시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을 닫으셨다. 모든게 내 생각과는 달랐다. 몇 개월 전에 설득했던 그 집은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갔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어머님이 귀찮다는 듯 안하겠다고 하신다.

두 번째 집은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백발의 할머니께서 나오셨고 난 힘차게 인사부터 하고 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들어오라신다. 그래서 신이 나서 집안에 들어가 식탁에 앉아 열심히 가구명부를 작성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다른 조사구에 계신 어머니가 언제 올 거냐며 전화를 주신 것이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조사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조사를 못해주겠다고 하신다.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할머니는 무서운 인상을 하시고는 나를 쫓아내셨다.

기분이 이상했다. 난 뭔가 팔려 온 잡상인도 아니고,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통계청 직원인데 대부분이 문도 열지 않고서는 집안에서 귀찮듯이 대답하고, 할머니는 조사를 하며 이것저것 여쭙보자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신다.

정말 화가 났다. 대체 경제활동인구조사 뿐인데 뭐가 어려운건지? 가계부도 아닌데 왜 싫다는 건지 모르겠다. 답례품도 주고, 뭐 특별히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갑자기 힘이 빠져서 집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내가 누구야, 최소연인데, 어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힘내자! 아자!' 라고 생각하며 의지를 다졌다.

힘을 내서는 세 번째 집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번엔 젊은 언니가 나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통하겠지 라고 생각한 나는 인사부터하고 설명하며 집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구 명부를 작성하려던 찰나 언니가 못해주겠다고 한다.

자기 남편이 알면 혼난다고 말한다. 남편분이 경찰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언니가 해주면 혼난다고 말하신다. 경찰이고 공무원이면 더 잘해줘야 하는데 무슨 말이나며 내가 흥분을 하자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분의 퇴근시간을 물어보고는 집을 나왔고 남편분이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방문을 드렸더니 남편분은 차분히 내 설명을 듣더니, 알겠는데 조사는 하기 싫다면서 문을 닫으신다. 울컥 눈물이 났다.

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밥도 먹질 못해 힘까지 다 빠진 상태라 이 기분으로는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다. 언니들이 말하길 다들 처음은 그렇다고 하지만 가계부 쓰는 조사구도 아닌데 첫날부터 이렇게 힘이 드니 조사하기가 정말 겁이 났다.

설득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광명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힘을 내야 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후 여러 번 조사구를 방문하면서 보니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무작정 싫다던 어머님 댁은 지나갈 때마다 무조건 인사부터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대체 뭐하는 아가씨인데 맨날 오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조사과정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쾌하실 일도 아니라며 설득을 했는데도 의심하시는 눈초리라 그럼 위층에 올라가 여쭙보시라 했더니 그 다음날로 당장 올라가 여쭙보셨다고 했다.

내가 낯선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분의 친절어머님께서 아파트에 가스 점검 나왔다며 방문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신 일이 있었고, 하필 내가 조사하러 다니던 시기에 00아파트 다른 동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난 정부가 하는 일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며 무작정 욕이나 했으니... 죄송할 따름이었다.

두 번째 불응이셨던 백발 할머니는 자꾸자꾸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어느 날 날더러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 할머니께선 처음 조사하러 갔던 날 나의 태도가 맘에 안 들었다고 하셨다. 맘에 들지 않았던 점을 꼭꼭 집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가구명부의 학력 조사란 때문에 “소학교 다니셨어요, 할머니?”라는 나의 질문에 자존심이 상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전화통화 도중에 그 할머니의 가구 명부 구석에 낙서처럼 통화 내용을 메모했던 점이라고 했다. 그 할머니께선 대학까지 나오셨고, 교편을 잡으시다 퇴직하신분이라 나의 그런 성의 없는 태도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내게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하긴 했지만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그 후로도 할머니께선 내 태도를 지켜보셨다고 한다. 혼이 나고도 자꾸 찾아와 구김 없이 구는 내 자세를 보시고는 맘을 여셨다고 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시면 다니지 않았다고 보통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여쭙 본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할머니께 잘 말씀드렸고, 명부에다 낙서한 것은 제가 잘못된 일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다. 가구명부에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 담기는 소중한 것인데 할머니의 학력을

내 맘대로 규정지어 자존심 상하게 해드렸고, 자신의 관리명부에 낙서처럼 끼적거리는 걸 보셨으니 어느 누가 맘에 들었겠나 싶었다.

세 번째로 불응이었던 경찰공무원가구의 언니는 방문할 때마다 인상을 쓰면서 “우리 남편이 싫데요”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다. 그때 마다 문 앞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나이도 비슷한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니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는 1년쯤 지났을 즈음에 또 답례품을 갖다 드리러 갔더니 “언니도 참 질기네요. 오지 말고 답례품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하며 한숨을 쉰다. 그러더니 조사를 응해 주겠다고 했다. 남편 분은 반대하기 때문에 언니가 몰래 몰래 조사에 응해주셨고 본인은 집에서 힘이 없다며 내게 하소연까지 했다.

세 군데 모두 다 조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설득하고 나서는 정말 속 시원하고 날아갈 것 같았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다.

내 가족이라면?!

통계청에 들어와 조사업무를 하게 된지 3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사무실에서의 나는 나이로도 업무로도 막내지만 그 까탈스러운 광명의 아파트 조사구를 연동으로 시작하여 가계조사 두 조사구의 연동이 차근차근 지나갔다. 가계조사구가 당연히 더 설득하기 힘들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겐 처음 연동을 했던 그 조사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각자 밥 벌어먹기 힘든 세상에 뉴스에서나 들을 법한 통계청

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기껏해야 인구조사 하는 곳이라고 말해야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통계청이라는 이름 하나 기억하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다 내보이는 가계부를 쓰라고 설득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다.

하지만 다들 해내고 있지 않은가? 나도 물론 해내고 있고! 갑자기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능력도 경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처음 실패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처음 조사를 할 때를 생각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실 아직도 불응가구는 있고 설득도 해야 하지만, 내가 불응가구를 설득할 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방법들 - 인사를 잘해라,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라, 끈기를 가지고 여러 번 가서 설득을 해라 등등 -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하며 설득한 것이다.

가구팀 업무는 사업체팀 업무와 달리 한 달 동안에도 여러 번 찾아가 얼굴을 봐야하고, 그 집에 대해선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어머님 들께 찾아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단번에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그런 다는 걸 아신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하면 어머님들도 마음을 열고 진심인 것을 아신다.

불현듯 우리 엄마 같으면 통계청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다 보여 줘야 하는 가계부를 쓰라고 한다면 선뜻 가계부를 쓰실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다. 아마 딸이 통계조사를 하고 다니니깐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맡은 조사구 사람들 모두 내 가족이라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집에서 밥 안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피자도 시켜주게 되고, 임신한 언니가 힘들어하니 아기도 봐주게 되고, 음식 사들고 혼자 사는 할머니께 가서 함께 식사하게 되고, 어머님들과 내 동생 마냥 아이들 성적까지도 걱정하게 되었다.

그냥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깐 저절로 하게 되는 일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딸처럼, 손녀처럼, 동생처럼 여겨 주시며 밤늦게까지 일 한다 걱정 해주시고, 밥 먹고 가라고 항상 붙잡으시고, 쓰기가 힘드신 상황이어도 가계부를 써주셨다.

사실 내 일이니까 가계부를 쓰라고 설득하는 것이지 우리 엄마께서 쓰기 싫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쓰게 하고 싶진 않았다. 쓰기 싫다는 가계부를 쓰라고 권유를 해야 하는 내 일이 싫었지만 내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응답 해주는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더 잘하기로 했다.

일은 일 일 뿐이지만, 솔직히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도 200여명의 응답 가족들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불응인 가구에 발로 뺨! 차고 들어갈 날을 상상하며 힘을 내고 있다.

최소연 파이팅! 아자!!!

역시 강남은 강남이구나



박한금 | 서울지방통계청 지역통계 조사원 |

내가 처음 조사를 접해 본 것은 대학 다닐 때 리서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이다. 그 때는 통계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도 조사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조사는 리서치 회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언 15년이 지난 지금 내가 해 본 조사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시는 조사해서 돈 안번다고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선하다.

한 100가구를 초인종을 눌러도 10가구 정도 문을 열어 주었나 싶다. 초인종 누르면 인터폰으로 대답하고는 문을 열어주는 커녕 혼만 났다. 거기다 아무나 만나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연령대별로 몇 명씩 할당받은 데다 성별도 구분해서 해당 수만큼 해야 하고 또 호의 적으로 나오는 조사응답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뒤로 한 채 난 다시 조사현장에 뛰어 들었다. 결혼 후

직장을 다니지 못한 나로서는 아이들이 커감에 남는 나의 시간을 좀더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에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였다. 예전의 아픈 기억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15년 전의 아픈 기억은 잊고 난 일하는 것이 신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계기로 통계청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몇 번의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제조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등등....

그러다 내가 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조사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 사회통계조사라는 것이었다. 사업체와 관련된 조사만 해 본 나에게서는 새로운 개척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점차 조사에 재미가 붙어가던 나는 해 보고 싶었다. 소문에 의하면 사업체와는 전혀 다르고 더 힘이 들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15년 전만 하랴 싶었다.

전체 100개 조사구 중 절반정도가 아파트인 강남구 사회통계 조사에서 나도 역시 아파트 조사구를 맡았다. 갑자기 받는 순간 이거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해 보지도 않고 손을 들 수는 없었다. 내는 표본 60여 가구 중에 시작가구가 정해진 가구부터 20 가구씩 두 조사구를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 통계청 직원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협조해 줄 것이니 한번 해보라고 나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난 모든 준비를 하고 구청에서 만들어 준 공문과 조사원증을 가슴에 패용한 채 닥쳐올 어려움을 모른 채 먼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관리사무소장님은 구에서 하는 일이니 적극 협조해야 드리겠다고는 하였으나 주민들이 잡상인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민원도 자주 들어오니 우선 1차적으로 우편함에 조사 취지와 조사표, 그리고 답례품을 넣어 놓고 다음날 작성해서 나오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 아파트는 우편함에 들어 있는 것은 누가 가져가거나 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조사표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이렇게 해서 조사표를 대상 가구를 만나서는 줄 수가 없었고 우편함에 가지런히 꽂아 놓고 돌아와야 했다.

그 다음날 우편함에서 가져간 조사표도 몇 개 되었고 밑에 내려 놓아져 있고, 봉투 겉장에 안하겠다는 의사를 적어 놓은 조사표도 있었다. 하지만 작성되어 나온 조사표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방법을 달리하고 싶었다. 내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게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장님께 부탁을 했다. 그러나 거기엔 엘리베이터 층층이 방문카드가 있어야 하고 집집마다 마구 다니며 초인종 누르는 것은 허락해 주지 않았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인터폰을 해서 올라와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가구만 가도록 해 주셨다. 인터폰을 해도 받지 않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받는다 해도 일하는 분이 받으셔서 본인은 모르니 저녁에 주인이 있을 때 다시 오라는 말만 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총 13일인데 이들이 지난 지금 단 1가구뿐이 조사를 못했으니 난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 조사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한번이 아닌 오전, 오후, 저녁 수시로 관리사무소에서 살다시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또 오셨냐는 반감지 않은 말투까지 들어가며 인터폰을 울려 대야

했다.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는 내 차만 보면 묻지도 않고 차단기를 올려 줄 정도로 내 얼굴에 익숙해 있었다. 우편함에 서서 해당 가구 일 때에는 그 자리에서 말을 걸어 조사에 응해 주기를 부탁했다.

매일 뵈 때마다 “몇 가구 못 했어요” 하는 말에 관리사무소장님도 안쓰러우셨는지 보안카드를 주시며 해당 가구를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적었다. 오전이고 밤이고 나는 이 일에 매달려 살다 시피하였다. 집 안에 인기척 소리가 들려 인터폰을 하면 언제 소리가 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가구도 있었고, 짓어대는 개만 안고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야 하는 가구도 있었다.

그러던 중 한 가구에서 50대쯤 되어 보이시는 남자 응답자가 문을 삐걱 열었다. 난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잠깐 들어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웃는 얼굴로

“여기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놓고 간 조사표 있지요? 아직 작성되지 않으셨으면 제가 같이 해 드릴게요.”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소. 재활용으로 버렸나? 그리고 내가 한 번 봤는데 그런 거 조사해서 어디다 쓴다는 거요. 그런다고 개선이 되요? 이리 들어와 봐요. 내가 여기 살면서 매일 보는 건데, 저기 보도 블럭에 경찰차 올라와 있는 거 보여요? 안보여요? 저렇게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은 뭐하고 덕이 이렇게 애쓰고

돌아다니한다고 해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그래서 못해주겠소.”

난 자존심도 상하고 할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전박대는 하지 않았다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조사취지를 말씀드리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렸다. 부드러운 말씨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하는 말씀에 난 그 집을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다. 그 뒤로도 들을 말 안들을 말 들어가면서 조사에 전념했고, 개중에는 호의적인 분도 몇 분 만날 수 있어 조금씩 조사가 되어 가고 있었다. 허나 절반이라는 날짜가 지나도 진척율이 내가 제일 낮아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구청과 통계청에 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50%도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만 자꾸 가니 더욱 불안해졌다.

구청 통계담당과 통계청 조사담당은 같이 나가 보자며 나와 같이 동행을 해 주었다.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난 그날 따라 오는 비가 왜 이리 서글퍼지는지.... 누군가 내 눈물을 보았을까,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존재가 비참해짐을 느꼈다. 관리사무소장님은 나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난 기쁘기는 커녕 오히려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같이 간 분들과 나는 다시 한번 못 만난 가구, 불응하는 가구를 방문하기로 했다. 40가구 중 완강하게 불응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4가구 정도는 다음 날 작성하여 우편함에 넣어주기로 약속을 받고, 4가구는 다른 시간대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문을 달아야 했다. 어떤 한 가구는 귀찮아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자주 와서 그 노력에

감탄하여 해 준다며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계셨다. 이런 분들을 볼 때 '아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것을 보고 난 더 용기를 얻어 조사를 마무리 짓기로 맘 먹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마무리되어 정리하고 있을 즈음에도 난 아직 남은 조사표를 들고 다니며 사업체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며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어려운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조사된 조사표에 애정이 간다. 다음에 하는 사회통계조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지역은 없으리라 다짐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지역 조사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으로!



김 옥 경 | 부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

할머니네 댁으로 가는 골목길은 꽤 길다. 어두컴컴한 길을 한참 걸어간다. 6시 30여분 경이면 어느새 해거름이 내 발자국을 집어 삼킨다. 12만원의 군인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올해 일흔 넷의 할머니는 노환이 겹치고 겹쳐 거동조차 힘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신다. 오래된 동네여서인지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에서의 할머니 댁은 더 움츠린 것처럼 작고 초라하게 골목 가장 깊숙한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계세요~”

“할머니~”

“안계세요?~” 서너 번 목청을 높였을 즈음 겨우 녹슨 철 대문이 끼익-하는 금속음을 내며 열린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동안 별고 없으시죠?” 나는 인사를 하며 손에 든 과일 봉지를 엉거주춤 내밀었다. 순간 할머니의 거침

없는 손사래가 가로막는다.

“됐어~ 오늘은 그냥 가~ 성가셔” 영겁결에 들고 간 과일 봉지가 쿵! 하며 내 발등 위로 떨어졌다. 이제 막 출하되기 시작한 등실하니 무거운 배가 내 발등을 콕- 찍어 누른다.

악- 이런... 꿈이었구나.

뒷목덜미가 땀에 젖어 축축하다. 우리 조사원들 다 그렇겠지만 가계부 회수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연동조사 대상가구를 만나는 일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힘겹다는 말 표현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진땀을 빼는 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같이 가계부 회수하는 날, 이런 꿈을 꾸다니. 나는 괜히 할머니 댁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에 젖는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6시를 훌쩍 넘겼다.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6시 전에 일어나야만 아침 시간이 조금 느긋한데... 아침 반찬을 하는 등 마는 등 대충 챙겨 놓고 부리나케 집을 나섰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오늘은 할머니 댁에 조금 오래 머물 요량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나섰다.

꿈속에서처럼 과일 가게에 들러 배 몇 개도 샀다. 햇과일이라 푹푹하니 윤기가 도는게 맛있어 보인다. 할머니 댁에 들를 때는 늘 말동무 해 드릴 시간을 잡아놓고 가야만 했다. 매일 전화로 가계부를 받아 적으려하면 조사원이 힘들다고 손수 가계부를 적어주시는 할머니!

처음 뺨뺨 쓴 글씨의 꼼꼼한 가계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가계부의 내용에 부식비가 거의 없어 마음이 항상 짠 하곤 했다. 혹시 전달에 많이 굶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간 회수가 특히 많이 적혀 있으면 더욱 걱정스럽곤 했다.

골목길 주차가 힘든 할머니네로 가기 위해 도로 한 칸에 차를 세워 두고 걷기 시작하자 불현듯 처음 통계청에 받을 디디던 때의 일들이 밀려왔다. 처음에 어려웠던 일은 기존 가계부를 잘 작성해 주던 가구에서 이제 다시는 가계부를 더 쓸 수 없다고 거절 할 때였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다는 적어도 2~3개월, 길게는 1년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 연동으로 새로운 지역의 가계조사를 시작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을 하였지만 가계부 쓰기를 계속 거절 하는 가구에는 정성을 다해 편지를 작성하여 매월 우편함에 꽂아두며 '다음 달에는 꼭 회수가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곤 했다. 할머니댁도 마찬가지였다. 어릴 때 시골 외가에 대한 추억 때문인지 나는 할머니네 동네가 새 가계조사구역으로 결정 되었을 때 무척이나 흥분되었다.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과 군데군데 빈터마다 개간된 작은 텃밭들과 작은 구멍가게 앞 평상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계신 동네 어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더구나 할머니 댁은 낮은 담장위로 흐드러지게 핀 오렌지빛 능소화가 정말 보기 좋았다.

처음 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은 8월의 어느 날, 3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참 더울 때라 어디서라도 잠시 앉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다. 마침 능소화 담장의 할머니 댁에 멈춰 서서 어린 시절 외가 이야기라도 두런두런 나누고 싶었다. 할머니와 우선 말동무

부터 하며 얼굴을 익혀야겠다고 걱정하고 있었던 때였다.

집 앞에서 “할머니~” 하고 호명 하려는 순간 대문이 갑자기 확- 열렸다. 엉겁결 인사는 꾸벅 했지만 할머니는 예상과는 달리 본 척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대게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과 달리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덜 하시는 편인데도 말이다.

“할머니 외출 하세요?”

“.....”

“할머니 멀리 안 가시면 제가 태워 드릴게요~”

“나 병원 가-”

“어머~ 어디 아프세요? 제가 태워 드릴게요~”

“됐다 마-” 뒷짐을 지고 약간 구부정하게 걸으시던 할머니의 발걸음이 얼마나 쟁쟁하며 뒤따라 걷던 나는 중간에서 숨을 몰아 쉴 정도였으니... 첫날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던 나는 며칠 뒤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한낮의 더위는 피하고 싶었던 터라 5시경 쯤 되었을 게다. 그런데 그 날, 할머니의 태도는 더 냉담하신 것이 아닌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나 그런 거 몰라, 딴 데 가서 알아 봐-”

“할머니 잠깐만 제 설명 좀 들어 보세요~”

“아이구, 싫다니깐 그러네. 나 지금 잘거여!!”

“네! 지금 5신데?” 할머니는 무조건 주무신다고 하셨다. 때마침

무더운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좌르륵 퍼붓기 시작했다. 세워 둔 차까지 갈려면 한참 걸어가야 했기에 마땅히 퍼붓는 비를 피할 데가 없어 근처 구멍가게까지 부리나케 뛰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옷은 흠뻑 다 젖고 말았다. 그 이후, 며칠을 더 할머니댁을 방문했지만 번번히 완강한 할머니에게 푸대접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따라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대문 안 기색을 살피던 나는 할머니 댁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았다. 누워 계시는 일이 잦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올라 쓰러지셨던 것이다. 늘 완강하시던 할머니는 내 부탁을 거절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내 차로 근처 병원에 가셔야만 했다. 할머니보다 더 안절부절 하는 나를 보신 할머니께서 던지신 그 때의 말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아이구 그만 호들갑 떨어. 늙으면 다 그래. 별거 아니여~”
병원에 모셔만 주고 다시 돌아 나와야만 했던 나는 그 뒤로부터 할머니 댁 출입이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이다. 훗날 들은 얘기지만 뒤따라 병원에 달려온 할머니의 따님들이 나쁜 사람 아니니 협조해 드리라고 했다 한다. 할머니와 꼭 친해져야지 하는 오기로 할머니에게 다가갔던 그 후 나는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런저런 사연을 만들기를 몇 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원업무를 시작한 지 4년이 조금 지났다. 조금 쑥스럽고 힘들기도 했던 보람 속의 시간들이 천연색영화처럼 또렷하다.

업무를 시작한 첫 해에는 닫혀진 문 앞에서 쓴 울음을 삼키며

돌아서는 일이 허다했지만 이제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세요!” 하는 말이 나오도록 능숙해진 나를 발견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없었던 언니, 동생, 친정어머니같이 챙겨 주시는 분도 여러분 생기게 되었다. 물론 언제나 늘, 일이 원만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 힘겹고 어려운 일도 통계 조사원이라는 사명감 앞에서는 무력해지더라는 이야기다.

내게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짐한 사자성어가 있다. 일기일회(一期一會)! 모든 만남을 단 한번만인 것처럼 처음인 듯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조사원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께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다.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무너지는 마음을 그 마음으로 다잡았다. 그것이 바로 초발심이 아닌가. 무슨 일을 하던 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일이 흐지부지 되던 때가 많지 않던가.

할머니 댁은 막다른 골목 가장 끝이다.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릴 적 추억에 많이 젖는다. 비탈진 길, 녹슨 쇠창살, 2424라고 쓰여진 용달 광고, 스투트 지붕, 교복 단추처럼 볼록한 하나짜리 초인종..., 작은 구멍가게, 천장 나즈막한 바느질집. 지나치며 “그동안 잘 지냈능교” 건네주는 동네 사람들의 인사. 걸을 땀 그런 정겨운 풍경들 때문에 이 조사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무척이나 행복하다. 더구나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일은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에 더 정겹기도 하니 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힘겹게 누워 계신 할아버지도 떠나고

할머니마저 세상을 등지게 되면 나는 한동안 그 빈 자리의 슬픔으로
우리 만남에 대한 상념에 젖어 지낼 때가 많기도 할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많이 부족하지만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동료 분께
감사드리고 조사일이 순조롭지 않아 처져 있을 때,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며 용기를 주는 남편께도 감사드린다.

일기일회(一期一會).

언제나 처음인 듯 늘 그렇게. 조사 일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나를
다잡는 그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통계청을 잘 알고 통계를 사랑
하는 그 날까지 나의 업무를 위해 더욱 정진 할 것이다.”



나의 세 번째 부모님



이혜진 | 경기지방통계청 구리출장소 |

지금지글~ 지금지글~

불판위에서 먹음직스러운 선홍빛의 고기들이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다. 나는 바구니에서 가장 싱싱해 보이는 상추를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상추를 펴 얹고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옮긴다. 거기에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마늘을 쌈장에 푹 찍어서 고기위에 올린 뒤 한입에 들어가기 알맞은 크기로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빙긋이 웃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의 입안에 넣어드린다. 해맑게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저절로 하루의 피곤함이 달아나버린다.

퇴근하자마자 뛰어온 하남시 덕풍1동 나의 조사구이다. 하루 종일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애잔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딸을 위해, 어머니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 오셔서 저녁준비를 해 놓으셨다. 게다가 시장

까지 들리서….

이렇게 새로운 막내딸이 되어버린 나는 이런 저녁이 어색하지가 않다. 힘들게 비스듬히 앉아서 받아 드시는 아버지…, 한 달 동안 겨우 60만원의 월급을 받아 삶을 꾸려나가는 어머니…, 그러나 우리 셋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너무나 행복하고 맛있는 저녁식사 시간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9년간을 누워계셨다고 한다. 9년 전 가을 이맘 때 쯤 인가, 산에 장화를 신고 밤을 주으러 가셨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날부터 하반신마비로 병상을 지키게 되시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원하지도 않는 가장이 되어버리셨다고 한다. 당시 52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라디오에만 의지하며 아무도 없는 낮 시간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해 무료함과 무기력함에 빠져버리신 아버지와 지겹고 힘든 삶에 지쳐 몇 번을 도망치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에게 작년 4월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물론, 나에게도….

5번 연동표본 가계조사구 첫 구역, 그것도 하필 첫 번째 가구! 가계부에 양곡까지 기입해야 되는 가구였던 것이다. 동네 외진 골목안 제일 끝에 있는 허름하고 낡은 단독주택. 지하와 1층으로 나누어진 이 집에 두 가구가 살고 있다. 1층이 바로 나의 운명의 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렸다. 아무리 현관 문을 두들기며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토요일엔 아예 가족동반 출장을 갔지만 허사였다. 나의 궁금증은 커질 만큼 커져 버렸다.

그 날 집에 돌아와서는 2005년 11월 당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을 찾기 시작했다. 주위 동네 분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해 방법이 없었다. 하남시 관리자들과 조사원들을 총동원 해 나의 휴대폰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고생고생하며 찾아내고야 말았다. 고생 끝에 찾아내긴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말에 잠깐 대문 밖에서 아주머니를 뵈어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게 끝이었다. 순간, 두 다리는 힘이 싹 빠지고 허무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다음날 일요일, 또 다시 가족동반 출장을 갔다. 주말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를 동안 투덜거리는 남편을 김기사로 모시고, 차안에서도 쿵다쿵다 다투는 두 아이들도 데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사구로 향했다.

항상 열려있는 대문 앞이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과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준다. ‘그래, 나에겐 저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지!’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현관문 앞까지 갔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하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계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세요?”

한참 후에야 집 안에서 짜증스런 아주머니의 말투가 들렸다.

“아! 계셨네요? ...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조사를 나온 통계청 직원입니다. 잠깐 뵈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말투가 약간 신경 쓰이긴 했지만, 어쨌든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예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또다시 말을 건넸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대답은 “저번에 조사해 갔잖아요? 왜 또 와서 그래요!”

인구주택총조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다. 거의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 겨우 현관문은 열었는데, 아주머니만 손살같이 밖으로 나오시고 문을 굳게 닫아버리셨다. 어떻게든 거실에 앉아 물 한잔이라도 얻어먹어야 무슨 얘기라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동안의 애처로웠던 방문기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나의 예상대로 다시는 오지 말라는 무서운 불호령만이 되돌아왔다.

고이 들고 갔던 답례품도 던지다시피 되돌려 주시며, “없이 살아도 남의 짓은 안 받고 살아요, 우리는 두 식구밖에 없으며 아저씨는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지체 1급 장애인이고, 나는 아침 7시에 나가 밤 8시가 넘어야 일을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오는 것도 아주 싫고 피곤해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라고 매물찬 말만 남기시곤 문을 광하고 굳게 닫아 버리셨다.

10년도 넘게 통계조사를 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문전 박대를 경험해서 이제는 당연한 통과 의례쯤으로 여겨지지만, 가슴 한 편이 무거워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왜일까?

잠깐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지만, 가계부는커녕 인구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사가 분명했다. 아니, 면접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조사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저 아주

머니였다면 나는 과연 문이라도 열고 나와 대답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까? 순간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하지만 대문 밖에서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스린다.

‘7전 8기’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미운 정도 들면 무섭다’ 등등. 갖가지 준비된 말로 나를 완전히 재무장 시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날 다시 조사구로 향했다.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시던 아저씨께서 방문한지 딱 열흘째 되는 날.

“나는 나가지 못해요. 아줌마가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고생하면서 와요? 오지 말아요.”라며 현관 밖의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대답을 해주셨다. 나는 기쁜 마음에 “내일 또 다시 올게요~”라고 말씀드렸다. 혹시 말도 못하시는 분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나에겐 아저씨의 대답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도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돌아올 때마다 아저씨께 문안 인사를,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편지를 두고 왔다. 현관 문틈에 곱게 끼워져 있었던 편지는 미처 뜯겨지지도 않은 채 매번 마당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금요일엔 그 편지들을 모두 모아 예쁜 상자 안에 넣어 현관 앞에 두고 왔다. 아저씨를 위한 맛있는 사탕 한 봉지와 아주머니를 위한 피로회복용 영양제 한통과 함께….

다음주 월요일은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 살짝 열어보니 너무나 쉽게 열렸다. 나를 위해 열려진 문 인줄 알고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머니가 깜박 잊고 그냥 출근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아저씨를 실제로 뵈 수가 있었고, 이날 이후 나는 항상 열려져 있는 현관 문안의 세 번째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

아버지는 당신께서 누워계신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론 극도로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고 계셨다. 출가한 자녀들도 하반신마비 장애인단을 받으신 첫해까지는 그럭저럭 자주 방문을 했었으나, 그네들도 사는 형편들이 그렇고 그런 지라 그 이듬해부터는 명절 때도 잠깐 얼굴 비추기에만 급급하다고 하셨다.

그리움과 외로움에 지치신 그 분을 위해 나는 그 분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진심어린 마음을 전해드렸다. 다른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조사구를 들를 때도 일부러 꼭 들러 국이라도 따뜻하게 드시도록 점심을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고, 시골 본가에 내려가는 주말이면 주문진항 단골집에 들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창란젓, 명란젓, 오징어젓갈과 심심하실 때마다 드실 수 있게 북어 포도 공수해 드렸다. 단지 한권의 가게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로부터 두 달 후,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 저녁식사를 초대한 것이었다. 넉넉지 않은 살림임을 알기에 고기 두 근과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방문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점심을 챙겨드리는 나를 너무나 고마워하셨고,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린 나를 너무나 예뻐해 주셨다.

조심스레 처음 내가 방문했을 때 주저리주저리 늘어 놓았던 말들을 기억하시곤 뭘 쓰는 것 같던데 그게 뭐냐고?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건네셨다. 두 식구에 돈쓰는 것도 별로 없어 거의 쓸 내용도 없는데 괜찮냐? 며 되려 나를 걱정하신다.

그날 저녁 식사를 끝으로 짧다면 짧은 나만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형식적인 가계부 설득 업무를 위해서가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간 나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말이 또 한번 가슴에 와 닿았다.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찬 노란색 가계부는 매월 1일 내 손안에 쥐어진다. 누가 보면 부실가계부가 아니냐? 혹시 쓰다 만 가계부는 아니냐? 고 물어보겠지만 나에게서는 그 어떤 가계부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가계부이다. 물론 많은 내용은 없지만, 뽕뽕하게 쓰진 그 어떤 가계부보다도 충실하며 완벽하다. 퇴근하고 오셔서 아버지 수발들기도 힘드실 텐데, 외식횟수에 쌀 재고량까지 완벽하게 기입해 놓으신걸 보면 괜히 나 때문에 힘든 일이 하나 더 생기 신건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마저도 괜스레 든다.

첫 번째 저녁식사 후 나는 그 집의 셋째 딸로 인정이 되었고 나의 남편은 셋째사위, 우리아이들은 가장 이쁜 손주들이 되었다. 주말엔 가끔 아이들을 데려가서 잠깐씩 놀다오기도 한다. 아버지는 쌈짓돈을 아이들에게 주어주신다. 그러면 다음날 나는 아버지의 맛난 간식꺼리를 사들고 들어간다. 또 그러면 다음날 어머니가 밑반찬과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신다. 이렇게 전혀 남이었던 응답가

구와 나는 가족이 되어버렸다.

첫 번째 친정 부모님, 두 번째 시부모님과과는 달리 세 번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애잔하다. 세 번째 아버지는 돌아서는 나에겐 항상 눈물이 그렇그런 모습을, 들어서는 나에겐 아이같은 해맑은 모습을 보이신다. 나에겐 세 부모님이 있어 행복하다. 또한, 세 번째 부모님으로 인해 다른 두 부모님들과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큰 가슴을 갖게 되었다.

내가 하남시 덕풍1동 조사구 00가구의 담당자임에 감사하고, 운명의 만남을 맺게 해준 가구부문 통계조사를 내가 할 수 있음에 소중한 행복을 느낀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시거나 또 다시 표본교체의 그날이 오게 되겠지만..., 그래도 세 번째 부모님과 셋째 딸의 연은 지금보다 더 깊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현장조사에서의 나, 그리고 우리의 현재

여미숙 | 서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조사경력은 벌써 햇수도 아련할 만큼 25년째인 것 같다. 파란 만장한 삶이라면 조금 뭐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다시 서울로 온 지가 올해로 11년째이다. 부산, 대전에서도 조사업무를 했었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각박한 인심에 비하면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 지금은 그곳들도 세월 따라 인심들이 훌훌 해져 있겠지만...

25년 동안 겪어온 현장조사업무의 어려운 현실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도시지역에서의 통계조사관 조사업무는 순박한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어촌 현장조사·지도업무하고는 출장지역의 범위와 그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서 그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방통계청의 경우, 각박한 사회특성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구의 규모에 따라 현장어려움이 배가된다. 담당

조사구가 1개인 경우보다는 2개인 경우가, 2개인 경우보다는 3개인 경우가 당연히 보완조사 및 불응 또는 부재가구 등 조사구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가되는 업무가 조사구 수에 단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역에서 조사구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업무량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이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동대문구 신설동과 강남구의 논현동 및 개포동의 3개 조사구에 대한 기존의 조사여건을 살펴보자. 강남의 두 조사구는 사무실과 가정이 가까운 반면, 조사가 너무 어려운 원룸과 생활이 일정치 않은 단독가구, 시시각각 감정변화가 심한 불응가구, 만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구이며, 강북에 위치한 신설동은 강남에서 오가기에 항상 교통체증을 경험해야 하는 성수대교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시시때때로 교통대란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답례품 배부기간에 조사대상을 모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써 내 자동차 트렁크는 한 달 내내 택배 차 역할을 하느라 빈 공간이 없다. 조사구에 도착하면 1차 조사를 하면서 답례품을 배부하고, 밤 7~8시까지 기다려 2차 조사를 하며 배부한 뒤, 다른 조사구로 이동하여 10시경까지 맞벌이 또는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3차조사를 하며 배부하다 보면 내 가족의 허기진 모습은 늦은 밤인 11시가 넘어서야 떠오를 때가 대부분이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우리 조사관들의 애환은 이런 조사업무뿐만이 아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조사와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수반되는

추가업무들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야만 한다.

그 험한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의 애환을 어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으랴? 사이버 종교를 전파하고자 가정방문을 하는 사람이나 상품판매원, 때로는 거지 취급까지 당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억지미소를 지으며 그 두려운 현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 조사관의 운명이다.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의 인심은 더욱 고약하다. 연동조사 하기 전 가까운 조사구에서의 일이다. 해외로 원정 골프를 치러 다니고, 도박을 하는 듯한 아저씨는 늘 해맑게 웃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저씨의 애인이 자주 바뀐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집 복잡하니 오지 마시고 빼주세요.”가 첫 인사였는데 나는 염치불구하고 계속 방문을 해야만 했다. 부재중일 때는 정성을 기울인 쪽지·편지들을 쓰면서 현관 앞을 서성거리기 일쑤였고, 안에 있는 기척이 있을 때는 살금살금 노크하며 최대한 애교 섞인 콧소리를 깔다가 갑자기 열어젖힌 현관문에 부딪쳐 이마가 깨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실실 웃었다. 바보처럼...

그러곤 다음 날도 두려움은 있지만 미소를 띠울 준비를 하며 그 집 현관문을 노크할 수밖에 없었다. 인기척이 없어 부재중인가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떠나갈 듯한 고함소리가 들린다. “미친 여편네,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꺼져!” 나는 무서워

얼른 계단을 뛰어 내려가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 숨었다. 그 경황에서도 따라 올까봐 구두소리 안 나게 뛰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란... 지금 생각하면 그 남자가 질러댄 소리에 다시금 소름이 끼치다가도 재빠르게 도망가서 계단 밑에 쪼그리고 숨어 있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씩씩하게 웃곤 한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는 그 다음달부터 그 가구를 불응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자신부터도 감추고 싶은 사생활인데, 그것을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하는 우리 조사관들의 애환을 어느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알아 주시랴...

내 경우, 작년 한 해는 공교롭게도 세 조사구나 연동조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드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조사구 아줌마의 남편 왈 “그 여편네 다시 한 번 나타나면 죽여 버리겠다.”며 빨리 사라지라고 황급히 밀어 붙이던 아줌마,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몰아세우던 아저씨, 단독 주인가구부터 셋집 7가구가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던 대형 사건들... 그런 예상치도 않은 가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조사관들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연동지역의 새로운 가구원들과의 만남, 각양각색 색깔이 다른 불응가구원들의 위협·시달림으로 인해 나는 작년 내내 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아야만 했다.

내가 조사관들의 이런저런 애환을 담아 썼던 “똑똑 구두소리”라는 수기가 실린 『2006년 가구부문 현장조사 사례집』을 잡지책임

줄 알고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던 남편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흐느꼈는지, 한참 만에 퐁퐁 부은 얼굴로 나와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남편에게는 그만큼 귀한 아내일진데 현장에서는 늘 대답하기 싫은 사람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악녀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 업무가 어려운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다.

- 날로 심해져가는 사생활 노출기피현상으로 가구와의 외부접근성 차단
- 부재가구, 단독가구 증가로 인한 대면접촉 기회부족
- 생계곤란, 사업부진, 취업난 등으로 인한 면접기피
- 정부불신풍조 또는 사회적 따돌림 현상에 의한 일방적 거부현상
- 조사정보 누출/불이익을 우려한 응답기피 또는 불성실한 답변
- 동일한 가구에 대한 다양한 조사실시에 대한 거부감
- 동일내용에 대한 지속적/반복적인 조사행태에 대한 거부감 등

조사관들의 애환은 그 많은 현장에서의 시달림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담당 조사관들의 업무량 과다로 현장조사에 집중하기도 여간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자전망조사, 방세조사 등 실사를 마치게 되면 곧바로 가계부 회수, 내용 보완·정리, 집계 및 전산입력 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기초작업이 끝나면 조별 내검, 전산 내검 및 전문조 내검 등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검증작업을 거치게 된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위와 같은 조사업무 외에 경제활동 부가조사 연 3회, 사교육비실태조사 2회, 가계신용조사, 가계자산조사, 사회통계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인력실태조사 및 생활시간조사

등 각종 특별조사가 추가되어 지속적인 조사업무 이상으로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심한 혼역을 겪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도 서울지방청은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되어 합동홍보, 성과관리, 전문조 내검, 학습동아리 활동, 상호 교환조사, 보완조사, 가계프로 설득반 운영, 응답자 초청간담회, 답례품 배부, 봉사활동 및 업무혁신포럼 등 혁신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업무홍수 속에 사는 조사관들은 갈수록 자기계발, 취미생활, 여가활동, 사회활동 및 가족생활에 시간을 투자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어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동시에 삶의 의욕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퇴근 후에 아이들의 학교공부를 돌봐주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이나 그러한 모습에 행복감을 느끼며 과일을 준비하는 아내의 여유로운 모습은 매일 탈진해서 귀가하는 우리 조사관들에겐 꿈일 수밖에 없는 일일까?



어촌계장 설득작전!!



전 옥 순 | 부산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2002년 10월 통계조사 상시조사원으로 통계조사와 인연을 맺은 후 계속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만 담당하다가 금년 7월부터 어가경제조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정신이 없는데다가, 곧 바로 8월부터는 표본개편으로 인하여 신표본 어가경제조사와 병행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평소에 꼭 한번은 해보고 싶은 업무여서 자원은 하였으나,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다행이도 구표본조사는 임시조사원이 담당한다고는 하나 어가 경제조사업무에 대한 업무내용도 파악하기 전에 신표본 어가경제 조사를 담당하라니... 퇴근해서도 이런 저런 궁리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터라, 연일 섭씨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8월 초순의 폭염 속에도 불구하고 조사구요도를 들고 마냥 해당 조사구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단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맡게 된 신표본 어가경제조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우선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항만건설로 어업보상을 기대하는 명목만 어가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어업보상 및 불법어업 저지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불신이 팽배한 어촌으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어민끼리 단합이 매우 잘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더욱이 어촌계장 조차 단합하여 정부에 대해 철저히 냉대하는 지역이었다.

신표본으로 선정된 어가경제조사구 3개 조사구가 이 지역에 있는 관계로 혹여, 한 가구라도 일계부 기장을 거부하게 되면 3개의 조사구의 표본어가가 모두 거부할 것이 자명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처음에는 표본대상 어가를 방문하여 일계부 기장을 요구하자 표본대상 어가마다 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불응하였다. 특히, 어촌계장들이 모두 단합하여 이 조사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마을 전체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마을에는 3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어촌계장들은 마을에서 나름대로 유지로서 대내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 설득이 쉽지만은 않았다. 설득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마침 우리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홍보위원 위촉행사에 어촌계장님들을 참여시키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갖은 설득 끝에, 처음에는 어촌계장들이 우리 청 방문을 마지못해 약속을 하고나서도 막상 행사일이 다가오자 수협에서 회의가 있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미 통계홍보위원 위촉패가 제작된 상태이고, 이곳 세 부락의 어가경제 조사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곳 어촌계장들의 참석이 꼭 필요했기에 끈질기게 어촌계장을 설득했고, 급기야는 우리지방청이 초청공문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수산청의 회의일정을 변경하였노라고 하면서 행사참석에 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못 미더워서 행사 당일 날 새벽에 일어나 우리 집에서 15Km이상 떨어져 있는 조사구로 택시를 타고 가서 어촌계장들을 수배하여 우리 사무실까지 무사히 모시고 올 수 있었다.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어촌계장 모시기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내가 모신 어촌계장님들은 마지못해 행사에 참석은 하셨으나, 막상 각 지역의 어촌계장, 해녀회장 등 평소에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 한 자리에 계신 것을 보고는 매우 흡족해 하셨다.

행사 중 청장님의 인사말씀, 과장님의 통계청에 대한 소개에 이어 통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 말씀과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어업통계가 부실해서 한일어업협상이 불리했었다는 통계홍보비디오를 시청한 후 깊이 공감하면서 평소와는 판이한 태도를 보이셨다. 푸짐한 점심 접대와 함께 통계홍보위원 위촉 패를 받은 우리의 어촌계장님들이 통계조사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신 것을 보고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은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우리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부산시 어민체육대회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어가

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가경제조사원 3명이 체육대회 행사장까지 달려갔다. 우리지방청의 봉사활동용 노란 조끼를 맞춰 입고 음식을 나르는 등, 몸을 아끼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는 어촌계장들은 흐뭇해 하시며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이를 계기로 어촌계장님과 함께 조사구의 표본어가 대상가구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어촌계장들이 직접 나서서 『일계부를 잘 적어 주어야만 우리 어가가 산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을 하니, 그렇게 설득을 해도 불응하시던 표본어가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하여 주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3개 조사구의 12개 표본어가 모두를 설득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사실상, 000조사구의 어촌계장님은 우리청의 홍보위원 위촉행사 참석 전에는 표본대상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일계부 작성을 완강히 거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계부 작성을 하고 계시며, 면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불응하시던 000조사구의 000씨는 지금은 일계부를 적극적으로 작성해 주고 계신다. 더구나 부인이 헛집을 운영하고 있어 바쁘다고 짜증을 내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던 000조사구 000씨도 어촌계장들의 꾸준한 설득과 우리들이 수시로 점심때마다 작전상 이용하고 있는 터라, 지금은 아주 정성껏 일계부를 작성해 주고 계신다.

어가경제조사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공감했듯이 처음에는 거리도 멀고 어부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응대에 미리 주눅 들고

서러워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으나, 가족을 대하는 마음같이 온 마음으로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면 표본가구와의 5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의 진심을 “꼭” 알아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조사원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쳐있지만, 머지않아 웃으면서 과거의 힘든 시간들을 돌아볼 여유마저 생기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계조사원들이여!!

오늘도 파이팅!!!!



고구마가 냄비에서 익어 가는 기적 소리 ‘삐~~이익~~’

백 찬 중 | 부산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다음해 정치, 경제의 위기 속에 1월 16일 통계청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누구나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금모으기, 아나바다 운동 등으로 2년 8개월 만에 구제 금융에서 벗어나 나라의 위기를 구한 것이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나오게 했다. 한강의 기적은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한다. 역시 통계청에서 선배, 후배 여러 직원들의 현장 조사 체험이 모여 오늘날 통계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란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사업체 현장조사에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처음 맡은 사업체지역은 탁한 공기가 밀려오고, 코를 찌르는 특유의 냄새가 짙게 깔린 염색공단지역이었다. IMF의 한파는 염색공단 내에도 영향을 주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문을 닫는 염색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공단의 탁한 냄새와 섞여 처음 현장조사를 임하는 나에게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인계를 받고 있는 중 사업체 정문 앞에 왔을 때, 이 불안한 느낌이 엄습했고 들어섰을 때는 더욱더 적중했다. 며칠 전 이 사업체는 대표자가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여 통계조사에는 협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통계청 직원은 경비실에서부터 출입 금지시켰다고 하여 인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섰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 사업체를 집중 공략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만약 조사 대상 사업체가 응답자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협조를 해줄 수 없다하여 포기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공단 내 모든 사업체가 안 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사업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우선 응답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체 주변을 서성거리다 잠시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서 무작정 응답자가 있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통계청 직원이라며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있던 경리직원이 다짜고짜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통계청 직원입니다. 부장님을 만나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네!! 통계청 직원이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비실에 아무도 없던가요? 사장님이 알면 큰일인데” 혼자 궁시렁! 궁시렁! 거리더니 나를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와서는 그냥 갈 수는 없어서 경리부장에게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다. 경리아가씨처럼

역시나 경리부장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만 곳곳(?)하게 앞 소파에 앉아 40분을 기다렸다. 그때쯤 경리부장은 회의 참석한다고 획 나가버렸다. 조금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 그래 쫓겨난 것도 아니고 다시 오지 뭐 이쯤이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또한 이 모든 환경도 즐기고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그럼 부장님이 바쁘신 것 같으니 다시 오겠습니다.”하며 사무실 밖을 나왔다. 그 때를 생각하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은 당신네 업체들이 생고구마처럼 젓가락으로 찌르면 잘 안 들어가지만, 곧 익은 고구마로 만들어 주리라, 그때는 젓가락으로 꼭 찌르면 잘 들어가겠지... 익을 때까지 찌르리라!’ 하고 생각하며 오기를 키웠다. 그렇게 매월 방문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를 수개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야기’를 생각하였다. 요는 이렇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했다. 그러자 좋지 않은 재판관이었지만 원한을 풀어달라며 늘 찾아오는 과부가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면 다시는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야기다. 그 과부를 떠올리며 ‘나도 그런 과부가 되어보자, 그래 포기 안하면 귀찮아서라도 조사를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조사 기간이 되면 늘 방문하여 귀찮게 하였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드디어 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고구마가 냄비에서 익어 가는 기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고구마가 냄비에서 익어 가는 기적 소리 ‘삐~~이익~~’

삐~~이익~~

행복의 소리...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

기적 소리... 삐~~~~이익~~

경리부장으로부터 반응이 왔다 “당신 지긋지긋 해서 안 되겠다” “사장님이 반대해서 통계조사에 협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 보다 당신이 매월 찾아와 기다리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돼서 빨리 보내야겠다.”고 말하곤 잠시만 기다려라 곧 조사표를 작성해서 주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매월 방문하여 커피 대접도 받고, 앉은 자리에서 통계 자료를 직접 작성하며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 성공의 결실은 지금까지도 불응사업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낳았고 지금까지 현장조사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시간이 흘러 IMF도 사업체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아픔 속에 극복되었고, 사업체 부문의 안정을 찾아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장조사의 환경은 사업체 부문의 경상업무에 서비스동태조사, 전자상거래통계조사 등 새로운 현장조사 업무가 생기기 시작했고, 복잡 다양해져가는 경제의 정부 혁신의 물결과 함께 급변하기 시작했다. 개인별 경상업무 담당사업체수는 90개 내외로 부담이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일선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가 어려운 현장조사 여건 속에 날마다 현장 일선에 서서 지금은 사업체 응답자들과 크고 작은 일에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다. 신규로 내려온 사업체가 있어 방문하여 공문과 함께 통계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를 해줄 것을 약속 받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로 왔는데 다음날 응답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통계조사에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냐고 물으니 다른 이유는 없고 바빠서 매월 작성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참을 통화를 하고 설득 후 전화통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에 퇴근 시간 쯤 되었을 때 다시 응답자의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나도 구청에서 통계조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 조사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 사항이 아니냐? 당신이 무슨 과에 있냐? 직급과 이름이 뭐냐”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여 이려는 것이었다. 얼굴도 한 번 본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한때 유행하던 개그프로의 말들이 생각났다.

정말 너무한다. 이래도 되는 건가? 화가 났지만 통계조사의 목적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등 상세히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시청에서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해 봤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는 언니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통계조사의 목적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난 다음 이해를 하고 이런 속내를 드러냈다. “언니가 세금 부과가 많이 될까 걱정이 되어 이리, 저리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시청 직원은 언니에게 세금과 무관하고 최대한 통계조사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 이런 불응하고 설득하는 크고 작은 일이 현장의 일선에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물론 현장조사 업무 중 보람된 기억도 있다. 도소매업체로 동 공구 상가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방문 중에 응답자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고난 후 자기 아들을 조사현장에 데려다 쓰면 안되냐고 물으며, 봉급은 안줘도 괜찮다고 했다. 지금 현재 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제대하고 집에 쉬고 있다는 것이었다. 답답한 부모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특별히 해줄 말이 생각이나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다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묻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출력하여 관련 자료를 드렸는데 아주 고마워했다. 그 이후로 응답자와 유대가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통계조사 현장에서의 성실한 행동, 하나하나의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국민 앞에 신뢰받고, 급격한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계수요와 조사환경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10년을 설계·100년을 선도하는 통계청 -World Best5 : 2010- 통계청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내 힘으로 반드시 신뢰받는 통계조사 현장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해 본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약밥



정 현 희 | 부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

쫄쫄처럼 무덥던 날씨가 이젠 제법 선선해져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2006년 가을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기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만 하던 내가 통계청과 인연이 닿아 임시 조사원으로 채용되어 통계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사람을 만나서 스스럼없이 대화 하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통계청 일이 내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용기와 자신감만을 가지고 겁 없이 통계청에 발을 디딘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1년 동안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내가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중구 약사동 조사구 특성은 부유한 계층이 많으며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은 집 앞에 들어서지도 못하도록 보안장치가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어서 주간에는 면접을 할 수가 없어서

조사를 하기가 힘들었다. 어쩔수 없이 늦은 밤중에 조사에 임할 수 밖에 없었고, 저녁으로 아파트 창문 틈 사이로 비치는 불빛을 보고 찾아 들어 가기를 여러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냉랭하기만 하던 주민들이 한 두 분씩 미소를 띄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몇 몇 분은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으로 얼굴만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가라는 말만 할뿐 이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그 중 한 분은 집안에 계신게 분명한데 대꾸도 없이 인터폰이 꺼지곤 했는데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망신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재방문 메모를 남겨 놓았는데 다행이라 여겼던 생각이 어설픈 착각임을 다음 날 바로 알았다.

재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 밖에서 있는 나를 확인하고는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아버리셨다. 정말이지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태어나서 그때 처럼 나 자신이 못나고 무능하게 여겨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벽으로 가로막혀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좌절감은 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순간 아무말도 못하고 멍해지면서 “정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능력이 이것 밖에 되질 않나” “통계청언니들(선배)을 보면 조사구 주민과 통화를 해도 친구처럼 편하게 통화도 하던데 것처럼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채 어지럽게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잠시 정신을 추스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곱씹어 보았다.

“내가 잘하면 상대도 잘 하겠지”란 생각보다 처음 입사하여 얘기하고 듣는거 좋아하니까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이란 생각부터가 나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다.

“말하고 듣는 건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진심뿐이다!” 혼자 고민 끝에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고 해답은 진심을 통한 열린 마음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살림살이에 제법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트로 달려가서 밤이며 대추, 잣, 해바라기씨, 건포도, 콩 등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찹쌀을 불리고 밤을 깔고 잣을 다지고 대추씨를 바르며 정성을 다해 약밥을 만들었다. 늦은 밤 부엌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자고 있던 딸 아이가 일어나 약밥 만드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같이 할 거라며 소매를 걷어 붙이고 도와주는 사이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은 약밥이 완성되었다. 예쁜 모양 틀에 약밥을 찍고 찍어낸 약밥 위에 잣을 올리고 랩으로 포장을 했다. 그리고 도시락에 가지런 하게 담아 놓고 메모지를 썼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늘 어머님 집 앞에서 그냥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제 딸 아이와 함께 약밥을 만들었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쇼핑백에 담아 아파트 대문 앞 문고리에 걸어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운전을 하는 내내 머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머니가 싫어 하면 어찌나?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지 않는을까?

집으로 돌아온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눈에 익은 전화번호라 얼른 받아 들었다. 아니, 이런 일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였지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주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면서 “사실은 3년 전 자궁암 수술을 받고 나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싫어했다”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당신 마음을 풀어 놓는 것이 아닌가...

“요즘 옆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과 만나도 이야기 한마디로 하지 않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주변엔 아직도 따뜻한 정이 남아 있구나” 하시며 내게 몇 번이나 고맙다며 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 주었다는 생각에 어찌나 기쁘던지 날개가 있다면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순간의 행복했던 기분은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먼저 정성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역시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은 없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조사구에 가면 김치 담았다며 한 통 담아 주시는 아주머니, 시골에서 캐온 부추며 고추랑 마늘이랑 챙겨 주시는 조사구 언니, 내가 방문하게 될 날을 맞추어 생선이며 떡국이며 냉동실에 얼려 놓았다가 주시는 할머니, 이 모든 한 분 한 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며 이 분들을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재산을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

“

우뚝 선 자 견고, 걸을 수 있는 자 뿔 수 있기에
나 역시 무너지지 않고 견디리라

”

불용가구 설득에 한 몫 단단히 했던 사랑스런 나의 딸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게 도와 준 소중한 가족 그리고 옆에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챙겨 주시는 직원 분들과 선배 언니들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활기찬 내일을 위해 다시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조사구 주민이 100% 흔쾌하게 답변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해 나아갈 것을 다짐 해 본다.



조사대행 사업, 그리고 숨 가빴던 2달

안영민 | 부산지방통계청 기획과 |

2007년 3월,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1~2가지씩 지자체의 통계를 지원하면서 지역통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었다. 부산지방 통계청에서도 해운대구 고용통계를 시작으로 지역통계팀장님과 팀원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을 홍보하는 등 지역통계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러던 중 해운대구에 이어 드디어 두 번째 결실이 다가왔다. 2006년 하반기부터 통계작성 업무협의를 계속하던 부산의 연구기관에서 통계청의 조사 노하우를 빌려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장조사 대행을 요청한 것이다.

조사대행 사업은 우리 지방청에서 한 번도 경험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통계를 풍성하게 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첫 예상만큼이나 업무는 막연했고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참고할 만한 업무매뉴얼은 물론이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어서 문의를 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의뢰기관에서 현장조사, 입력완료까지 2달도 채 안되는 시간을 앞두고 설계된 조사표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통계조사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각종 법령을 뒤져가며 수입대체경비나 조사대행 사업에 관하여 자료를 검색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어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며칠간을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팀장님께서 대행 사업 경험이 있는 다른 지방청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자료수집 차 전화를 하셨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 진작 지방청에 물어볼 것을 왜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썼나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드디어 길이 열린 것이다. 대행사업에 있어 먼저 경험을 가진 지방청 지역통계팀장을 초청하여 사업체결에서부터 비용 산정, 예산신청절차 등 궁금한 것을 모두 여쭙보았다. 이것, 저것 하나씩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머리 속에 가득 찼던 안개가 드디어 걷히고 어렵פות이 실체가 보였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사요청 기관과 지방청 사이에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부터 맺었다. 그 이후 장장 25페이지에 달하는 조사표를 응답자가 수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배열하고, 색상을 삽입하는 편집 작업에 착수하였다.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기준을 잡아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힘들게 조사지침서도 작성했다. 사업체 대상 조사였기 때문에 기존 통계청 조사와 중복되는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해 경제조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상조사 사업체 확인과정을 거치고 폐업

이전현황 파악을 위한 명부확인 작업도 하였다.

기존 통계청 조사에 비해 조사분량이 많고 질문문항도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팀내에서 제안한대로 조사 실시 이전에 의뢰기관 공문과 조사안내 협조문을 우편으로 사업체에 발송하기로 하였다. 덕분에 예상보다 불응 사업체 발생 없이 조사가 가능했고 미리 공문을 받은 사업체의 조사협조 정도도 기대 이상이였다. 현장 조사는 미리 준비한 덕분에 처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그 많은 분량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입력하여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행사업은 지자체나 기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사 내용도 기존 통계청 조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본청의 입력프로그램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럴듯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로 그 많은 분량을 오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입력해서 분석할지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었다. 길게 시간을 두고 추진을 했더라면 입력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었을텐데라는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나오던 차에, 평소 우리지방청과 업무적으로 도움과 조언을 많이 주신 지역의 통계학과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다.

교수님께서서는 연구기관에서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학교에 많이 의뢰를 한다며 흔쾌히 입력업무를 수행할 통계학과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고, 입력 장소까지 마련해 주셨다. 천만다행으로 조사표 코딩에 능숙한 학생들과 함께 입력을 완료하였다.

3월 까지 업무협의, 4월 조사준비, 5월 현장조사와 결과 입력

까지 지금에 와 돌아보니 숨 돌릴 틈도 없이 정말 빠듯하게 추진
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처음 해보는 업무를 그래도 큰 문제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다.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그 분들이 없었다면 매순간 순간
어떻게 고비를 넘겼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할 따름이다.

7, 8월 우여곡절 끝에 해당 조사의 통계승인까지 얻어 사업을
의뢰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하반기 2차 조사
역시 대행사업의 형식으로 우리지방청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상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한 덕분에 대규모
사업체 위주로 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등 유고건수도
예상보다 적었다. 물론 상반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큰 힘이 되었다.

아쉬운 점도 많았다. 앞서 고민한 대로 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매뉴얼, 입력프로그램 문제 등은 전 청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거나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
통계가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의
큰 틀이 마련되어 통계작성이 수월해 진다면 지방청이나 통계조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지역통계를 활성화 하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조만간 시간을 할애하여 누구라도 참고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편람을 작성할 생각이다.

앞으로 더 많은 조사대행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로 하는 통계는 많지만 국가통계를 직접 만들 역량이 부족한 많은 지역기관들을 위해 조사대행은 효율적인 제도이다. 통계에 목말라 하는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작지만 나의 노력이 부산과 울산의 통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본다.



또 다른 나의 가족들



정순옥 | 부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며칠 전 딸애가 학원가는 길에 다시 들어와서는

“엄마!! 하늘 한 번 올려다 봐! 참 이쁘다.”

“정말!!” 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가끔씩 하늘 올려다 볼 생각도 이쁜 하늘을 마음에 담을 여유도 없다. 매일 매일이 전쟁이란 말, 그 말이 딱!! 어울릴 것 같다.

9월 이 달이 끝나면 통계조사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5년이 된다. 30대에 멋모르고 첫 발을 내딛고는 정말 겁 없이 씩씩하게 잘 다닌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내 자신에게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에 가끔씩 지치곤 한다. 겁이 없다가보다는 세상물정을 너무 몰랐던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

남들도 다들 나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도 이 일을 하면서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된 또 하나의 인생 공부였던 것 같다. 세상을 조금씩 알아 간다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 같다.

내가 맡은 조사구 중에 한 조사구는 울산시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지역이고 다른 한 조사구는 여느 주택단지와 다름없이 잘 짜여진 그런 단독주택지역으로 임대아파트지역이 조사하기는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저소득층에 건설노동자, 제조업체의 하청공장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다들 인심들은 좋고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할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저 자식 대하듯이 대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서 사람냄새를 맡으면서 가끔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번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년 전 연동으로 대체되기 전의 조사구는 말 그대로 악조건은 다 갖췄던 것 같다. 20가구 중의 절반이 이혼, 재혼, 별거 등 결손 가정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를 넘는다는 말을 해도 정말 남의 나라 얘긴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병영조사구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연동으로 바뀐 지금의 조사구는 다행히 그런 가구는 2가구뿐, 대신 내부 환경은 더 열악한 상태이다. 1개 층에 5가구씩 4개 층 20가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1층에는 연세드신 가구가 3가구사시는데 한가구는 가구주가 상이 군인이라고 해야 하나? 전쟁 중에 두 다리를 잃으신 할아버지인데 보훈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고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편이나 다른 여건들은 정말 힘든 가구다. 팀장님이 한번은 실사지도를 가셨는데 잠시 동안 숨을 쉬시지 못하셨다는 얘길 하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할머니는 천식에

노환이 심하셔서 혼자서 식사도 힘드신 분이다. 물론 용변처리가 안되어서 아기기저귀를 사용하시고, 할아버지는 의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분이고, 부모님 걱정에 결혼도 못한 딸은 결혼 할 생각도 못하고 회사에 다니고... 처음 이 댁을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 말씀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물론 통계 조사를 하면서 늘 듣는 얘기지만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보니, 혹시라도 보훈연금을 많이 타는걸 알고 돈을 빌리러 오지 않을까! 혹시 탐내지나 않을까, 자신 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에 나의 방문을 상당히 꺼려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해 주신다. 처음 열악한 가구들을 방문했을 때 외부인을 꺼려하는 그 눈빛이며 통명스러운 말투 등은 나를 주눅 들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통계인의 오투기 정신으로 통계조사를 귀찮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반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양곡소비량조사를 해 주시는 가구는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이혼을 하고 온 정신지체장애인인 30살 넘는 딸이 있다. 가계부는 아버님이 잘 써 주시는데 몇 달에 한번씩 딸이 내 혼을 빼놓곤 하지만 그리 미워 할 수가 없는 친구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고 안계시면 매달 1일에는 이른 아침에 전화해서는 “아줌마! 가계부 안가져 가요? 언제 가지러 와요?”라고 말하며 나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밖에 나가 기다린다고한다. 너무나 잘 써 주신 가계부를 혹시나 나에게 준다고 밖에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럴 때는 출근도 뒤로 미루고 가계부부터 회수를 하러 가야 한다.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다 보니 모든 건 자기기준에서 생각을 한다.

일찍 오라고 전화 해 놓고는 내가 가는 사이에 이미 자신은 외출을 해버린다. 시간개념도 없고 밖에서 놀다가도 배가 고프면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하고 강아지 밥도 줘야하고 버스를 타고는 울산의 어디든 갈 줄도 알고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걸 무지 좋아하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아주 단답형의 말만 가능한 그런 친구. 황당함. 그 자체다. 그렇게 몇 번 반복 후에 가계부가 내 손에 들어 오면 가슴을 째~~아하니 쓸어내리곤 한다.

10가구 중에 9가구가 가계부를 쓰시는데 특이하게도 남자분이 가계부를 쓰시는 가구가 3가구나 된다. 배우자분들이 가계부를 쓰는데 성가시다기보다는 글을 모르시는 문맹이신지 아니면 아주 짧은 글만 쓰실 수 있는지,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맘만큼은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다.

내가 갈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한 조사구가 다운동조사구다. 정말이지 이곳은 힘이 든다. 연동조사구로 대체되기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 역시도 정말 힘 든다. 내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다운동 조사구와 내 인연이 너무 멀어서 그런가, 나도 가끔은 의문스럽다. 한 가구 겨우 설득해서 가계부를 쓰시게 하면 잘 쓰시던 가구가 이사를 가버리고 그렇게 대체된 가구는 정말이지 가계부는 커녕 경찰 조사도 힘이 든다. 얼마 전 전입가구는 새벽에 부산어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 와서는 작은 식당에 납품을 하기도하고 시장에서 소매로 판매도 하시는 분인데 아예 대면도 하지 않으신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중요성을 설명도 했고 협조도 부탁을 했지만 "절대 불가"라는 말씀만 되돌아온다. 명함도 드렸고 안내장도 드렸는데 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으시고 중구청 기획감사실로 전화를 하셔서 “절대 못 해주신다”고, 다시는 가구에 못 찾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상한 건 동사무소 가서 자기네 가구현황을 조사해 가라고 해 놓고는 전입신고도 안 한 건 또 무슨 이유인지? 주인아주머니께 협조도 구해봤지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분들 인가보다. 경찰 조사도 못한 상황인데 난 이 덕에 가계부설득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정말 답답, 갑갑 그 자체다. 에고~~ 나 좀 도와 줄 이 없을까! 정말이지 살풀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다른 분들이 가계부 100%라는 말, 90%라는 말 할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물론 회수율이 아주 중요하지만, 가계부 한 권을 회수하기에 급급하기보다 회수된 한 권의 가계부가 누락된 내용없이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워져서 더 중요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는데 밑거름이 되어야지하는 생각으로 회수율낮음을 스스로 위로해 본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참 많이도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함께 가야 할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가족들이 있어 난 오늘도 환하게 웃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입사후의 시간들



이 상 심 | 부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

벚꽃이 만발이 피어나는 4월!

말 많고 웃음 많던 입사 후의 벚꽃이 20번이 지고 나니 뒤를 돌아 볼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20살이 넘으면 어린나йд도 아니지만 입사동기가 23명이나 되다보니 사회생활이 아닌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사무실이 늘 시끌벅적했다. 가계부정리도 지금과 같이 전자 가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격 권수도 최대 20가구인 지금과는 달리 3조사구 가계부 최대 30권이 넘는 조사구도 있었으니 부호넣고 계산하고 집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팀별 내검까지. 권수도 많으니 내검도 하루종일. 보름을 꼬박 앉아 고개들 시간없이 일해도 모지랄 판인데 늘 사다리타서 과자 사먹고 전날 오락 프로보고 재밌었던 장면 얘기하고 그러다보니 과장님한테 떠든다고 맨날 혼나고^^ 그런데도 한 30분지나면 또 떠들고 또 혼나고 ㅋㅋ 그 당신 혼나도 즐겁기만 한 직장생활이었다. 그러다 하나 둘 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친구, 사업한다는 친구, 다른기관으로 가는 친구

등등 그렇게 한 해 두 해 떠나는 친구들로 남은 동료는 7명. 티비 프로로 공동화제로 삼아 웃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던 우리. 그렇게 웃고 떠들다 20대는 지나고 30대를 맞이했다.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하기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호락 호락한게 아니었다. 아침잠은 물론이지만 한번 잠들면 흔들어 깨워도 모르고 자는터라 애가 자다 밥달라하는데 못 듯고 굶기면 어찌지? 몸부림도 많이 치는데 옆에 자던 애를 발로차면 어찌지? 하고 철없는 걱정이 많았던 초보 엄마로 돌입했다. 문득 문득 처녀 때 친구들과 했던 말이 생각난다. “30대가 되면 항상 정장입고 다니고 말도 품위있게 하고 또 애 엄마가되면더 멋있게 입고 다니자”하며 철 없이 떠벌 떠벌했던 말들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철없이 떠벌였던 말이다. 혼자인 아침도 전쟁통인데 간난쟁이가 있는데 어찌 전쟁통이 아니겠는가. 어떤날은 발로 이불을 찌~~익 밀어놓고 출근하고 어떤 날은 밥상도 그대로 놓고 감기걸릴까봐 애를 돌돌말아서 업고 귀저기가 방들고 출근하는데 무슨 정장? 신경질나 죽겠는데 말이 품위있게 나오나? ㅎㅎ 최대한 의식은 하려했지만 웃은 정말 안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출근하면 아침의 전쟁은 누가 이겼는지 또 졌는지 모르게 출장을 나간다.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다. 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단지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려. 출장가서의 전쟁은 반듯이 내가 이겨야하는데 불응 가구에 한해서는 번번이 설득 당하기도 한다. 지금도 설득당하고 또 당하고... 이런 상황은 나 뿐만이 아닌 동료들 모두의 고민거리다. 입장 바꿔 생각

하면 가계부 쓴다는게 그리 만만찮은 일이 아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는지라 나는 가계부기입을 권유해야하는 입장이고 조사구 주민은 권유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막무가내 싫다는데 뭐~ 어루고 달래고 해도 안되서 주말에 애 업고 놀러간다 생각하며 과자사들고 놀러갔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오라~~^^ 설득하는데는 말 못 하는 애도 한 몫하는구나” 부산스런 매일 아침의 고생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였다. 그 후로도 나의 딸이 한 몫해주는 기회는 자주 왔다. ^^ 먹는걸 좋아하는 나는 부침거리를 준비해서 조사구가서 지저 먹기도하는 20대의 유대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줌마형 유대관계로 자연스럽게 돌입한거다.

떠난 친구들과 지금의 세월속에 남아있는 나는 불혹의 나이를 넘겼다. 말 그대로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할 나이에 들어선거다. 아이처럼 혼나면서도 뒤돌아선 웃던 시절, 오락프로에 화제삼아 웃던 우리가 이제는 아이의 공부방식, 어느 학원이 좋은지 교육관련 정보교환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절로 접어들었다. 어릴 땐 조사구 주민과의 대화가 업무적이고 어리광적이었다면 현재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인지 스스로도 대화의 폭이 넓어짐이 느껴진다. 아가씨나 총각과의 대화에는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이상형등의 방향으로 대부분의 남자 가구주분과의 대화는 시사나 사회생활의 고충 등의 방향으로 학생들은 나의 아이와 견주어 대화할 수 있고 주부는 말할 필요없이 착착맞고^^ 나에게 있어 대화의 폭은 넓어져 참 좋지만 가계부의 불응은 식을줄 모르고 “열기! 불응의 열기”가 한층 더해간다. 어쩐다. 이제는 간난쟁이도 없는데... ㅎㅎ

이렇게 불응의 열기는 빠르게, 시대의 변화는 더디게 받아들여 가는 40대로 접어들었다. 실은 좀 괴롭다.^^ 가계부 권수 당 성과 실적이 나타나고 그로인해 점수가 낮은건 감수한다 치지만 나로 인해 파트에, 사무소에 손해를 입히면 어찌나하는 연대책임의식에 마음이 많이 무겁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부쓰는 습관이 안 들어서 또는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불응을 하고 있지만 정성이 필요한 시간에 정성을 쏟고 있는 나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거라 나는 믿는다. 그래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드에서의 행동이 참 조심스러워진다. 나의 잘못된 언행이 조사구 주민에게는 “통계청”을 대표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장때는 좀 불편하지만 정장으로 갖춰입고 이쁜 얼굴이 아니여서 특히나 미소를 머금으려 노력하고 있다.

조사구가서 꼬마들을 볼 때 예전엔 “안녕~ 통계청 언넵데(누난테!)”하며 답하던 내가 “엄마계시니~통계청 아줌만데!”로 바뀐게 언제인지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후에 방문했을 땐 뛰놀다 들어온 땀으로 범벅된 애들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식 생각에 찢겨주고 싶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싶은 조사구주민이 아닌 내 가족으로 느껴 지는 그런 나의 40대가 참 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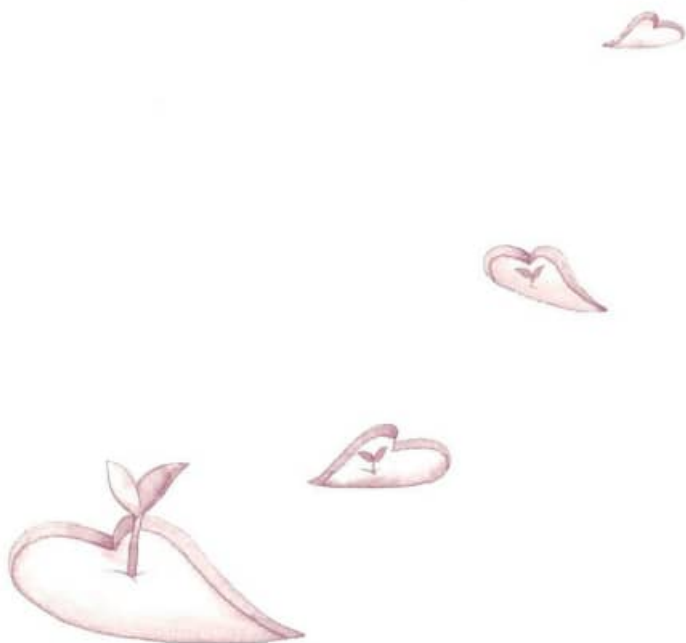
이 모든 것.

20대의 웃음발 30대의 초보엄마 40대의 주부생활을 행복하게 느끼게 해준 나의 직장생활. 가계부 1권에 웃음과 울음이 얼마나 많았을지는 통계인이라면 모두 동감할거다. 가계부1권에 웃음만이

피어나고 경찰의 불응이 없는 그날까지 정성을 쏟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지치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이다.

으~ 수기를 적는 이 순간.

어디선가 불응의 열기를 받으신 우리 조사구 아주머니. “미안해도 이번달까지만 쓸거니까 다음달부터는 모릅니다. 스트레스때문에 못쓰니다”란 메시지 한 방 날려주시네. ^^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애교멘트로 감사히 받고 열기를 식혀드리러 나는 또 방문해야겠죠?



응답자 마음을 열자



이 정 혜 | 부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가족들 아침준비 하느라 아이들에게 고함만 지르다 나왔다는 동료의 말을 들으며 요즘 다들 바쁘게 생활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생활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며 돌이켜 보게 된다.

생각해 보니 2007년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 였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을 시작으로 통계청과 인연이 되어 통계청의 여러 조사의 임시조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아이 셋 뒷바라지 하면서 활동하기엔 괜찮은 일자리였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금 도급조사원으로 일 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도급 조사원으로 채용되면서 도소매, 서비스동태조사와 경제 활동인구조사 업무를 배정 받았다. 누구든 처음엔 일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대단 하겠지만 나또한 일을 잘 해 보겠다는 자신감으로 의욕이 넘쳐 사업체 방문과 가구 방문을 하게 되었다.

배정 받은 대상처는 표본으로 선정된지가 몇 년씩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대상처 같은 경우는 전 담당자들께서 이미 조사하기 쉽게 잘 닦아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자료를 얻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맡은 대상처는 소규모 미기장 사업체도 많아 방문했을 때 해당 사업체가 장기간 조사대상 이었던 것과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 자료를 노출 하는게 싫다,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귀찮다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대상처 도 있었다.

한 대상처는 서비스동태 조사대상인 숯불고기집으로 전담당자가 인수 받은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상처인데 조사에 비협조적인 대상처라고 함께 인수인계를 하러 갔다. 역시나 조사대상에서 빼줄 수 없느냐고 조사에 응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는 것이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완강히 거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 그날은 대상처 위치파악과 사장님을 만난 것을 만족하고 인사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달은 지난달과 비슷한 자료를 조사할 수밖에 없어 마감을 하였다.

남편과 얘기 도중 이런 대상처가 있어 힘들다고 했더니 우리 외식하러 그 집으로 가는 거 어때? 아이들도 고기를 좋아하는 터라 날 잡아 저녁 외식으로 대상처를 방문하게 되었다. 사장님은 지난 달 본 내 모습을 기억하지 못 하시는 것 같았다. 사장님 저 통계청 직원인데 지난달 방문 했었죠? 오늘 가족들과 외식하러 들렸어요.

사장님표정은 그리 좋지 않아보였다. 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우리 가족은 그날 맛있게 고기를 먹고 나왔다.

며칠 후 그 달 자료를 얻어려고 다시 방문 하였다. 나를 대하는 사장님 표정은 조금은 수그러져 있었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그달 자료를 얻어 나올 수 있었다. 다음 달 방문 때는 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다고 피로 회복제를 들고 찾아보였다. 그 후 사장님께서서는 바쁜 틈을 내 앉으라고 하시며 차도 한 잔 주시며 장사가 잘 안되어서 예민하다고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예민했던 매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서는 바빠 찾아뵙지 못해도 전화로도 응답을 해 주신다.

대상처가 고기집, 통닭집, 슈퍼, 화장품가게, 아이스크림가게, 문방구 등이라 대상처와 친분관계를 갖기엔 더 할 수 없이 좋은 것 같다. 경제활동조사나 가계조사에서는 가구를 상대로 정기적인 답례품을 배부 하여 조사에 좀 더 쉽게 응할수 있는 반면 사업체 쪽은 전혀 고마움의 표시를 전할 수 없어 아쉬운데 조사도 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대상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친분관계를 가지는 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것 같다.

어느 사업체 사장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의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하며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너무 고마워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음료수라도 사서 들고 가 인사를 나누면 도리어 고생을 한다고 음료수며 먹을 것을 내놓으실 때, 내년표본개편으로 업무분장이 새로 되어 미처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남은 조사를 다른 사람이 방문하고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걸어 말씀드리니 너무 아쉬워하시는 사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의 보람을 느낀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상처와의 친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응답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보일 때 응답자 마음은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김신영 | 부산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아! 드디어 시작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가슴부터 두근거린다.

농어가경제조사 표본개편을 맞아 사무실에서 업무분장을 하여 내가 담당하게 된 어가경제조사 일인데 이번이 나의 차례인지도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일에 부딪치게 되니 얼마나 막막하고도 두려운지...

시작이 반인데 반도 아니고 반에 반도 안하고 걱정만 태산이다. 날씨는 너무 덥고 조사구는 너무 넓고 게다가 어가는 만나기는 왜 이리도 힘이 드는지.... 이미 일은 시작이 되었고 굳은 결심으로 더운 줄도 모르고 논으로 밭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벌써 4개월에 접어들어 이제는 추위에 떨면서 표본가구를 만나기 위해 집 앞을 서성인다.

내가 맡은 신표본 어가경제조사구인 기장군 일광면의 바닷가는

어느 날은 조사구의 특성처럼 태풍으로 파도가 넘나들며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듯 덤벼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햇볕에 빛나다 못해 황금을 뿌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언제나 나를 웃음으로 반겨주며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나의 기분처럼...

조사구역도 작성하면서 가구명부 작성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 데... 지금은 표본대상가구를 방문하면서, 어떤 어가는 벌써 내 집 방문하듯이 친해지기도 하고, 어떤 어가는 나의 그림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면서 손을 내젓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항상 나를 반겨주는 사람보다는 불응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조사구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가벼울 날이 거의 없다.

어가조사구의 특성상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 가구든 표본가구가 아니든 우리는 조사구 전체를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한다. 정말로 적극적인 어촌계장님이 있는가하면, 어촌계장님조차 불응하여 설득해야하는 지역은 정말 난감하고 하늘이 무너 지는 느낌이다. 어가의 대부분이 일이 힘들고 시간이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연세가 많기 때문에 설득 과정이 쉽지가 않다.

한 가구는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 가구였는데 하루는 낮부터 술을 드시고 계시다가 나를 보자마자 정부에서 쓸데 없는 짓을 한다며 이분 저분 동네 분들을 모아 통계불신의 동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여 세금관계, 보상관계를 들먹이면서 거의 대모 수준으로 일을 벌려 나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다. 이럴 적마다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으로 그분들에게 술을 사드리면서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조건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니, 설득 아닌 설득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우리의 든든한 구원군인 어촌 계장님들, 해녀회장님, 이장님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있다. 또 문동마을의 해녀회장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나 바쁘셨다. 해녀회장님이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 분도 역시 표본어가로서 일계부를 작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은 할 수 있었으나 본인이 너무 바쁘셔서 이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불응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을 조금씩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 지금은 파농사철이기 때문에 내가 갈 때마다 마당에 파 작업을 하느라 통계의 통자도 꺼내지 못하고 나는 거의 한달을 파 다듬는 작업만하다 돌아오기가 일수였다. 처음엔 파 농사를 망칠까봐 파 다듬는 일도 못하게 하시고 잘못 다듬으면 어찌나 야단을 치시는지 눈물이 났다. 꼭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식구인양 같이 밥 먹고 말씀도 나누신다. 이제는 파 다듬는 법, 파 세척하는 법, 마늘 종자 고르는 법 등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아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이 든다.

또 이번에는 우리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통계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우리청의 방문을 권했고 마침 이웃의 다른 조사구의 해녀 회장님도 함께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시어 함께 참석을 하셨다. 참석하시어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설명을 들어 보시고 또한 여러 이장님과 기존에 알고 계시던 어촌계장님을 한자리에서 만나 보시고는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요즘에는 다른 조사구의 해녀회장님과 함께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신다.

이 조사가 중요한 조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일계부 작성을 완벽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있다. 또한, 성의 없이 일계부 기장을 해주던 다른 표본가구에서도 회장님이 중요한 조사라고 홍보를 하셔서 지금은 너무나 세심하게 작성을 해주고 계신다. 00가구는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면서 면담을 거부했는데 회장님의 설득으로 일계부 기장을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도 불응하던 그 가구는 아직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지만 통계가 왜 필요한지, 왜 자기가 표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일계부에 한자 한자 기록해주시면서 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다.

나는 한번씩 나의 조사구의 입구에서 펠릭이는 “여기는 어가경제 조사지역입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보면서 나의 조사구의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5년의 인연이 아니더라도 단 한달의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가져본다.

내가 담당하는 조사구의 표본가구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우리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생산에 온 힘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난 오늘도 햇별이 빛나는 나의 조사구를 향한다.

우리 집 가계부는 빨간 신호등



전 보 형 | 가계조사 대상가구 :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3동 |

‘딩동, 덩동’ 인터폰을 통해 낯선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세요?”, “네,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통계청 자료 조사에 협조를 좀 부탁 드리고자 들렀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설문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쌀쌀한 대접들이 두고두고 마음 한 켠에 아린 상처로 남아 있었기에 선뜻 문을 열어주었다. 수수한 옷차림과 선한 눈매가 첫눈에 사람이 좋아보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손님을 맞았다.

“일단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는 방석을 꺼내어 우선 손님을 자리에 앉히고, 서먹함을 달래려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다.

“언니 같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따뜻한 분이 계셔서 그나마 힘이 되네요.”

“별말씀을요.....”

“이 일을 하면서 세상이 참 삭막하고, 건조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다반사예요. 언니 같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조사원은 말투에서부터 불임성이 느껴졌다. 나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혹시 가계부는 쓰고 계신가요?”

“저 그게 가계부를 써야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생각처럼 잘 안되더라구요.” 조사원이 나에게 부탁을 해 온 것은 다름 아닌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다. 순간 망설였다. 평소에 가계부를 적어왔던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의 살림살이를 남에게 공개하기가 꺼림직 했던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가계부는 좀 그러네요.”

“이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어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원은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사의 목적을 전달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생활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사례품을 주겠다고 했다. 사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 집에서 살림 사는 주부로써는 꽤 입맛 당기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결혼 생활 12년이나 된 주부가 가계부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결혼 초에는 뭣도 모르고 가계부를 쓴다고 수선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 둔 기억이 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의 가계부가 한두 권은 공짜로 생긴다. 가계부가 새로 생길 때마다 새해부터는 꼭 가계부를 쓰리라 결심을 하곤 했지만 매년 실패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주부의 당연한 역할인데 그게 꼭 새해부터 여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은가. 조사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가계부를 받아들고는, 그동안 무책임했던 주부로서의 역할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살림꾼이 되어보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

그날부터 하루하루 살림살이를 적어나갔다. 지출은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만 잘 챙기면 가계부 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듯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동안의 무분별한 지출과 서툰 살림살이가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주는 몇 백원의 용돈을 쉽게 생각하고, 가계부에 기록을 하지 않기가 일쑤였다. 전화로 계좌 이체한 것은 아예 빼먹고 있다가 조사원의 귀뜸에 뒤늦게 겨우 통장을 정리해서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게 곳곳에 땀질한 첫 달의 가계부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사원에게 전달하고 나서, 전화가 걸려왔다. 몇 번의 통화와 방문으로 인해 우리는 제법 친해진 상태였다.

“언니, 애들은 학원을 전혀 안 가는가 봐요?”

“아닌데....작은 아이는 바둑학원도 가고, 둘 다 집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해요.”

“그런데 교육비가 전혀 안 적혀 있는데요.”

“어머나, 교육비를 깜빡했네요.”

사교육비가 가계의 주된 지출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계부에 교육비를 빼먹다니, 나는 정말 주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영수증 보고 적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던 것일까? 하긴 10년을 넘게 직무유기 해온 가계의 살림꾼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 마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첫 달의 가계부는 그야말로 실수로 얼룩이 졌다. 그 후로, 조사원은 늘 다정한 목소리로 잘 하고 있다는 칭찬과 함께 사례품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당연한 내 일을 하고, 받는다는 것이 어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주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 달 사용한 총 지출액이 표기된 자료를 조사원이 가져다주었다. 늘 뻔한 살림살이지만 놀랄 만한 것은 우리 집 가계부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적자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금액과 불필요한 지출 내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가계에 이렇게 큰 구멍을 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먹는 부분이었다. 나름대로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출의 40%를 넘게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지혜롭고 알뜰한 장바구니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요 몇 년 사이에 씹씹이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둘째 달에는 첫 달의 실수를 거울삼아 좀 더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어나갔다. 그렇다고 가계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월급을 최대한 잘 쪼개어서 알뜰한 소비를 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래도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출은 어쩔 수가 없었다. 가끔씩 외식을 하는 날에는 당장 그 다음날부터 지출을 줄여야 되는 형편이었다. 내가 살림을 너무 잘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이 들기도 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차리려다 보니 지출은 더없이 늘었다. 명절이라고 별다른 수입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계부를 쓰다가 괜히 억울하고 서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의 선물에 그동안의 고달픈 심정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조사원이 추석 잘 보내라는 인사와 함께 건네준 커피세트가 바로 그것이었다.

“엄마, 아까 커피 안 사와서 다시 커피 사러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 가셔도 되겠네요. 엄마한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의재야, 정말이다. 엄마는 오늘 운이 아주 좋구나!”

아들과 함께 한참을 좋아했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마침 필요했던 것을 받고 보니, 선물 그 이상의 묘한 기쁨이 있었다.

날마다 가계부를 쓰면서 정말 써야 할 때 알맞은 용도로 지출한 때는 마음이 흐뭇하다. 그러나 ‘이건 안사도 되는 것인데!’ 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했을 때는 후회가 많이 된다. 가계부에 남아있는 하루 하루의 기록들이 때로는 뿌듯함도 알게 해주고, 가끔은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한다. 특히 좋아진 것은 남편과 가계의 지출을 함께 의논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남편과의 대화가 부쩍 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루에 몇 백원씩 습관처럼 받아가서 군것질을 하던 아이들도 일주일치 용돈을 주고 관리하게 했더니, 돈을 아끼려고 애쓰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돌아가신 시 할머니를 모시고 살 때, 늘 내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예사로 생각 했던 조그마한 지출들을 조목조목 적어보니, 꽤 큰돈이었다. 할머니께서 내게 가르쳐 주었던 알뜰살뜰한 살림 솜씨는 세월이 갈수록 내 손끝에서 윤이 난다. 하지만 그 깊은 속뜻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련한 모습으로 내 앞에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당신 지난달에 용돈 외에 가져간 5만원 있어요. 이번 달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 주세요.”

“아이구, 이제는 나도 용돈기입장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사실 가계부로 인해 눈에 띄게 형편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집에는 올바른 소비문화와 아껴 쓰는 좋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잔고로 쌓여가는 중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 푼 두 푼 절약하다 보면 우리 통장에도 조금씩 쌓여가는 여유 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집 가계부가 통계청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치 내가 큰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다.

처음에는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고 후회도 했다. 우리 집 사정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조사원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제는 우리 집의 회계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진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주는 조사원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언니, 이번 달에는 가계부에 푸른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라는 조사원의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될 날도 머지않았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획성 있게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었다. 남편의 월급을 잘 관리해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도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잊고 지낸 주부의 시간을 용서받기 위해서도 가계부를 잘 활용하는 알뜰한 살림꾼으로 거듭나야겠다.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 통계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늘 환한 웃음으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예쁜 동생 000님의 앞날 에도 항상 따뜻한 햇살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 가계부의 푸른 신호등을 기다리며.....

엄마는 공부 중



공미옥 | 부산시 북구 금곡동 |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컴퓨터 스위치를 켜다. 요즘 주부들 솔직히 얼마나 컴퓨터에 능한가!! 쇼핑도 집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하고 말이다. 그런데 나는 컴퓨터와 별로 친하지 못하다. 웬지 좋아지지 않더라구!... 그런 내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통계청” 나에게는 컴퓨터를 처음하는 것만큼이나 낯선 단어였다. 이곳에 오기전까지... 물론 뉴스에서 보면 통계상 어떠했다 하는 건 들었지만...

지난겨울 우리가족은 시부모님품을 떠나 당감동에서 이곳 금곡동으로 이사왔다. 내가 17살부터 부산에 정주하고 살아 제2의 고향인 셈이다. 대부분 부산지리에 능하다는 소리지. 운전을 할 때면 내가 부산 지리를 꽤 많이 알고 있구나! 하고 실감한다. 아이 아빠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내가 금곡동은 거의 20년을 살면서 처음 와 본 곳이라면 믿을 사람 없겠지? 이런 낯선 곳에서 어떻게 이웃사람과 사귀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고심하며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 한명의 낯선 사람이 통계청에서 왔다면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의심스러웠다! 가계부도 적어야한다 하고 농협 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주시고는 가셨다. 영 내키지가 않았다.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에 살고 있는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 태도는 영 불량 스러웠다. 의심하는 눈빛, 몇 달 동안 요리조리 피하기도하고 변명하기 바쁘고, 그때 주신 상품권도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쓸수 있었다...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분이지만, 그때 그 직원분께 이제야 내가 참 심하게 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한다. 막연히 가까운 곳에서 오시겠지 했는데 많이 먼 곳에서 오시고 계셨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엔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되고 매번 찾아와 부탁하고 설명하는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 통계청에서 주신 가계부가 익숙하게 다가 왔다. 통계청 직원도 한번 만나 이야기하고 두 번 만나 이야기하고, 조금씩 편해지고 가계부도 점차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갈 때 전자 가계부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 놓으셨다. 옆집 새댁도 컴퓨터로 가계부를 쓰면 편하다고 한다. 거기다가 매달 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도 통장으로 바로바로 입금 되고 저녁마다 가계부를 어디 두었는지 찾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웬지 낯익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컴퓨터라 하면 먼저, 두려움부터 다가왔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통계청 직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입력을 하면서 보여 주셨다.

그걸 본 순간 아하!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났다. 하다보면 자연스레 컴퓨터랑 친하게 되기도 하고 자연스레 키보드 연습도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왠지 엄마의 모습이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엄마로 비춰지기도 할 것 같고... 과연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엄마 지금도 공부중이야?” 할 때는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전자가계부를 적으면서 이렇게 편하고 생활속에 정보도 얻고 이렇게 유익하게 많은 데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하는 마음이 든다. 무지가 사람을 잡는다고 아직도 통계청 직원이라면 인상쓰고 가계부를 적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웃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매번 불응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절 매고 있는 통계청 직원을 보면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면 정말 저렇게 열심히 구박(?)을 받아 가면서 까지 매번 저렇게 웃으면서 찾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나도 저런 모습이었지... 반성도하게 된다.

오늘도 11층에서 내려다본다. 올 때가 되었는데.. 이젠 멀리 있어도 반갑게 느껴지는 통계청 직원 000님의 모습이 보인다. 멀리서 여기 까지 오신다고 많이 힘드실 텐데, 쓴 커피라도 마시자고 해야겠다.



남자와 가계부

서종성 | 울산시 남구 아음동 |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던 2006년 5월 어느 날,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기구로 선정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통계청 직원의 방문인사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저희 집에서 가계부를 써주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통계청 직원과 아내의 궁합은 맞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통계청 담당자에게 눈길한번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 집은 가계부를 쓸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말라는 큰소리와 싸늘한 냉대를 받으면서 담당자는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사생활과 우리가정의 일 거수 일 투족이 노출되는 가계부를 우리가 왜 작성을 해야 하나면서 일방적으로 작성에 반대를 했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전기 철물점을 하는 관계로 모든 것을 노출했을 시 사업자의 세금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이지요.

통계청 담당자의 집요하고도 기나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미동도 하질 않아 결국은 남편인 제가 가계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가계부, 안살림은 여자가 하는 건데 하면서 상추 한 묶음, 참기름 1병, 큰 애 용돈, 아내 화장품, 모임회비 등등 시시콜콜 아내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이 적어야하나며 언성을 높이기를 몇 차례, 과연 아내가 저토록 반대하는 가계부를 내가 계속 써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요. 하루 종일 가계일 보랴 전기 공사일로 외근을 하고 가계로 돌아오는 날이면 몸은 고달프고 집에 가서 자기 전 마지막 남은 숙제인 가계부를 정리하기를 어언 수개월 아직도 아내는 가계부를 쓰려고 하지 않지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법 대답을 잘해줍니다. 통계청 직원으로부터도 꼼꼼하게 작성을 잘한다고 칭찬을 듣기도 하며 남편으로서 가계부를 작성한 계기로 인해 가정 경제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 시간까지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그러한 모습에서 국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통계조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실 통계청의 담당자님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최화숙 | 울산시 동구 전하3동 |

여름이 막 시작되던 6월초.

우리 가족은 충청도 아산에서 이 곳 울산으로 이사를 왔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실직 후 힘들었던 나에게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가자고 나에게 제의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착한 아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예쁜 우리 딸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나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울산은 친정 언니가 살고 있어서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에게 울산은 온통 낯설고 어색한 동네일뿐이었다. 이삿짐을 풀어놓고 허탈한 마음에 한동안은 짐이 정리가 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낯선 한사람의 방문이 있었다.

울산 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었다. 통계청이 어떤 곳이며 우리 집이 표본으로 정해져 조사를 하여야만 하는 이유 등등....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우리 집은 1870가구를 대표하는 가계조사가구라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통계청 가계부 기록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쓰이며 절대적 비밀보장. 한가정의 수입과 지출이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중요한 통계자료가 되어 각종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등 등등.... 기록해 볼 것을 권하는 것이었다.

요즘같이 빈번한 전화사기, 금융사기, 흔히들 하는 말 “눈뜨고 코 뺏기는 세상”이런 말 들이 신문지상에 적잖게 들리던 때라 우리 가족의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이는 것 같아 쉽게 마음이 허락질 않았지만 가계부 내용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통계청 직원에 대한 신뢰감이 들어 적어보리라고 생각했다.(사례금 이야기도 귀가 솔깃하고.....)

처음에는 방학숙제를 하듯 가계부를 적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이 익숙하지를 않아 며칠을 미루었다가 쓰다 보니 생각이 나질 않아 적지 못하고 귀찮아서 적지 않고.... 그러저럭 처음 한 달이 되어 월 마감 을 하고 지출내역을 프린터 해 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낭비가 많았다. 결혼생활 15년 동안 여러 차례 가계부를 적어야지 생각하며 몇 번은 시도 해보았지만 가계부를 매일 적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었다. 그런데 통계청 전자 가계부는 번거롭지도 않고 항목별로 분류도 잘되어 있어 찾아보기 편리하여 입력하기도 쉽게 다가왔다.

첫 달의 어설피름을 잊고 다시 마음을 잡고 매일 저녁 하루 동안의 지출내역을 남겼다. 꼼꼼히 빠짐없이 적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작은

지출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았다. 금액 작은 것이라도 이젠 지출 할 때마다 영수증을 꼭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남편도 마트에서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영수증주세요”라는 말을 잘 한다. 영수증을 풀칠하여 보관하다보니 싸게 파는 곳인줄만 알았던 대형마트가 동네 마트 보다 비싼 물건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여러 곳을 비교하여 적극적인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요령도 생기고 또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도 생겼다. 한 달을 정리하고 마감하여 지출내역을 프린터 하여 남편과 함께 많은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잡기도 하고.....

통계청 가계부 덕분에 여러 가지로 좋은 습관도 생기고 정확한 우리 가족의 씬씀이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가계부로 인하여 조금의 수입도 생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것 비록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지만 내가 적고 있는 가계부가 나라 앞날에 밝은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통계청” 별 의미 없는 기관 이었는데 가계부로 인하여 아주 친숙한 기관이 된 것 같다. 어쩌다 TV에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이란 말만 나와도 TV 앞에 서게 되는 나 자신을 볼 때....

오늘도 퇴근 시간에 남편의 손에는 아이들 간식거리와 영수증이 들려 있다. 통계청과 함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 되었다. 오늘 새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걸어본다.

‘신양호’ 마님의 단축번호 1번



권 순 화 | 어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3리 |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대명포구에서 배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신양호 안주인입니다. 제 핸드폰 저장번호 1번은 최병훈씨입니다. 이분은 제 남편도 아들도 친척도 아닌 분입니다. 이분은 부천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저와 알게 된지 5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을 누르면 이분과 언제나 통화가 되곤 합니다. 왜 이분이 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이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부가 모두 그렇듯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어부들은 사람을 참 많이 가립니다. 예전부터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금기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지금까지 배위 와서 사람들도 많이 가리고 아무한테 나 배에 들이지도 않으며, 어촌계 외에는 잘 답해주지 않습니다.

헌데 언젠가부터 『신양호』가 조사를 해주어야 한다며「어가경제 조사」라고 2~3일에 한 번씩 오셔서 기웃기웃 하시는걸 보고 진짜 짜증 많이 났습니다. 한일어업 협정 이런 것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 있었고 정부가 하는 어업정책인가 때문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는 상태인데 또 공무원이라고 조사해 달라는데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더욱이 대명포구에 『신양호』처럼 어업을 하는 배는 10척이나 되는데 왜 굳이 돈도 별로 못 버는 『신양호』만 조사하는지 제가 막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표본이 어찌구 저찌구.... 배타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도 없는데 정말 골치 아프더군요.

더욱이 배가 들어와 바쁠 때는 정말 걸리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대명포구 특성상 배가 들어오면 반짝 몇 시간 동안 배에서 잡아온 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변보러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데 이분은 키도 저와 비슷한 것이 저희 가게 앞에서 계시면 정말 거추장스러워 처음에는 혼도 내고 면박도 많이 주기도 하고, 조사 안 해줄테니 가라고 으름장과 헛 사례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신양호』배가 들어 온 뒤 정신없이 꽃게와 주꾸미를 손질하고 있으면 이분도 같이 앉아서 손질해주고, 포구 손님들에게 꽃게를 팔 때는 옆에서 박스에 얼음도 채워주고 포장도 해주는 등 제일을 도맡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조수가 아니다 보니 때로는 꽃게 집게발에 찢리기도 하고, 포장 하다가 가위로 손을 베기도 해서 꽃게 팔다가 반창고 붙여 주려면 오히려 제가 불편한 적도 많았는데, 저희『신양호』에 올 때

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시니 나중에는 슬슬 고마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정말 귀찮고 하기 싫었죠. 조사표라고 주는 것도 뭐가 그리 복잡하고 꼭 차 있는지 정말 눈이 아파서 보기도 싫더라구요. 더욱이 어부라는 것이 배에서 내리는 것 팔기도 벅차고 힘든데 언제 일일이 얼마 팔았는지 적고 있습니까? 더욱이 저희 『신양호』는 거래 자체가 도매가 많아서 외상도 많고... 하여튼 복잡하고 신경 쓰기 싫어서 어가조사는 안 해 준다고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집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옆집 『대양호』에 가서 조사하라고 떠밀었으니까요.

더욱 쓰기 싫었던 것은 저희 『신양호』는 가족간에 하는 어업이다 보니 시어머님, 남편, 시누이까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시누이 하고 사이가 별로 좋질 않거든요. 우리 시누이가 한달에 한번씩 꼭 저와 트러블을 일으켜서 말싸움을 하고나면 다음날부터 며칠씩 가게에 안 나와 저를 골탕 먹여서 그것 신경 쓰느라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가게에 나오지 않을 때면 손님들 꽃게 팔아야지, 도매업자 챙겨야지 그야말로 가게는 전쟁통 그런 난리통이 아닌데 그때마다 때마침 최병훈씨가 오셔서 꽃게도 팔아 주고 통계청 직원들 것을 몇 십kg씩 주문을 받아 오셔서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 등 아주 본격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도매로 파는 것보다 저희야 소매로 파는 것이 훨씬 좋지만 소매에서 한 번에 꽃게 또는 주꾸미를 50~100kg까지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병훈씨가 주문 받아오는 양은 진짜 웬만한 도매업자 맞먹게 주문을 받아오니 제가 조사를 안 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저도 조사표를 잘 적어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일기처럼 적어드렸습니다. 남편 술값부터 시작해서 10원 짜리 하나 나간 것부터 조업나간 것 까지 세세하게 적어드렸더니 좋아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간혹 같이 일하는 우리 시누이와 다투게 되면 우리 둘 다 최병훈씨한테 각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니 아마 그때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시누이는 월급 올려 달라고 투정부리는 건데 그럴 때마다 월급 조정하는 것도 우리 최병훈씨 담당입니다. 시누이 하소연을 듣고 저에게 얼마 올려주면 시누이가 일 잘하겠다고 한다 하고 살포시 귀뜸을 해주면 제가 또 몇 십 만원 올려주고 이러거든요.

또 작년에는『신양호』주인님께서 큰 사건을 벌이셔서 대박이 난적이 있었는데, 남편 흥인 것 같아서 제가 말 안하고 넘기려 했지만 워낙 그때일이 고마워서 말해야 되겠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부들이 겨울에는 좀 쉴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특별한 취미가 없다보니 어부들 몇몇이 보여서 내기 고스톱을 했나본데, 우리 순진한 남편이 사기 고스톱 단에 걸려서 2006년 일년 동안 배타서 번 돈 몇 천 만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안 살라고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안방에 머리 싸매고 들어 누었을 때도 최병훈씨가 제 남편 만나서 잘 타일러 주고 남편에게 당신이 잘못 했으니 집에 가서 싹싹 빌고 들어가라고 코치하고, 저에게는 사기 도박단에 걸린 건데 마님이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일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이지만 부부가 단돈 몇 천 만원 때문에 갈라지면 서로 후회한다 등등 ... 그러면서 저를 설득해서 그이후로 제가 지금껏

『신양호』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훈씨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 고스톱 때문에 이혼했겠지요.

더욱이 얼마 전에는 대명포구 입구 저희 땅에다 김포시청에서 대명포구 안내 조형물을 땅주인인 저희 집 허락도 없이 떡! 하니 세워서, 어디다 민원을 내야할지 속을 끓이고 전전공공하고 있을 때, 최병훈씨가 생각나서 단축번호 1번 누르고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뺨을 이럴 때 사용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배를 타느라 정신없는데 우리 집 가족사 챙기고 민원까지 해결해 줘 최병훈씨를 보면 참 원래 착한사람인지! 조사 때문에 그런 건지!! 헛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답 해주는 조사가 통계조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최병훈씨를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래 9월 한달만해도 꽃게 잡이 철이었는데 약 삼백만원 정도 부천출장소에서 팔아줘서 뭐라고 고마워해야 할지... 더욱이 출장소에서는 외상없이 현찰 거래니 『신양호』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감사하지요. 물론 제가 꽃게 1kg 주문하면 1.5 또는 2kg씩 넣어 주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때만 되면 최병훈씨 고향인 안동에서 가져다주시는 안동소주도 남편이 너무 좋아합니다. 요번 추석 때도 안동소주 때문에 통계청 직원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내년부터는 조사를 안 한다고 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운지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물론 김포쪽으로 조사하러 들어 오실 때 『신양호』에 꼭 들른다고 약속하셨지만, 『신양호』와 최병훈씨를 이어주는 끈이 없어진 것 같아 무척 서운합니다.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지? 윗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 보네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던 선물도 꽤 쓸쓸했는데! 모든 것이 아쉬운 것 투성입니다. 시누이가 가끔 선물 때문에 토라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최병훈씨가 맛난 것도 사주며 달래 준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끝나는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어가경제 조사표도 잘 써주었을 텐데... 후회되네요.

어찌되었던 최병훈씨 김포나 강화 가실 때 『신양호』에 꼭 들러 주시고 앞으로 『신양호』가을 꽃게, 겨울 주꾸미 많이 팔아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통계세상 속의 삶의 현장



윤 용 현 |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바쁜 하루일과가 지난다. 열심히 한다고 했건만……. 오늘 결과는 부족함에 목마르다.

“통계조사 19년”, “베테랑”, 모두가 허울 좋은 소리인 것만 같다. 자꾸 초라해져만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감마저도 상실된 것 같아 자꾸 허기가 진다. 5년 전에는 이보다 더 못한 환경이었는데도 잘 버텨왔었는데 …….

5년 전 신표본 조사구 요도를 들고 가구명부 작성하러 어느 영구 임대아파트를 방문했었다. 12평의 생활공간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의 삶은 보기에다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었다. “소년가장 가구”, “할머니 혼자서 어렵게 지내는 가구”, “노약자와 병든 환자 가구”, “비행청소년들로 모여 사는 가구”, “퇴근 후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가구”, “학교를 중퇴하고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미성년자 가구”, 통계조사의 설득보다는 이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

날 사람 취급 해주는 가구는 이 가구뿐이었으며, 그리고 이 가구는 될 수도 있겠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10가구를 돌고 나니, 늦은 8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니 오전부터 지금까지 요기를 하지 못했다. 도시지만 시골 같은 곳이라 식당조차도 없어서 그냥 지나쳤더니만, 갑자기 허기가 밀려들어 온다. 동네 어귀의 구멍 가게에 들어서서 우유로 요기를 달라고 마을 통장을 찾아 나섰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며 반기는 통장에게 오늘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 했더니 갑자기 명부를 보자고 하신다. 명부를 본 통장 왈, 언제 부턴가 이 마을의 정서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통장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단다. 내일 한번 같이 다녀 보자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통장 집을 방문한 나는 그만 아연실색, 그저 놀라움 자체 그 것 뿐이었다. 통장이 어제 명부를 본 기억이 있어 오전 길을 가다 마주친 가구에게 통계조사 협조를 부탁 했더니, 그 가구 왈 통장 당신이 협조해주면 되겠구먼! 통계청 직원 오면 통장이 협조 해 준다고 했으니 통장 집으로 보내겠단다. 통장도 이내 포기를 하고 나 농사일 바쁘니 일하러 가야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다.

이것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격이니,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다시 한 가구씩 방문을 시작했다.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감감 무소식인 가구도 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설명할 기회조차도 없다. 마지막 10번째 가구까지 돌아오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10번째 가구주와 같이 구멍가게로 들어왔다. 10번째 가구주가 음료수나 한 잔하고 가라고 해서, 검사, 검사 구멍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막걸리 사발과 캔을 마주하고 그렇게 시작했다. 어르신은 사실 한글을 몰라서 그렇다고 본인의 심정을 털어 놓았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지만 어르신은 통계조사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가구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누구네 집이냐고 물어 본다. 대충 누구집이라고 들어본 어르신은 누구네 집은 젊은 아들이 있으니 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누구네 집은 막걸리를 아주 좋아하니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찾아가 보란다.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못 쓰겠다. 정신도 없으려니와 한글도 모르니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퇴근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구를 방문하기 시작 했다. 10번째 가구의 어르신이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막걸리를 구멍가게에서 사들고 간 나는, 막무가내로 약주 한 병 들고 왔으니 한번 뵙거나 하자고 소릴 지르기 시작했다. 그 서슬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막걸리 탓인지 모르지만 문이 열렸다.

“나 술 안 먹는데…….”

“술 안 드세요?”

“그럼 집에 오시는 손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목소리가 커진 나의 소리에 누가 싸우려 드는가 하고 젊은 아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때다 싶어 젊은 아들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나는 제발 부탁이니 부모님 좀 설득 해달라고, 안 써줘도 좋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니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만 했다. 분명 남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만 같다. 젊은 아들은 자기 아버님을 한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번 설득 해 볼 테니 내일 한 번 더 방문해 보고, 내일도 아니면 포기하란다. 이 만큼도 큰 진전이라 생각한 나는 내일 뵙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다른 가구를 찾아 갔다. 역시 한쪽 손에는 막걸리를 움켜쥐고, 막걸리를 든 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대화 창구가 열린 그 가구는 누구네 집에서 써 준다는 가구가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왔다. 아직 한가구도 없다는 내 얘기에, 누구든 한 가구라도 쓰면 같이 쓰겠다는 답변이다. 꼭 그 약속 지키라고 신신 당부에 당부를 하고, 다음 가구를 방문했지만 나머지 가구는 막걸리 효과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들이 설득해 보겠다고던 그 가구를 방문했다. 아저씨는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가 나오시면서 자기가 한번 써 보겠다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대 여섯 번은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가구에 누가 쓴다고 했으니 약속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으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표본대체를 신청했다. 그래 마냥 설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체를 해서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대체된 표본농기는 그나마 쉽게 써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 이젠 됐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지만 문제는 또다시 시작 되었다. 다섯 농가의 표본가구가 정해지고 일계부가 배부되었다.

일계부를 배부하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또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기입지도를 위해 출장을 갔던 그 어느 날, 누구네 집에서 쓰면 써준다던 그 어르신, 날 보더니만, 허~어 이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 다른 집을 찾아보란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만, 서울에 사는 동생이 사업상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단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은 죽히 걸린다는 소리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어쩌나 하면서 일계부와 가방을 가지고 나온다. 내일 모래 서울로 출발한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계부를 들고 나온 나는 다음 농가에 발을 내밀었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라는 내 목소리에 안쪽에서 아주머니가 일계부와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아저씨 잘 오셨네요.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남편이 길길이 뛰고 난리란다. 불태우려고 하는 것 간신히 말렸단다. 그러곤 이번 주 내로 해결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단다. 남편 분 한번 뵙자고 했더니 고갤 흔들며, 그랬다간 오늘저녁 큰 싸움 난단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서 아저씨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라는 표현에, 남편분 핸드폰 번호 좀 주시라고 했더니만, 오늘 저녁 부부싸움 시킬 일 있느냐며, 큰소리로 나무라는 소리에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통장을 만나 남편분의 핸드폰 번호를 얻었다. 전화기 저쪽 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반응이 역력하다. 그러더니만 내년

부터는 농사도 짓지 않고 임대로 내놓으려고 한단다. 거짓말이 아니니 통장에게 물어보란다. 통장에게 물어보니 이번 달부터 남편이 출근하게 되어, 논을 임대 놓으려고 한단다. 그렇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닌가? 대체하는 것이 나올 성 싶다.

그 다음 농가, 난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 이거 다 거부되는 것 아닌가 하고, 오늘 일진이 사나운 것 같아, 그만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나 웬걸 핸드폰에 문자가 떠억 하니 들어왔다. 젊은 아들이 설득했던 그 가구였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허참! 이거 보통일이 아니다 쉽다. 퇴근 후, 핸드폰 문자를 찾아 다시 찾아갔다. 도착하자마자 대뜸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좀 달라고 부탁했다. 밥을 차려주는 아주머니 곁에 아저씨가 앉아서 미안하다면서 일계부를 내 발밑으로 밀어다 주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으니 내심 아저씨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 밥상을 물린 후 왜 그런지 얘기나 들어보자고 했다. 아저씨 일계부 예시 내용을 보니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기재되는 것 같아 그것이 싫단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시 또 물었더니 이 아저씨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하는 표정이다. 난 다시 정중한 부탁을 드리고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해 드렸다. 그리고 한권의 일계부가 미래에 우리농촌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설명 했다. 아저씨 곁에서 듣고 있던 아주머니 본인이 기록하시겠단다. 한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겠냐고 하시는 모습이 천상의 천사와 비길 것인가? 다행히 한 농가를 해결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힘든 하루였다.

“그래 편히 가자.” 다시 대체 신청을 했다.

오늘 아침 「오늘의 운세란」에 눈이 고정 되었다. 하도 안 되니 오늘 내 운세가 어쩔 것인지 하고 들여다본 나는 괜히 들여다 보았음을 후회했다. ‘오늘 동분서주하지만, 실속이 없으니 내근업무에나 충실 하라는 운세란’ 이었다. 운세는 운세일 뿐 운세풀이를 뒤로하고 대체된 가구를 방문한 나는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한 가구는 OO시멘트 대표이사 집으로, 부인이 나오더니 조용한 어투로 안 된단다. 아쉬울 것 없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귀찮은 일을 행하느냐고 하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다. 다른 가구를 방문했다. 2층에 세 들어 사는 가구가 해당 되었다. 집주인 아저씨가 쫓아 와서, 어디서 내 얘길 들었는지 절대 안 된단다. 만약 쓰게 되면 알아서 하란다. “나 원 참!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다.” 다시 물려서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세 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발으로 일을 나가고 있었다. 이때다 싶어 막걸리를 한 병은 멋쩍어서 두병 사들고 발으로 찾아 갔다. 아주머니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씨 주시겠다. 흡족한 마음으로, 그래 가족사항을 물어보니 큰아들과 막내아들 셋이 살다가 막내아들이 지난달 말에 방을 얻어 나가고, 큰아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면서 집에 안 들어 온지가 달포가 넘었다.

“하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오늘 운세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다. 다시 대체 신청을 했다. 너무 힘든 하루 일과가 지난다. 내일은 또 어떤 가구로 대체되어져 올지 궁금해지면서 이젠 오기가 발동되어 진다. 그리곤 TV프로그램 속의 삶의 현장이 생각난다.

프로그램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꾸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내 듯,
통계현장도 자꾸만 어려워져만 가는 것이 TV프로그램 속의 삶의
현장 같다.

내일 난 또 다시 통계세상 속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는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며



박미경 |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순천출장소 |

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내가 정성을 다한만큼 충분한 자료가 나온다는 느끼며 신표본 설득작업에 나섰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총조사등으로 많은 홍보가 있어서 쉽게 통계청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가구가 있는 반면에 불신으로 문도 열어 주지 않은 어가가 있었다. 그중 단출한 노인부부만 살고 있어서 여느 시골 어르신으로 생각을 하고 나섰지만 웬걸 1호부터 막힌다. 읍사무소나 어촌계장님이 계신 마을이면 도움을 요청 할수있지만 읍사무소에서 자가용으로도 30분정도 걸리는 돌산 섬 아주 끝마을이어서 여의치가 없었다.

첫대면은 오후3시가 되어 부부가 수산물 판매를 마치며 점심도 못먹고 일없다며, 본인은 남의 도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하시며 말도 못 꺼내게 손사래를 치셨다. 다음날 아침일찍 유선으로 방문 조사를 알리며 재차 만나 뵙기를 요청했으나 필요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방문을 하였으나 다행히

그물작업하면서 드실 도시락을 싸고 계셨다. 하지만 몇 마디 못꺼내고 그만가라고 하시는 싸늘한 어머니의 눈초리가 웬지 이상했다. 혹시 아버님을 만나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후 늦게 다시 방문을 했지만 어머니는 계셨지만 아버님은 안계셔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아버님을 기다렸다. 3시간정도 마당에서 기다리던 우리의 지친모습을 보시곤 안되보였는지 어머니가 나오셔서 도대체 어떤건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하셨다.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간 답례품을 내밀며 내가 알고 있는 조사목적과 본인의 이익을 설명하니 약간의 마음이 움직이셨나보다. 하지만 그뒤에 들려오는 말은 본인은 눈시력을 잃어 작은글은 보지도 못하고 못쓴다는 것이었다. 서울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가면 영원히 앓을 볼수없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오전에 싸늘한 눈빛이 다른 뜻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하며 눈물이 주루룩 흘렸다. 정작 본인은 눈이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단절한채 어업활동 외에는 대문밖 출입을 잘 안하신다고 하시며 집 옆 가정에서 갓 김치를 담아 판매하는 곳이 있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셨지만 성격도 내성적이고 본인이 병을 얻었으니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다고 하셨다. 너무나 상심해 있는 어머니께 큰병원에서 원인도 모른다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시력이 안 나빠지기를 기도하세요”라는 말 뿐 서로가 바라보면서 잠시 침울해 있었다. “암 그래야지” 하시며 말 끝에 이왕 기다렸으니 30분 정도 기다리면 밭에서 오실거라고

하시며 건강이 안 좋은 본인을 대신해서 텃밭을 경작하니 바빠서 안될거라시며 그래도 먼곳까지 왔으니 기다렸다가 이야기라도 꺼내보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건강 걱정과 자녀와 손자들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저만치 옥수수바구니를 들고 밭에서 오시는 아버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다. 방문 목적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본인은 어업수입이 너무작아서 해당이 안될것 같다며 신세한탄을 하셨다.

“정부에서 못사는 어촌에 보조좀 해주세요”나 죽겠소 하시며 2년전 여수 남면 앞바다 컨테이너박스 바닷속 추락으로 인해 새우조망 어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시다며 경제적 지원을 달라고 하셨다. 여기서 놓치지않고 남면 앞바다 보상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를 해보았다 남면 앞바다 보상을 받으려면 5년치 수산물 판매한 장부가 있어야 하지만 수협과 일반상회에 내놓은 판매장을 모두 그때 그때 없애버려서 보험회사 청구시 서류가 많이 미비하여 만약에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어업활동 4년간수입 근거서류가 다른사람보다 없기 때문에 아주 작게 나올거라고 보험회사측에서 통보가 와서 기대도 안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님은 지난날을 원망하며 이런일이 있을 줄 알았으며 무엇이든지 근거를 남겨 놓았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다.

나는 1년전 새우조망어민들이 보상건 문제로 연간수입 첨부할 서류가 없어 발만동동구르고 있을때 통계청 일계부를 써주는 어가가 있어 4년치의 판매기록을 수입과 어종별로 1년씩 나누어서 어가에 공문발송해주었다고 하니 아버님이 깜짝놀라는 눈치였다. 일계부를 쓰게 되면 1년의 총어업수입과 지출을 알게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덧붙여 설명을 하니 부부간에 상의를 하여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이틀이 지난후 연락이 왔다. 글씨가 잘 안보이는 어머니를 설득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다 한다. 눈이 잘 안보여서 식구 아닌 다른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것이 부담스러웠나보다 아버님은 본인이 기록을 할테니 어머니에게 모든 물품을 구입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붙여놓기만 하면 수입과 판매기록은 아버님이 하시기로 결정을 했으니 많이 가르쳐달라하시며 열심히 적어보시겠다고 하시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셨다.

아버님은 그동안에는 모든 어업 수입지출을 주먹 구구식으로 해왔으나 매달 수입지출을 자세히 적어주는 대신에 매달 일계부를 한 권 보관하고 싶다하여 달이 끝남과 동시에 일계부를 복사하여 드리기로 약속하며 신표본 10월 가계부를 배부하게 되었다. 신표본을 한여름날 요도작성과 설득에 한없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지만 좀 더 진실과 정성으로 다가가면 또다른 만남은 우리에게 용기와 쉽게 좌절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을 알게되었다.



토성리의 전투

권연경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포함출장소

2002년 표본개편 때 임시조사원으로 처음 통계청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가 생각이 난다. 내가 맡은 조사구는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로 하루에 마을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밖에 들어오지 않는 산골마을이었다.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조사구를 인수받으러 갔을 때 ‘혹시나 다음에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크게 눈을 뜨고 도로의 표시판, 기억에 남는 건물, 입구를 수첩에 메모하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표본 농가에 도착했다.

“아버님, 이번에 3개월 동안 여기를 담당할 직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었다. 표본가구 마다의 가구의 특성, 조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등에 대해서 프린트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이 내가 통계청에 대해서 느낀 첫인상이었다. 역시 통계청 직원은 친절하고 예의바르구나!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처음 이미지가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세월이 흘러 2007년 이번에 표본개편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려고 한다. 농가경제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다. 구표본은 표본농가가 정해지고 조사구역도, 표본명부가 작성된 후에 원부사항을 조금씩 검토하고 추가 하면서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두 집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불응하는 가구는 없었고, 다만 일계부 내용이 부실한 게 많아 걱정이었다.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외면하고, 아파서 못 적는다고 이번 달만 적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자주 얼굴을 익히면서 만남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연세 드신 분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가구에는 병에 좋은 음식과 운동요법, 건강관리 요령 등을 인터넷을 찾거나 관련 서적을 탐독하여 다음에 방문하면 이야기하거나 정리하여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의료보험료를 내는 가구에는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어 의료보험혜택이 가도록 도와드려 차츰 가까워 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그러기를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거부감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번에 신표본은 처음으로 조사구역도, 가구명부, 표본명부를 작성하고 표본농가를 설득해야했다. 한참 더운 8월초에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여름은 왜 그리도 더운지... 경주시 황남동과 포항시 신평면 냉수리가 신표본 조사구로 내려왔다. 냉수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고 경주시 황남동은 2종 겸업지구로 농촌이라기보다는 시내에 가까웠다. 한여름이라지만 집집마다 꼭꼭 잠긴 문틈으로

벨을 눌러도 아무 기척이 없고,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다보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름도 모르는 게 다반사였다. 며칠을 다니다가 거의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 조사구가 철거예정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2007년 연말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늦어도 2010년까지는 철거가 마무리된다는 소식이었다. 조사구의 반이 철거되면 농가수가 절반이상 감소되어 조사구를 대체해야했다. 아뿔사! 진작에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시작 할걸... 다른 표본이 내려왔다. 포항시 신광면 토성리 2종 겸업지구로 면사무소가 있는 동네였다. 더워도 어찌나... 다시 시작해야지...

열심히 조사구역도, 가구일람표, 표본명부를 작성해나갔다. 토성리도 시골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읍내 같았다. 5일마다 시골장이 서고, 초등학교, 중학교, 간이주점, 이 조사구는 하루에 버스가 4번 밖에 다니지 않고 택시 승강장도 눈에 띄었다. 시내도 가깝고 직장 다니는 가구도 많고, 표본가구가 내려오고 표본가구 설득이 시작되었다. 표본 개편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통계청에 대해서, 농가경제의 조사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일계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많아 자꾸 잊어버려 안 된다, 눈이 나빠 글씨를 못 쓴다, 글을 모른다, 귀찮아서 못한다, 정부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며 대놓고 1시간이나 연설을 하고선 절대 못한다. 특히 토성리에서는 한 가구도 써준다는 집이 없었다. 앞이 캄캄하였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는 식으로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전쟁터에

입하는 병사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였다. 처음에는 5년 동안 쓴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

마음 좋아 보이는 2호집 아버님께서는 연말까지만 쓰는 대로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절대 부담은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 몇 달 동안 얼굴을 익히면 아마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일제부를 던져놓고 부리나케 달려 나왔다. 3호집 이장님은 옆자리의 직원과 너무나 잘 아는 사이로 직원에게 부탁하여 전화로 안부를 묻고 부탁을 드렸다. 다음에 꼭 같이 방문하겠다는 인사와 함께,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고 바빠서 못 써준다는 과수 농가가 있었다. 찰거머리 작전으로 열심히 과수원으로 집으로 쫓아 다녔다. 끈질기게 다니다 보면 측은하여 써 줄 것만 같아서... 그런데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조사구 옆에 학교 운동장이 있다. 만나지 못해서 기다린다고,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왔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나니 내 신세가 점점 서러웠다. 오늘까지 대체농가 신청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이란 이유로 사유를 올리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신표본 가구 설득을 하면서 구표본 가구설득 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스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구표본은 표본 농가가 설득된 후에 조사구 인수를 받았다.

가을건이에 바쁜 10월에 표본개편이 시작되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밤늦게까지 설득하러 다니느라 입술이 갈라지고 부르터 붉은 딱지가 입술 가득한 직원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숨만 나왔다. 이번에 신표본을 맡게 되면 구표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을 멋지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표본가구 선정부터 너무 힘이 들었다. 다음날 소장님과 팀장님께서 설득이 잘되지 않는 조사구에 함께 나가신다고 했다. 어젯밤에도 표본 선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한결 여유로워졌다. 아침 조회를 끝내고 소장님, 팀장님, 옆자리의 직원이랑 토성리로 출발(옆 자리의 직원은 토성리가 고향임)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였다. 공직에도 계셨던 4호 농가 그 깐깐한 아버님 일계부 얘기 꺼내기도 전에 못 쓰신다고 문도 열어 주지 않으시더니 직원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써주신다고 하셨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인맥이 중요하다는걸 다시 한 번 느꼈다. 나이 많고 기억력 없어(사실은 이혼한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집안 복잡) 몇 번 찾아가도 안 된다고 하던 5호 아버님, 소장님과 함께 5호 아버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경로당으로 찾아갔다. 인사를 드리고 표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는 기억력이 없다며 절대 못 쓰신다고 하시더니, 우리 소장님과 같은 성에 같은 파에 아니 몇 대조까지! 말씀 잘하시는 소장님 덕에 기꺼이 일계부를 써주신단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쁘던지 이렇게 하여 토성리의 표본농가 선정은 끝이 났다. 이번에 표본가구를 선정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려고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표본가구가 선정되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일계부를 쓰게 할 수는 없을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때에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드라마처럼 만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농가표본개편 때에도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거부감 없이 표본개편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에 표본가구를 선정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소장님, 팀장님, 직원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어 무사히 표본농가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열심히 조사하여 충실한 일계부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농가경제조사 신표본조사 실패담



오 정 업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인동출장소 |

농가경제조사를 한지도 오래됐지만 이번처럼 가구선정하기가 힘든 경우는 처음이다.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지역에 5가구를 선정해야 하는데 물 맑고 산 좋은 곳이라 가구 설득도 순탄할 것 같은 좋은 예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번 농가경제조사 표본가구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나이 많은 분이 선정 돼서 표본가구 선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표본가구 선정을 하기 위해 첫 번째 집을 방문했다. 첫 번째 집은 가구주 나이가 88세로 귀가 잘 안 들려 큰소리로 이야기해야 겨우 들릴 정도고, 처는 관절염으로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보였다.

두 번째 집은 나이가 58세인데 이 집은 아저씨가 정신이상자라서 조사하기 어려워 세 번째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세 번째 집은 나이가 77세 노인가구로 통계조사에 응해준다고 해

표본가구로 선정을 하고 보고를 했다. 가구주가 일계부를 손수 기장할 능력이 없어 내가 직접 면담을 하고 기장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여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일일이 수입, 지출, 농업일 등을 물어보고 기장을 시작했다. 일주일 지나서 인가 어르신이 갑자기 일계부를 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손수 기장할 능력은 안되지만 응답은 잘해주셔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르신, 잘하시다가 왜 갑자기 못한다고 하세요?”

“다른 집은 다 안하는데, 나이도 많고 농사도 없는데 왜 하필 우리 집이로?”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 통계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가 통계조사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젊은 사람도 있는데 나이 많고, 병도 있는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한다면서 일계부를 바닥에 던졌다. 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통계조사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어쩔 수 없이 웃음을 보이며,

“어르신,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농가를 나섰다. 이 사실을 소장님과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다음날 팀장님과 함께 다시 방문하였다.

“이 사람 또 왔네. 안하다면 안하지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노?” 하고 화를 내시며 문이 꺼져라 닫으시며 들어가셨다. 그래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팀장님이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우리 나라의 통계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였다. 어르신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팀장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더니 수궁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주 와서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돈 쓰신데는 없어요? 오늘 뭐 판 거 없어요? 일일이 물어보니... 내 칠십 평생 이런 조사는 처음이다. 참 별 거 다 조사한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농사란 일 년 짓는 일이라 그날그날 일어나는 일을 적어야만 정확한 조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럼 알았다. 일단 하는데 까지 해보자” 면서 승낙을 하였고, 설득을 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을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안도감도 잠시,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며칠 뒤 다시 조사구를 방문해 조사를 하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목소리의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여기 예안면 인계리 파출소입니다. 오OO씨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그 마을에 도둑이 들어 돈과 패물이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 왔어요. 인계리 OOO씨 댁에 간접 있죠?”

“예, 제가 어제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OO씨가 다녀간 후 도둑이 들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젊은 남자가 다녀간 뒤 물건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파출소로 나오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인계파출소로 갔다.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정 설명을 했다.

평생 처음 조서라는 걸 쓰고 '용의자 혐의 없음'으로 판명을 받고 파출소 문을 나섰다. '내가 그렇게 도둑처럼 생겼나? 짧지 않은 통계인생에서 이런 일도 있다니...'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파출소를 나온 뒤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 어르신은 당신이 온 뒤로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일계부를 다시 가지고 가라고, 일계부 때문에 병도 더 심해진 것 같으니 못하겠다고 하셨다. 그래도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볼 생각으로 이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꼭 협조를 부탁드렸지만 '정승도 지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이지' 하면서 못하시겠다고 하셨다. 도둑누명까지 쓰면서 설득했는데 포기하기 아까웠지만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바쁘고 힘든 세상, 통계조사도 점점 힘들어짐을 새삼 느낀다. 처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희망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번이 꼭 마지막 대체보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득에 실패한 동료들에게 나의 실패담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3년째 통계청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유애경 [가계조사대상가구: 대구시 북구 관음동]

가계부... 흔히들 그러죠? 재테크의 기본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다. 결혼한 지 15년... 누구나 가계부를 몇 번이고 쓰다말고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은행에서 판촉물로 주거나 잡지를 구입하면 부록으로 받아 연초만 되면 새로운 각오로 올해는 꾸준히 써봐야지 하면서 썼던 경험이 떠오른다. 하지만 늘 3, 4월만 되면 시들해지고 늘 고정적인 수입에 지출만 늘어나는 것에 짜증나기도 하고, '가계부를 쓴다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역시 내겐 무리야' 하며 쓰다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매일 지출 내역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귀찮았고 며칠 동안 안 쓰고 미루다 대충 쓰기도 했다. 그러다 바쁜 생활 속에서 가계부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즈음에,

“딩동, 통계청입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가계부를 쓴다하니 생소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금방 열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따금 방문하는 통계청 담당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신뢰가 생겼고 매달 주는 요긴한 선물 때문에라도 성의껏 나름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생긴 습관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하루 지출한 걸 기억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영수증을 모으다 보니 가계부 작성이 훨씬 수월해졌다. 하지만 영수증을 가계부에 붙이는 일도 예삿일이 아니었다.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기록하고 생각나는 것만 대충 기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3대 거짓 중의 하나가 통계청의 통계자료라는 보도를 보고 웃으면서도 그 사실에 나 또한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 괜히 몰래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쓴 대충 가계부 또한 대충통계자료가 되었구나.' 싶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나 또한 우리나라의 통계에 일조를 한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나름 성실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습관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매일 기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캘린더에 영수증 없는 지출내역을 메모해 두기도 하고, 사소한 경우라도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가 전자가계부를 쓰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다. 매월 고정적인 지출은 반복지출로 설정해 두었다가 매월 말에 적용시키면 편리하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가끔씩 10년 전 나 혼자 나름대로 쓰던 가계부를 생각하면 그때가

그립기도 하다. 그 날의 지출을 주욱 쓰다가 지출이 유난히 적은 날은 뿌듯해서 내 자신을 칭찬하기도 했고, 가계부 책자에 기록된 오늘의 요리 코너를 보고 시장 열심히 이것저것 봐서 했는데 왕초보 요리에 맛없어 돈만 버렸다 싶어 안달했던 씁쓸한 기억, 신랑과 싸운 날은 이러쿵 저러쿵 욱도 써가면서 그 날의 일기를 쓰기도 하였다. 차가 없던 시절 아이 둘을 데리고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타고 친정 다녀와 저녁에 뿌듯한 마음으로 가계부 쓰면서 '만원의 행복'에 웃음 짓기도 하였다. 지금 각자 방에 들어가 숙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새삼 그 때가 그리워집니다. 아니, 이야기가 탄 데로 새버렸네요.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절약이라는 것을 감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생활비가 어디서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그날의 지출 중 불필요한 부분에 반성도 할 수 있고 수입과 비교하여 한 달의 지출이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나 파악해서 다음 달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계획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계부가 수입을 창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가정의 수입에 맞게 적절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약하는 제일 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들 말하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뼈뺏하게 10년을 살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의 씬씬이는 어느덧 커져갔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도 있고 40대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간혹 들곤 했습니다.

이런 즈음에 통계청 가계부를 쓰게 되면서 수입에 대한 소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고, 가계부를 쓰면서 조금의 적금을 넣었는데 얼마 전 은행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썄 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적금을 시작한 지가 2005년 3월이던데 짐작하건데 가계부를 쓰게 된 시기와 엇비슷할 것 같네요.

주부라면 당연히 써야 할 가계부... 가계부를 쓴 지 3년째... 처음에는 어떻게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았지만 지금은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가계부는 씹씹이가 큰 나에게 충동구매에 대해 자제하는 습관도 만들어 주었고 때로는 사전에 지출에 대해 계획해보는 올바른 소비생활도 일깨워 주었으니, 우리의 가계에 여러모로 도움을 선사한 가계부.... 앞으로 우리의 가계가 늘어나듯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가계부와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신 통계청에 감사드리며, 담당자 홍정란씨!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늘 바빠서 차 한 번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친구 같고 너무 편했는데... 명절에는 택배로 미역까지 선물로 보내주시고, 늘 받기만 한 것 같네요. 너무 고맙구요, 아마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계 불응 설득사례



이 성 희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제가 비록 평발이지만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예비조사로 가계조사지역에 가구설득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가구는 통장님 집이라 힘들지 않게 설득에 성공하고, 두 번째 집 통장님의 2층 세든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가구 역시 직접 자신이 가계부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안심을 하고 다른 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금 2층은 전세 얼마에 사십니까?” 하고 묻는 순간 표정이 변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님(주인집)보다 연세가 많은데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실제로 가계부를 가져갔는데 냉담한 분위기로 자기는 가계부를 쓸 수 없고, 자신의 사는 모습을 남이 보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문을 꽂아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무시(無視)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만, 지난달에는 그분이 저에게 무시(無視)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사구에 갈 때마다 답례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 집 앞을 지나는데 대문 앞에서 종량제봉투를 내놓으시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구경북통계청에서 조사원 친절도 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며 '조사원은 친절하나 자신이 불친절하다.' 라고 하셨다며, 통계청에서 그런 전화도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없애 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냉담한 반응은 여전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조사구 실사를 지도원과 함께 갔을 때 그 닥이 이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장만해서 조사구내 뒷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주인이 따로 살고 전세로 계신 세입자만 있는 가구로 2층이 비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집들이에 꼭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저는 휴지를 사들고 가구를 방문하니 전과 달리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가계부 한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달 1년 7개월 만에 가계부한권을 들고는 기쁜 마음에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만 하며 사는 인생과, 주어진 일에 맞는 자세와 태도를 취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인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삶인지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win-win 작전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 가계부 한권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산물, 통계



최은주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내가 통계청에 들어온 지 만15년, 횃수로 16년째,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나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세월이다.

1992년 2월 대학졸업과 함께 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곳이 통계청 경북통계사무소 기능직 10등급으로 임용 1993년 7월 조사요원에 재임용되어 1995년 4월 구미북무위탁지로 전보, 1996년 7월 경북통계사무소로 전보되는 동안 가구부문조사를 하다가 2005년 4월 상주출장소로 전보되면서 2년간 농가부문조사를 하였고 2007년 4월 연고지인 대구경북지방청으로 전보, 다시 가구부문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경상조사업무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3조사구, 가계조사 2조사구, 양곡조사 2조사구, 집세조사 1조사구, 소비전망조사 1조사구를 맡고 있으며 이외의 경제활동부가조사와 연간특별조사(농기본통계조사, 사업체양곡소비량조사, 사교육비실태조사, 가계신용조사 등) 및 기타 총괄업무도 맡고 있다.

내가 처음 조사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나는 늘 과장님과 돌이서 사무실을 지키는데 햇살 좋은 봄날이나 청명하기 그지없는 가을날 조사하러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한없이 부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날 맘껏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에 별정직 특채소식을 접한 나는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무더운 여름날과 살을 에는 추운 겨울날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조사현장의 한 단면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 조사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맡은 곳은 대구시내 중심가 주택가인 동인동이다. 떨리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선배의 뒤를 따라간 곳은 대구의 중심가답게 마당 넓은 정원에 잔디가 있고 생활의 여유가 묻어나는 상류층 동네였다. 첫 가구부터 한 집 한 집 벨을 눌렀으나 거의 부재중이라 몇 사람 만나지 못하고 조사구 위치를 익히는데 만족하고 돌아서야 했다. 며칠 후, 혼자 방문하여 처음 벨을 누른 집은 어느 회사의 회장님 덕이었다.

부부만 거주하는 집으로 조금 불응하는 집이라 했다. 솔직히 벨을 누르는 것부터 겁이 났다. 불응이라는 말은 들었으니 그냥 지나칠 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인사는 해야겠기에 낸 용기였다.

- 덩동! -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인구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저번에 분명히 안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또 왔어요? 응?
저번에는 남자, 여자가 3~4명 떼거지로 와서는 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다고 나는 안한다고 했는데 왜 또 와서는 귀찮게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다시는 오지 마세요!”

- 탕! -

대문을 열고 나오나 싶었는데 내가 말 할 틈도 없이 할 말만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다. 황망하니 멍하기만 하였다.
그렇게 그냥 퍼붓고 돌아서는 아주머니께 더 이상 벨을 눌러 조사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돌아섰다. 다음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나의
조사원 생활은 평탄치 않게 시작되었다.

다음 달, 또 그 가구의 벨을 눌러야 하는 내 맘은 무겁기 그지
없었다. ‘아! 오늘은 또 어떡하지? 조사는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있나... 그냥 부딪혀봐야지. 지난 달 왔던 통계청 직원이라고 말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잠시 말이 없으시던 아주머니께서
그냥 거기서 물어 보라신다. 그렇게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은 대문의
인터폰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가계조사 대상가구였으나 가계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돌아서는 마음이 괜스레 서글펐다. 그래도
공무원인데....

또 다음 달,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또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번하고 똑 같은데 뭐 하러 왔어요.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가세요.”

또 그 다음달,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

잠시 아무 대답이 없더니 -찰각!- 하며 대문이 열렸다. 굳게 닫혀 열리지 않을 듯하던 대문이 열린 것이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현관은 열리지 않고 거실 창문 방충망을 사이로 아주머니께서 말을 건네신다.

“그냥 거기서 빨리 물어보세요. 저번에 모두 말해줬는데 또 뭘 더 알려는 거예요? 빨리 물어보세요.”

다섯 달 째,

- 덩동! 덩동! -

통계청 직원임을 밝히자 대문이 열렸다. 후~ 절로 한숨이 나온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안으로 들어섰다. 방충망을 사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다.

- 딸각! - 현관문이 열린다.

“들어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마음을 들킬세라 후다닥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에 앉아 있으니 음료수를 내 오신다. 몇 달 만에 이집 거실에 앉았으니 행여나 뭔가 책이라도 잡힐까 행동이나 말에 신경이 바짝 쓰였다.

“마셔요. 어지간하네! 그렇게 말했으면 오지 않을 법도 한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왔어요?”

7월 여름에 인계받은 조사구의 첫 가구인 이택에 발을 디딘 오늘은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이다. 음료수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보니 아주머니의 통계청에 대한 반감이랄까! 오해랄까! 그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이 가구를 전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귀찮기도 하고 사생활침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거절했더니 다음에는 웬 여자랑 들어서 오다가 또 그 다음에는 남자랑 여자랑 3~4명이 떼를 지어 오더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혼자 집에 있는 나한테 무슨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떼 지어 다니며 뭐하는 짓이냐며 또 흥분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가계부 설득 차 담당자가 팀장과 소장님을 대동해서 출장 나오셨던가본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난 것이다. 차근차근 조사의 목적과 그렇게 출장을 나와야했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오해를 풀도록 도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가계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데 밖에는 어느새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 없는 내 손을 보시고는 들어가셔서 우산 하나를

건네시며 쓰고 가라는 아주머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서 나오는 내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으나 마음 한 편은 착잡하기만 하다. 차후 슬며시 꺼낸 가계부 얘기에 60평생 써 보지 않은 가계부를 이 나이에 못쓴다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시집살이 살아야겠어! 하시며 가계부 얘기 할 거면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에 나는 가계부 설득은 포기하고 말았다.

처음 조사원을 지원하면서 좋게만 생각했던 늘 봄날 같고 청명한 가을날 같던 조사원 생활의 실상은 여러 유형의 응답자에 의해 짜는 듯한 무더운 여름날이기도,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과연 조사원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까? 누구나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점점 맞벌이부부가 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정부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 통계조사관들의 생활은 15년 전과는 달리 확연히 힘들어졌다.

2~3차례의 방문에도 만나지 못한 단독전입가구를 조사하고자 밤 11시까지 차안에서 잠복근무하다시피 기다리기도 하고, 잠시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더니 옷을 챙겨 입고 나와서는 차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를 욕하며 삿대질을 하면서 나한테 모든 죄가 있는 양 퍼붓는 사람도 있고, 가계부를 내 놓겠다 해서 가면 없고, 또 약속해서 가면 또 약속 불이행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겨우 사정하다시피 하여 회수가 가능했던 가계부가 있는가 하면, 가계부 설득을 위해 몇 달간이나 지급한 답례품을

아파트 현관 앞에 몽땅 내놓으며 정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오지도 말고 벨도 누르지 말라며 문전박대하는 사람까지 참으로 다양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험겨운 상황에서도 내가 통계조사관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대상 가구에서의 차 한 잔의 권유, 따뜻하게 건네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더운데 잠시 쉬었다 가라는 작은 배려에서 사람들의 풋풋한 정을 느낄 때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동안의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통계조사관으로써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매스컴에서 자주 통계청에서 생산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을 접할 때면 '내가 조사한 자료가 나오는구나! 조사구 응답자들도 저것을 듣고 보고 있을까?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덧 나도 어쩔 수 없는 통계청 가족임을 실감한다.

통계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통계조사관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 말과 같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생산한 통계가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오늘도 웃음을 저축한다



송 춘 자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기간제근로자 |

내가 맡은 가게 경찰 조사구는 연동 번호 8번의 조사구로 전용 면적 44평의 전문직 교수와, 연구원이 대부분인 가구들로 오랜 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가구들도 타성에 젖어서 통계조사를 지루해 하면서 언제 끝나나 하는 상태였다. 나 또한 가게부도 많이 나오지 않고 면접도 거부하면서 경찰조사 조차도 불응하는 가구들로 인하여 힘든 상태에서 옆 라인으로 연동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시작 되는 곳이었다.

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도 순조롭지는 않았다. 가게 경찰 조사 안내문으로는 안되니 통계청의 정식 공문을 가져와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한번의 방문으로 끝 내라는 등, 관리사무소에서의 예민한 반응을 보면서 가구들의 민원이 염려 되어서 그런다는 말에 꽤나 까다로운 가구들이 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협조공문과 조사시간을 적은 안내문이 모든 가구에 2~3일 전에 배포해야 되고 꼭 정한 시간에 조사를 해야 한다는 관리소장님의 말을 뒤로 하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일이 꼭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구를 만나지 못하면 밤에라도 해야 하는 사정상 몇 번을 방문하여 예비조사를 시작 하였다. 관리사무소에서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과는 달리 예비 조사는 몇 몇 가구의 반대를 빼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가계와 경찰을 조사할 20가구를 선정하였다.

예비 조사를 하면서 경제활동 조사와 가계부 조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이 되면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한번 드렸기에 경찰조사 2개월이 지난 뒤 가계부 설득에 들어갔다. 연동 전 조사구에서 가계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가구를 만나서 설득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참담했다.

학력이 높고 생활에 여유가 있기에 모든 생각에서도 여유롭고 너그러우리라는 나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오히려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사생활 노출을 무척이나 꺼리는 가구들이 많았다. 다른 조사는 다 해 줄 수 있지만 가계부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가구, 안된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기 위한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쓰지 않겠다는 가구,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만나고 싶지 않다며 면접조차도 거부하는 가구 정말로 각 각의 이유를 가지고 가계부를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 예비로 가계부를 5가구가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본 조사에서 가계부가 나와야하는 달에 한 가구가 도저히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10년 전 주식 파동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고 남편의 퇴직금 조차도 주식 투자를 위하여 용자한 돈으로 다 없어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돈을 갚아 가야 하는 시점에서 가계부를 써보니 한 달 생활비와 타지역에 사는 두 자녀의 교육비와 그리고 빚에 대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는 충당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그 동안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주식 파동 후 충격과 마음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까지 남편이 자산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한달 가계부를 써보니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가계부로 인하여 다투게 된 것이다.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고 남편이 직접 전화해서 통계청에 따지겠다는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시면서 가계부를 한 달 써 보니 머리도 아프고 신경이 쓰여서 써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달 쓴 가계부를 주시면서 절대로 쓸 수 없다는 말씀에 가슴이 탁 막히는 것이, 눈앞이 캄캄했다.

우리 통계청의 조사가 법으로 지정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면은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법으로 설득할 수 없으면 정으로라도 설득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방문했다. 집안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계부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절하셔서 방문하면 차와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로 1~2시간은 그냥 지나갔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의 생각은 온통 어느 시점에서 가계부 이야기를 하여야 할까? 언제 일어나서 회사로 귀청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안 경제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공부 뒷바라지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은 전혀 없고 또한 주변 사람과의 왕래가 별로 없어서 외로와 보이는 듯 하여 그 조사구를 갈 때 마다 꼭 찾아 뵈었다. 대화를 하다가 적절한 틈을 봐서 가계부기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일주일에 2~3일 방문하여 대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려도 “쓸려면 내가 썼지요...”라고 대답하시면서 막무가내로 기록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방문했더니 김장을 대비하여 강경에 가서 젓갈을 이것 저것 사오신 것을 보고 “젓갈을 많이 사오셨네요, 얼마에 사오셨어요”하고 여쭙어 보니 “새우젓 이십만원, 까나리액젓 삼만원, 황석어젓 팔만원 이렇게 사다 놓으면 한 이년은 먹지”하시며 대답 하시길래 때는 이때다 싶어 가계부를 펴 놓고 적기 시작했다. 그런 나를 보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그래도 소용 없어 써주려고 했으면 내가 써 줬지”하신다. “신경 안쓰시게 제가 자주 찾아 뵈고 써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몇 일을 찾아 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사온 물건들이 있으면 가계부에 기록했다. 방문한 그날은 타지에서 공부 하는 두 자녀가 집에 오기로 했다며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분주 하셨다.

“오늘은 사과, 바나나, 굴 닭고기 사셨나 보네요” 하고 적으니 “그래도 소용없어 나 안 적어요” “아이 제가 적는다니까요, 어 잡채 하시려나 봐요, 시금치 당근 버섯도 사셨네, 대파도 사셨나보다” “대파는 항상 냉장고에 있어요, 지난번에 사서 뿌리를 신문지에

짜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싱싱해서 오래 쓸 수 있지” “아 그래요, 또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네요”하면서 가게부에 내용을 기록했다. 음식을 만들면서 냉장고를 여는 틈으로 보니 요플레가보였다. “오늘 마트도 다녀오셨나 보네요, 영수증 받은거 저 주시면 되는데..”하고 말씀 드렸더니 “영수증 버려서 없어요” 하신다. 그렇게 2~3일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었다. 자주 방문하니 귀찮을 법도 하건만 방문할 때 마다 웃으시면서 맞아 주신다. 그날도 방문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끝에 감과 사과, 꿀을 사셔서 타지에 자녀들에게 보내준 것을 가게부에 적고 “다른거 사신거 없으세요?”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영수증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웃의 호주머니에서 마트 영수증 2개를 꺼내주셨다. 아직은 가게부를 적어 주시기에는 신경쓰는 것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자주 방문하면서 기록하다보면 좋은 내용의 가게부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처음 통계청이 어떤 기관인지조차 모르면서 조사에 응하시다가 이제는 뉴스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뉴스를 보면 내가 조사에 응한 자료가 포함 되어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가구를 만나면 보람을 느끼며, 나는 오늘도 생활 가운데 웃음을 저축한다.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하기 어렵고 힘든 가구를 만났을 때, 열었던 문을 통계청이라는 말에 닫아 버리는 가구를 만났을 때에도 인상 구기지 않고 저축 하였던 웃음을 꺼내서 웃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멘토- 응답자들



김 경 희 | 대전 · 충남 지방 통계청 사회조사과 무기계약근로자



사람의 성격을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각이 4개나 되는 사각형, 사각형보다 각진 곳이 1개 줄었지만 여전히 3개나 되는 삼각형, 그리고 그러한 각이 모두 없는 둥근 원. 나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은 나를 네모로 표현하곤 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을 잘 이해하지 않고, 남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고, 나는 남을 잘 배려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 가까웠다. 적어도 통계 조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 그랬다. 4남 2녀의 막내딸로 4명 오빠들과 구슬치기하며 놀았고, 오빠들이 신발을 닦아주고 아버지가 교복 다려주시는 상황에서 마냥 응석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4명의 오빠 친구들까지 항상 북적북적하는 곳에서 전혀 잘난 것 없지만 잘난체하면서 지냈다. 어릴 적 이러한 나의 환경에서 형성된 나의 성격은 사각형과 같이 유독 뾰족하고 모난 구석이 많았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나를 두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인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좀 더 남의 입장을 들으려한다는 것이다. 뾰족한 각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기존의 나를 알던 사람들도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나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을 때 얻게 되는 결론은 하나였다. 바로 내가 통계청 조사원으로 일하면서부터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조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다양한 삶의 응답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들을 설득해 필요한 자료를 받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알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수진이(가명)...내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로 유독 관심이 갔던 아이로, 2002년 10월 연동표본교체구역에서 만난 도시가게 가구의 아이. 75세의 해소 천식이 심한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복 자매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해맑고, 천진난만한 미소, 대답도 곧 잘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구나 하고 어림짐작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가계부 쓰는 방법을 알려 주기위해 주에 1~2번 방문을 해보면서 점차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학교를 거의 매일 지각하며 아침 10시까지 자기가 일쑤이고, 담임선생님이 알람시계를 2개씩 사주시면서 아침마다 전화를 해야 등교가 가능한 아이였다. 기본적인 생활태도, 습관 및 의식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 오히려 옆에서 듣는 등 마는 등 하던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이 가계부를 곧 잘 적어 놓곤 했다. 그래도 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버릇 인가 습관인가 고등학교 내내 지각, 결석을 일삼는 거다. 담임선생님도 설득하고 달래고 얘기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면 또 지각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고3이 되자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다. 참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녀 졸업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또 지각, 결근이 되풀이 되는 것이었다. 결국은 가출을 했다. 2006년 4월 업무분장으로 조사구가 바뀌게 되어 그 후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수진이는 내가 가계부 지역 조사를 시작했던 초반에 만났던 아이로 아직까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 상대도 없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 되어질수 있는 환경도 못 되는 그 아이들에게 난 가계부 회수에만 급급했었다. 그 때 올바른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지 못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너무 밀려온다.

2006년 5월 지방자치제 선거가 한창일 즈음, 가계부 연동구역 20가구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했다. 4월에 이루어진 업무분장으로 2조사구가 바뀌고, 이어진 연동교체라 분주하게 단독주택 방문하며, 가계부 설득과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면 나를 선거홍보 위원으로 알고 주민들은 문 여는 것조차 더욱 거부했었다. 어렵게

문은 열었던 가구주에게 가계부를 설명하며 가계부를 배부했는데 다음 날 쓰레기통에 그 가계부가 있는 것이었다. 맥없이 쳐다보는 나에게 50대 배우자는 메물 차게 “내가 버렸다.”며 “가계부는 웬 가계부야 귀찮게 하지 말라.” “난 한 번 안한다면 안 한다”고 문을 쾅 닫고 들어 가버리는 것이었다. 쓰레기통에 쳐 박혀 있었던 가계부를 주어들며 정말 아득하고 막막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당황하고 화를 내기 보다는 먼저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응답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여름이라 4시 이후에 대문 앞에 나와서 나물을 다듬으며 이웃집들과 이야기 하고 계신 틈을 이용하여 함께 자리 잡고 이야기를 들었다. 전기세, 수도요금, 공과금등 경제 적인 문제가 많았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며 놀 수 없어 산에서 나물도 뜯어온다고 했다.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 부지런한 분이였다. 경제 활동상태를 물어보니 “어디 취업 시켜 줄라고 묻냐”며 눈을 마주친다. “네, 알아봐 드리지요”했더니 “컴퓨터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난 전자가계부사용을 알려드릴 속셈이었는데.... 오랜 우유 배달, 이삿짐 정리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속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화단에 예쁘게 가꾼 화초들, 고추장, 된장, 장독 등 살림살이 칭찬을 하며 열심히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니 8월부터 종이 가계부를 써 주시는 거였다.

10월 1일에는 가계부 내놓는 것을 깜박 잊고 외출했다며 두 번 걸음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전화를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중심적인 대화, 감정 중심적인 대화가 있는데 이 모두를 고려하여 맘을 나누니 기대하였던 좋은 반응이 왔던 것 같다.

복도식 17평 아파트, 2006년 4월 업무분장으로 바뀐 가계조사 구역. 20가구 중에서 경매 진행 중이고 불응가구를 뺀 18가구 중에서 일반적인 가구는 단 6가구. 이혼 및 사별 가구, 노인 단독, 장애우가 있는 가구 등 다양한 가구들이었다. 어떻게 조사해야할까 하는 아득함에 한참을 망설이며 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글씨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다른 조사보다 더 많은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번 방문이야 할 수 있지만 대문을 열어줘야 면접을 하지 않는가? 그래도 마침 시원해지기 시작해 대문을 열어 놓은 집도 있었고 밖에 나와 계시거나 하면 면접을 할 수가 있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 전자가계부를 설명 하였더니 사용하겠다고 흥미로워 했다. 가계부가구는 전자가계부 사용지도로 더 자주 방문하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혼자 사시는 노인 가구들은 사 드시는 부식도 변변치 못하다. 글씨도 모르셔서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드셨어요?” 하면 “그냥 김치하고 먹었어.” 하신다. 한 달에 한번씩 드리는 답례품은 꼭 필요한 것만 갖다 주신다며 그렇게 고마워 하셨다. 5년 내내 가계부를 불응하셨던 장애우가 있던 가구에 ‘참치세트’를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애우가 그 참치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

하시며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니 아쉬워 하시며 미안해하셨다. 당당히 미혼모임을 밝히며 경찰조사를 해 주던 00엄마, 이혼사실을 알리며 11조 현금까지 알려주시던 분. 팬티바람에 답례품을 집어던지던 백수아저씨, 짜증과 알 수 없는 싸늘한 시선으로 답례품 받으며 싸인 해주신 던 분, 언제나 커피 먹고 가라고 하시던 동갑나기 수연엄마, 이런 다양한 가구들의 속에 2007년 8월 39살 젊은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젊은 엄마를 위로한답시고 어렵사리 찾아갔던 내가 오히려 그녀보다 더 안절 부절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두 아이의 미망인이 된 젊은 엄마는 “남편이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라며 두 아이들을 위로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그녀의 씩씩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 항상 미소 지으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던 그 가구주의 모습이 선한데 ‘죽음과 삶은 정말 좋은 장 차이구나’ 생각이 들게 한다.

8번경찰조사구 연동이 끝나자마자 9번조사구 가계 연동이 또 시작될 때 즈음 나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심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나름 또 새로운 조사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더군다나 가계부 지역이라..... 그래도 코 앞에 다가와 9월초 비가 많이도 내리던 날, 용기에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다듬고 연동교체조사구에서 만난 60대의 할머니. 그 분은 당시 웅장한 음악을 듣고 계셨는데, 그래도 라인방송으로 안내말씀을 한 지라 흔쾌히 문을 열어주셨다.

“음~, 음악이 상당히 멋있어요!” 으레히 하는 인사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라스트 모히칸 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인데 알아요?”

“아, 아니오..” 순간 당황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범상치 않았던 그 분의 모습은 책장에 꽂혀 있던 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각국 여행을 위해 다양한 책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리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여행을 가기위해서 여행지의 문화와 사회상, 언어를 공부하는 준비자세가 매우 돋보였다. 그러면서 누구하고도 자신감있게 당당히 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다양한 시사, 일반 상식을 공부한다고 했다. 책상 한 가운데 놓여있는 낡은 노트에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상식들이 자잘하게 적혀 있었다. “UCC”와 같은 최신 상식을 줄줄 꿰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덧붙여 나에게 ‘ILO’가 무엇이나며 질문하시기도 하였다.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라스트 모히칸’을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음악을 들어본 후 그분처럼 새로운 상식들을 공책에 적어 놓고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그분과 만나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대화감을 생각하고 방문 하게 된다.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게으르지 말아한다는 중요한 실천 습관을 본 받아야겠다.

되돌아 보건대!

이렇게 만나는 응답자들의 다양한 삶들이 나의 생각과 성격을 정말 동글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치고 고통스러웠을 때 힘이 되어주었던 따뜻한 한마디의 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또한 송곳처럼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가며 상처를 주었던 말 한디에 대한 기억 역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못 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밝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섭섭해 하거나 원망스러워할 때 우리는 무척이나 당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실과 상대방의 진실이 믿음과 이해 안에서 서로 전해질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응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응답을 구해야지 하는 생각이 조사원의 자세 아닐까.

역지사지『(易地思之)』,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함으로써 나는 어느새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그리고 어느덧 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순히 응답자들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들은 나의 인생에 교훈과 깨달음을 가져다 준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도 훌륭한 멘토를 만나길 꿈꾸며 조사에 임한다.





당신이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김 종 록 |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보령출장소 |

“원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조사 담당자인 유금희씨 본인은 이런 본인의 선행이야기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담당팀장 자격으로 평소 조사구 담당자인 기간제 근로자인 유금희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리하여 몸소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한 가정에 눈물을 거두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마음 뿌듯한 통계가족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이 글을 소개합니다.

위 이야기는 우리 통계청에서 5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 표본조사구의 한 응답가구의 실화로 보령시 동대동에 소재한 34230조사구 농가경제 표본농가인 최중근(60세) 아저씨택 이야기입니다.

임차한 밭 300평을 일구어 고구마를 심고 여름 내내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여 삶아 팔아서 근근이 연명하는 7명의 식구들과 늘 아옹 다옹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는 TV속 인간극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씨는 이미 알코올중독자로 동네사람과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음주에 쓰러져 지는 그 곳이 바로 내집 안방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내 땅 하나없이 남의 종중터에 시멘트 블럭으로 대충 얼기설기 엮어 비바람만 막아주는 방 2칸에 7명이 웅기중기 포개 살며 가구의 한달 고정수입은 고작 연금 16만원. 큰 아들은 불미스런 죄로 교도소 복역 중인데 두번의 이혼경력과 세 번째 재혼으로 2006년 당시는 셋째 부인이 임신중으로 아무런 경제활동도 없이 전처아이 1명까지 양육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지요. 둘째아들 역시 이혼으로 방황하던 중 술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전봇대와 충돌, 중상을 입었으나 경제사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부담 치료를 하였으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안면근육 전체가 마비 되었지요. 게다가 본인 스스로만 감당하기에도 버거운데 아들과 조카, 부모님까지 챙겨야 할 형편이니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유금희씨가 이 조사구를 담당하게된 것은 2006년 부터였습니다. 최종근씨댁은 남의밭 300평을 임차하여 고구마를 심어 줄기를 판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둘째 아들이 조금씩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가구였는데 그 수입마저도 월따라 철따라 들쭉날쭉하니 그 생활의 어려움이야 능히 짐작이 되는 수준이었지요.

2006년까지 둘째 아들내외와 손자 그리고 이혼하면서 맡기고 간 큰 아들과 큰손자, 아버지 내외, 이렇게 7명이 살았는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둘째며느리가 집을 나가 버린 뒤 둘째 아들이 무척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혼자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얼굴을 심하게 다쳐 안면전체에 마비가 와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잃고 더욱 방탕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마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수습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애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실직과 돈이 없어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면근육 마비로까지 이르게 되었나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 둘째아들은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만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직원인 유금희씨가 일을 하러 그 동네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자기 남편이 부원장으로 있는 전기 기능사 양성학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뺨으로 기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부탁 하였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남편과 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2007년 2월부터 전기기술을 무상으로 배우기 시작하여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상으로 전기공부는 시작하였으나 별도의 수입원이 전혀 없는데 생활유지가 너무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다시 고개를 들며 여전히 생활고를 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둘째아들과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가끔 남의 집에 가서 밥 메주고 받아오는 어머니의 일당과 아버지의 연금 16만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그 돈으로 손자들을 키우면서 둘째아들의 병원비와 생계유지를 하여야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금희씨는 아는 이웃에게 아이들 옷과 신발을 수거하여 갖다 주기도 하고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지만 통계활동비를 활용하여 사주기도 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생계대책은 해결 될 수가 없었지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유금희씨는 다시 고심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토지도 없고 몸이 성치 않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 가구가 선정될 수 없겠나 하고 상담을 하였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대상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일을 안 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응답을 하였다지요. 집에서 왜 놀고 있는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해서 유금희씨는 전기학원의 학원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실 증명을 위해 전기학원 원장님한테 부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제출했지요. 그래서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이제는 매월 43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겨우 생활비 해결을 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더니, 이젠 큰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같이 살고 있던 큰 아들이 두 번의 이혼 끝에 다시

세번째 여자와 재혼하여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던 중 2007년 6월에는 불미스런 사고로 3년 실형을 받고 교도소 복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는 임신 3개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난국을 또 어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유금희씨는 다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친분이 있는 복지사분을 찾아가 이런 사정을 통사정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분 말씀이 도와주려고 해도 큰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안돼서 도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가에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사회복지사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심사절차를 거쳐 결국 큰며느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2007년 10월부터는 추가로 31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아들도 전기학원을 다니면서도 당장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자 포기하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비쳤으나 유금희씨 남편의 격려와 관심으로 공부를 지속하여 마침내 전기기능사 및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실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성을 인정받아 학원의 추천으로 보령에 있는 삼성 홈플러스 업체에 전기안전 관리자(30세, 최성식)로 취업까지 되어 현재 열심히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기 관련 기술을 습득하였으니 열심히만 한다면 사는데 더 이상 곤란은

없어진 셈이지요. 한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생활고로 다 쓰러져가던 한 가정에 다시 재기할 꿈과 희망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유금희씨는 통계청에서 근무한지 채 2년이 안되지만 남다른 사명감과 많은 사랑을 가진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 2의 유금희가 많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전 이미 행복합니다.



평화의 메신저



신재순 | 강원지방통계청 원주출장소 |

조사구를 2003년 1월 3일 담당하게 되어 새 조사구를 처음 방문 하던 날..... 호기심, 기대심 또 어떤 분들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간 3호집에서 인사를 하고 전임자로부터 인수를 받고 참고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라는 분이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도장을 가지고 회관으로 모여 달라는 광고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이나고 질문을 하였더니, 도로 신설로 인해 마을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동네 원주민과 뜨내기(이사 온 분들)의 소송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조사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7호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맥은 친환경 농업으로 과수 재배를 하여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나 실제로 판매 경쟁력에서 가격과 또 제도적 문제로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피해와 빚만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여 제대로 응답도 하여 주지 않고, 응답

해 봐도 그게 우리 농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전년 가을에 생산한 배를 반 정도도 판매하지 못한 상태라며 불만의 소리만 가득 듣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만 안고 다음 농가로 갔습니다.

그 댁은 어르신 두 분인 4호집으로 이 가정 역시 과수원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마을 몇 사람 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저온 저장고를 자부담과 용자로 하였는데 과일 농사를 지어서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이 댁 역시 열변을 토하며 통계는 하여서 무엇하냐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담당자 마음대로 하라며 일계부를 들춰보시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불만이 조사자인 우리의 뭉친 양 화를 내시고 정부를 비판하며 처음엔 그 불평을 답답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 올 때엔 힘없는 내 자신이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통계청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조사를 힘들여 하고 있는데 농업 정책에 얼마나 활용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구의 특성과 가구의 특이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기호품까지 아는 대로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문 했을 때의 벽은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친환경을 하는 7호댁 아주머니(일명 서울 댁, 처음 방문 하였을 때는 외출 중이었음)는 전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부부가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말을 참고로 조심스럽게 한 마디씩 질문을 하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채 이야기에선 역시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품질관리원에서 통계청과 비슷한 조사를 하는데 왜 정부기관에서 똑같은 조사를 두개의 기관에서 인력낭비를 하느냐, 우리가 빛이 많다고 조사를 나왔냐?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휴~하는 한숨과 자신감은 점점 잃어 가고... 정말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수농가가 5집이나 되는 우리 조사구에 전년에 생산된 배가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은 하락되고 판매도 부진하여 모두 힘든 상태라 모두 정부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일 어르신인 4호집에 설날 명절을 앞두고 판매하지 못한 배를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선물용으로 상당량을 판매하여 조금이나마 농가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4호집에서는 협조를 아주 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날 명절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여 설 인사 겸 협조를 당부코자 7호집을 방문 했을 때 이번엔 할아버지만 계셔서 속으로는 어렵고 말 많고, 불평, 불만투성이인 경영주와 배우자인 서울 댁을 안 만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할아버지께 두 분은 어디 가셨느냐고 여쭙어 보니,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설날이고 뭐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처음엔 덜컥 걱정도 되고 정말로 핑계 삼아 일계부를 안 쓴다고 하시면 어쩌나 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퇴근 즉시 과일과 빵,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병원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서울택은 이야기가 많은 분이래 이런 저런 이야기로 3시간 정도를 대화하면서 설날 명절이 대목이라 배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팔지도 못한다는 걱정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판매를 하기로 하고, 친환경이라 가격도 비싸고 설명으로도 부족하니 시식용으로 파치 배를 달라고 하여 배와 배즙을 시식토록 하고 판매를 하였더니 반응이 매우 좋아 한 밤중까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배달도 해주면서 4회에 걸쳐 무려 1,450여만원의 배와 배즙을 판매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배와 배즙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을 땐, 배달도 해주고 택배주문도 처리하였더니 전에 없던 반응을 보여 왔고, 이젠 여행을 다녀 오면서까지도 항상 저에게 선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젠 흠허물 없는 사이로 시아버님 이야기와 조사구에 모든 정보도 아끼지 않지요. 저 또한 친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참고가 될까하여 모두 다 출력도 해다 드리고 여기 저기 정보를 얻는 대로 전달도 하며, 아주 가까운 사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수확 할 때면 토요일 오후 남편과 함께 찾아가 과일을 선별, 포장도 해 드리며 바쁜 일손을 돕는 일에 익숙하여 졌습니다.

그러던 중 5호 농가는 30여 년 전 현조사구로 이사를 하여 거주

하게 되었으며, 이웃 토박이 7호 가구 응답자의 유세로 서로 불편하게 내왕도 없이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농가경제조사를 하면서 관계를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인데 양가의 불편함이 마을 전체에도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현장조사 중 5호 응답자와 7호 응답자간에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마을의 공동문제가 있을 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행사 시(응답자 초청 간담회 등) 서로를 피해서 참석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간격은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마을의 의결 사항, 공동의 협조 사항에도 서로 이질적으로 견제하며 불협화음이 지속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사구 방문 시 양가의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하여, 서로 호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마침내 2007년 1월 7호 배우자가 25년간이나 이웃집에 살면서 내왕이 없던 5호 응답자 댁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담당자의 노력으로 닫혀있던 장벽을 허물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 된 이웃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좋은 점만 전하여 서로의 자존심과 교만으로 불가능 했던 일이 마음을 열고 서로 진실 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가는 웃으며 차도 마시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허물없는 가구로 금년 가을 추수 후 바다낚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더없이 소중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으로 버티며 보내야했던 30여년이 이제는 호형 호제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기에 더욱 소중한 이웃으로 이어지길

소망할 뿐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여 지금에는 신뢰받는 통계청의 위상과 응답자와의 진실 된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만남이었으며, 이제는 어떤 어려운 통계조사도 웃으며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사구를 갈 때 먼 신나게 카 오디오에 볼륨을 높이고는 달려갑니다.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도움 받기보다는 도와주며 가까이 다가 갈 때면, 불운 가구도 가까워지면서 내 편에 와 있고 이제는 손가락 숫자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가족처럼 한 식구가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권정숙 | 강원지방통계청 강릉출장소

스산한 겨울, 가끔 세상과의 외로운 싸움에 버거울 때 날마다 보고프고 궁금한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이 있다.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듯 함께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좋은 이 가구는 통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났다.

작년 1월 연동표본으로 조사구가 바뀌어 3월부터 가계조사가 시작된 가구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검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구주와 치위생사인 배우자,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세 살배기 남자아이, 8월 출산예정인 둘째아이! 바로, 바쁘게 사는 맞벌이 가구였다.

맞벌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통계조사 왔다고 하면 맨발로 뛰쳐나와 반겨주는 가구는 당연히 없으리라 예상은 했던 바이지만,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러 방문드렸다는 말 한마디와 동시에 무슨 인구조사를

매달 매달 하나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싸늘한 눈빛, 집 안에서는 아이들 뻑뻑 우는 소리, 도무지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가구를 저녁 늦게 만났다는 반가움에 설상가상으로 가계 조사 얘기까지 꺼냈으니 돌아오는 것은 쾅~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 전화번호부터 물어볼 꼴 하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문은 닫히고 난 후였다.

가계부 얘기 이후에는 분명 안에서는 TV소리가 들리는 데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고, 누르고 누르다 응답이 없으면 괜한 자격지심에 혼자 씩씩 거리면서 쿵쿵~ 두들겨도 보지만 두드린다고 열어주겠는가...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했다. 가구에 따라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반드시 면접조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직접 물어 보기도 하고, 유도 질문을 하기도 하고, 탐문조사도 필요하며,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자계식으로도 조사해야 한다.

이번에는 조사목적과 내용을 적은,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몇 통의 편지를 써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혼자 애태우면서 잠 못 이루는 몇 날밤이 지나 관리소장님께 음료수를 건네며 탐문 조사를 했다. 가구주가 운영하는 학원 위치를 알고 싶었으나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초등학교 부근 검도학원이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막막했다. 하지만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가... 모두들 퇴근했을 만한 늦은 밤 시간에 아파트 마당에 세워져 있는 학원차량의 이름을 다 적어서 다음날부터 초등학교 부근에 차를 세우고 다리품을 팔기 시작했다. 무슨 학원은 그리도 많은 지, 검도학원은 흔하지 않을

거라고 시작한 일이 너무 무모하지는 않았나 회의도 들었다. 검토 학원 앞에서 간판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구주 이름을 확인하고 일치하는 학원을 드디어 찾았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제법 친숙하게 대답을 해주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받아냈지만 가계조사는 역시 배우자 몫이었다.

맞벌이 부부라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하랴, 세 살배기 아들 씻기랴, 무거운 몸으로 바쁘게 집안 여기저기를 동분서주하다. 그런 늦은 저녁 시간에 방문을 하니 정확한 조사와 긴 설명이 불가능했던 기억이 떠올라 배우자의 점심시간에 맞춰 무작정 직장으로 방문을 했다. 보통 직장에서는 문전박대하는 일은 없다. 주변 동료 직원들의 눈도 있고 해서인지 제법 상냥하게 맞아주었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조사를 할 때는 평소의 나는 과감히 포기해야 하므로 “사모님~~”이라고 불러 가면서 가계부 얘기를 다시금 꺼냈다. 가계부만큼은 못쓰겠다며 예의 있게 거절을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점심 시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찾아가 꾀꾀이 말을 이어나갔다. 불응이나 문전박대에 기죽지 말라.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 느닷 없이 찾아와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이해될 리가 없다.

통계, 통계 노래를 부른지 벌써 12년! 이제 나는 광~ 달는 문 소리에도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던 옛된 아가씨가 아니라, 광~ 소리 몇 배 만큼의 기운과 오기가 발동하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먼저 맞벌이 부부이면서 두 아이의 엄마인 나의 얘기를 하면서 말문을 텠다. 개인적인 공통점을 활용한 것이다. 내게도 동갑내기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이에게 늘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야기, 그리고 아줌마들 끼리 늘 그렇듯 남편에 대한 불만사항 등등을 얘기했다.

몇 번의 방문을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차가 없는 그녀가 아침마다 아이를 인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통계조사를 다니다 보면 별의 별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다 남일 같지 않게 생각이 되고, 오지랖 넓게도 발 벗고 나서게 되는 것이 통계청 직원이다. 어느 날 그녀 모르게 아이가 다닌다는 어린이집을 가보았다.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살펴보고는 길 가에 바로 위치해서 위험요소가 많은 점, 운동장이 없어서 항상 실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해가 잘 들지 않아 실내가 어두운 점 등 느꼈던 단점 및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른 여러 어린이집의 장, 단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내 아이라면 발 벗고 나서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임신 중인 그녀가 배고픈 시간 무렵 그녀가 다니는 치과병원에 푸짐하게, 병원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간식을 제공했다. 동료직원들의 지원 사격을 유도해 보면서...

차츰 나에 대한 호칭이 “언니”로 바뀌어 가면서, 틈만 나면 각종 육아 자료, 사교육 자료, 나도 그렇듯 바쁜 직장인이라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느 마트에서 어떤 품목을 언제 세일을 하는지, 혹은 아이 기저귀는 어디 가서 사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쇼핑자료, 그리고 검도장을 운영하는 가구주에게 필요한 통계 자료를 제공했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다. 가슴으로 대해야 한다. 그녀가 아이의 어린이 집을 옮길 즈음 한 권의 가계부가 설득되었다.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주저 없이 말할 것이다. 이쯤되면 나도 사람인지라 그녀만 내게 설득 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친언니가 7명이나 있고, 내게도 친동생이 2명이나 있지만 친언니 친동생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우리는 자연스레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내 아이 옷을 살 때 그녀의 아이 옷도 같이 샀고, 내 아이의 옷을 그녀의 아이에게 물려 입히기도 했고, 그녀의 둘째아이 출산 때는 함께 기쁨을 느꼈다. 나중에 안 이야기이지만 출산휴가 당시 약간의 산후우울증이 왔었는데, 자주 방문을 했던 내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구주가 운영하고 있는 검도장이 위치한 지역은 초등학생 수가 점점 줄어 사업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었는데 통계청 블루슈머에 관한 얘기를 해주기도 하면서 초등학생이 장차 늘 것같은 지역을 추천해 주어 그곳으로 검도장을 옮기기도 했다. 처음엔 괜한 일까지 했나 싶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원을 한명 늘려야 할 정도로 잘 된다고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녀가 다니는 치과병원의 직원들 또한 모두 나의 응답자들이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만 해도 내게 이것저것 그녀가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라는 등 정보를 주느라 여념이 없다.

하루는, 내 큰아이가 미쳐 신경을 못 쓴 사이 아랫니가 하얗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부부는 덧니가 생긴 탓을 서로에게 돌리며 싸움을 했고, 늦은 밤 나는 그녀에게 푸념의 전화를 했다. 주말을 이용해 치과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병원 의사선생님까지 부부싸움 한 사실까지 알고 계셔서 서로 웃으면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치과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다 통계청이라면 매사에 적극적 이시다. 더군다나 그 병원은 소비자물가 대상처이기도 하니까...

지금, 그녀는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을 때는 내 생각부터 날 정도로 통계청이 좋다고 한다. 10층에 사는 가구가 곧 이사를 가게 될 것 같다면 내게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며 의사를 묻기도 한다.

한 올의 실이 천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통계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족, 응답자들의 사랑과 관심에 나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푹고추만 보면 생각나는 그녀..



최유라 | 경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

새벽녘 찬바람에 잠이 깼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아직은 밝음을 거부하는 창 너머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어둠에 익숙지 못해서인지 시계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몽롱한 눈을 비비며 희미한 전광이 뿔어져 나오는 곳을 한참 훑어지게 보았다. 겨우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새벽 3시30분, 사방이 너무 조용하다. 갈수록 정신이 맑아지며, 또 다시 찾아오는 불면증세. 더 이상 잠을 청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섬주섬 몸을 추슬러 책상 앞에 앉아 오늘까지 내기로 한 통계조사현장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생각해 봤다. 통계조사를 시작한지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긴 세월인데,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에피소드라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아 항상 배고플 때마다 아리하게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이다.

2004년 7월 통영출장소로 두 번째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의

일이다. 업무인수인계를 하던 날 어쩔 그리도 비가 오는지……. 억수같은 비에 강현미씨가 맡았던 거제시 연초면을 인계 받았지만, 사실 그날은 조사구에 대한 기억이 없다. 단지 현미씨가 차 키를 켜고 문을 닫는 바람에 비를 쫄딱 맞으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차 수리 센터 사람이 와서 차문을 열어 준 것 밖에, 그날 단엔 예쁜 옷 입고 첫 인사간다고 화장도 신경 썼는데 민망한 물골이었다. 대충 지리만 탐색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철수 하는 수밖에, 며칠 후 다시 찾아 갔지만, 조사구 경계를 미처 보지 못해 훨씬 지나쳐 가다 웬지 이상한 느낌에 차에서 내려 물어보니 10분은 족히 더 온 위치였다. 차를 돌려 다시 찾아간 연초면은 그날 억수같은 비에 미처 보지 못했는데 참 궁상스러운 곳이었다. 외국인 노무자들과 무슨 무당집은 그리도 많은지 못살아도 이 처럼 못살기도 힘들 텐데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런 와중에 가게부를 쓰고 있는 몇 집을 찾아갔다. 대문 앞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악취에 속이 울렁거렸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의아해 하며 목청껏 소리 지르니, 대문 옆 문간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허벅지까지 김스를 하고 짹짹거리며 나온다. 순간 당황하며 통계청 직원임을 말하자 상대방도 긴장을 늦추며 전임자에 대해 묻는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뀐 사항과 인사차 왔을 때 비가 너무 와서 미처 인사를 못하고 갔다는 말에 아저씨 당장에 한마디 하신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가소.” 난 오늘 처음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토록 괴로우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아저씨는 말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듯 시선이 내게서 떨어지질

않는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분의 시선이 참 불편했다. 웬지 모를 수치심도 들었다. 나도 모르게 대충 말을 얼버무리고 주인집에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며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주인집이라 해 봤자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96세 할머니, 참 기가 찼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게부를 부탁해야 하다니, 나의 고함소리에 또 다시 아래 채 문이 열리며 어떤 아줌마가 얼굴을 내민다. 그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들으니 자기에게 물어 보란다. 반가운 맘에 얼른 뛰어가 물어 보니, 시내에 아들이 산단다. 담엔 그곳으로 찾아가 물어 보란다. 그렇게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담엔 이 아줌마 차례, 뭘 목소리가 그리도 허스키한지, 남자 목소리를 방불케 하는 그 아줌마는 말 그대로 무당이었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함부로 말을 못하고 가게부 잘 부탁한다는 인사만 던지고 돌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우울했다. 10년이 넘어도 이렇게 기분 나쁜 조사구는 처음이었다. 신경질도 나고 자꾸만 한숨이 나왔다.

내일은 오늘 보단 기분이 좋아지겠지, 혼자 위로하며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찾아간 연초면, 목발의 아저씨가 어김없이 오토바이에 기대어 느끼한 시선을 던진다. ‘꿀꺽’ 마른 침을 삼키고 언니는 없냐고 물어봤다. 그 아저씨 내게 징그럽게 한마디 던진다. “예쁜 이가 언제부터 우리가 집안사람이 되었어?” 되레 내게 묻는다. 당황스러운 내 모습이 재미있는지 비실비실 웃으며 달혀져 있는 방문을 가리켰다. 뒤통수가 근질근질 거리는 걸 참으며 들어간 곳은 대낮인데도 어두워 안이 분간 되지 않는 곳이었다. 한참 눈을 껌뻑거리며

어둠에 익숙해지길 기다렸다. 최대한 예쁜 목소리로 “계세요?” 하고 소리치자 누군가 이불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난다. 침엔 귀신같은 그녀의 행동에 소름이 끼쳤다. 너무도 슬로우 모션을 취하는 그녀가 이상해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그녀는 힘없이 피식 웃으며 아무 말이 없다. 웬지 이상했지만 내 말을 잘 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다.

“통계청 직원인데 가계부 때문에 인사 왔어요. 이제까지 쓴 가계부 좀 보여 주세요.” 나의 피꼬리 같은 목소리와 최대한 미소를 담은 얼굴을 그녀는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민망하게 소리, 이게 뭐 일이라?’ 속이 불편했다.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엘 온 것 같아 불안했다. 잠시 후 바깥에서 들리는 아저씨 말 “그 사람 우리말 잘 몰라요.” ‘우이 썩 진작 말을 해 주지’ 알고 보니 그녀는 조선족 여인인데 아저씨랑 결혼 한지 얼마 안 되어 가계부에 대해 잘 모른다. 바깥에서 이런 상황을 즐기다 내가 좀 한심스러워 보였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미운 아저씨, ‘그럼 내가 상대 할 사람은 저 느끼한 아저씨란 말인가?’ 이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또 다시 나의 피부는 대패질이 필요한 상태, 떨리는 가슴을 가누며 친절을 가장한 얼굴과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물었다.

“가계부는 잘 쓰고 계시죠?” 느끼한 아저씨, 기다렸다는 듯이 “쓸게 있어야 쓰지!” 이 한마디에 울고 싶어졌다. 느낌이 안 좋았다. 십중 팔구 가계부는 한번 펴 보지도 않았음이 확실했다. 일단 후퇴, 옆방 아줌마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문간 방 조선족 집에서는

아저씨가 김스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질문에 아줌마 그 집은 지금 며칠째 굶고 있단다. 자기가 준 감자 몇 개 하고, 쌀 한 바가지로 겨우 살고 있단다. 조선족 그녀는 굶어서 힘이 없어 저렇게 누워 있단다. 갑자기 가슴이 아렸다. ‘머나먼 타국에 와서 저게 무슨 고생이람?’ 눈물이 내려했다. 세금도 못내 전기도 안 들어온단다. 아저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일자리도 없고, 그녀는 말이 통하지 않아 허드렛일도 오래 할 수 없단다. 그 길로 난 시내에 있는 슈퍼로 가서 라면 오 천원 어치와 계란 열 개를 샀다. 조심해서 아저씨 앞에 라면과 계란을 내 놓으며, 오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아저씨는 갑자기 병어리가 되었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민망하게 스리 왜 말이 없어? 화가 나셨나? 순간 내가 잘 못 본 것일까? 아저씨 입가에 희미한 미소와 눈가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참 다행이다 싶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걸 내 얼굴에 던져 버리면 어찌지? 하고 조마조마 했는데……. 이날 이후로 우린 참 친해 졌다. 조선족인 그녀는 우리 말을 잘 따라했다. 조선족이라 해서 우리말을 다 잘 하는 것이 아니란 걸 그제서야 알았다. 그녀는 나름대로 학력도 좋았다. 우리나라의 전문대격인 학교를 나왔고,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다. 날이 갈수록 예쁜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자주 떠올랐고 그 웃음이 좋아 나의 연초면 출장엔 항상 라면과 계란이 동행했다.

초등학생의 글씨를 방불케 하는 삐뚤삐뚤한 그녀의 몇 줄 안 되는 가계부 내용을 볼 때도 기분이 좋았다. 두 달 후 아저씨는 김스도 풀고, 공사장에 일도 나가셨다. 처음 느꼈던 느끼함도 차츰 사라지고,

아저씨랑 종종 농담 따먹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기분이 꾸리꾸리 할 땐 무당 아줌마네 가서 점도 봤다. 너무 가난해 내 보일 것도, 감출 것도 없었던 그 사람들, 우린 집 앞 텃밭에서 고추며 상추도 가꿔 맛나게 점심도 먹었다. 한 여름이 지난 후 조선족 여인은 대전으로 남편을 따라 이사를 갔다. 그냥 간단 말만 들었을 뿐 그녀는 그녀를 보지 못 했다.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핸드폰에 모르는 대전 번호가 찍혔다. ‘누구지? 혹시 본청에서 급한 전화?’ 온갖 급박한 상황을 떠올리며 받은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느끼 맨 아저씨였다. 놀란 맘 반가운 맘에 얼른 안부를 물었다. 그녀도 잘 있단다. 며칠 후 거제에 내려가는데 혹시 시간 나면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잔다. 기분이 너무 좋아 언제든지 좋다고 했다. 아저씨는 대전에서 증장비 자격증을 따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그녀는 식당에 취직을 했단다. 배가고파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그녀, 어두운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마다 너무 많이 가져서 가졌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내는 나의 풍족에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생된장에 풋고추를 찍어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을 웃던 그녀.....

내가 풋고추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녀를 아직 잊지 못해서 일까?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 무슨 비가 이리도 자주 오는지. 이런 날엔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 냄새 가득하던 그녀의 방이 생각난다.

좋은 인연



강현숙 | 가계조사 대상가구 : 마산시 석전동 |

내가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의 어느 바람 부는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마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나는 집에서 마늘 까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오후에 채소가게에 가서 내가 깠 마늘을 건네주고, 까야할 새마늘을 가지고 돌아온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저.. 아주머니, 여기 사세요?” 뒤를 돌아보니, 참하게 생긴 아가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직원인 000입니다. 통계청 들어보셨어요? 인구주택총조사하는 국가통계기관인데요....” 여기가 가계조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한다.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팜플렛과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서서 갔다.

“통계청?” 들어본 것 같지 않다. 참 생소한 단어다. 그런 기관도 있었나? 며칠 뒤, 그 아가씨가 다시 왔다. 다음에 오겠다고 하더니, 정말 또 왔다. 며칠 전에 뵙고 오늘 또 뵙는다고 하면서 더 생글거리면서 이야기한다.

“안녕하셨어요? 여기가요, 저희 표본조사구로 선정되어서 제가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여기는 가계조사지역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는 몇 분이 사세요? 가구주 성함이랑 다른 가족들 성함을 알려주세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학벌은 어떻게 되세요? 이 집은 자가인가요? 전세인가요? 사글세인가요? 가구주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질문이 끝이 없다. 열심히 대답을 한 후, 내가 물었다.

“그런데, 이런 거 이야기 해줘도 괜찮은 건가? 우리 애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 해주다가 국세청에서 세금이라도 많이 때리면...”

“아니예요. 저희 통계청은 세금이랑 관계없습니다. 저희 조사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비밀도 보장 되구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만약에 세금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으시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저 이게 저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부라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직원의 손에는 조그만 공책이 하나 보였다.

“그게 뭐야?”

“이게 저희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가계부인데요. 아주머니, 집에서

가계부 쓰세요? 저희 조사가 가계부를 쓰는 조사거든요.” 나는 빙긋 웃었다. 결혼해서 이제까지 16년 정도를 가계부를 쓰고 있었으니, 가계부 쓰는 일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서, 그것만 하면 되느냐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가계부를 두고 가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통계청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매일 적던 가계부를, 통계청에서 주고 간 가계부에 옮겨 적었다. 단순히 가계부를 옮겨 적는 일이지만, 같은 내용을 두 번씩 적어야 하다 보니, 이것도 몇 달이 지나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벅찼다. 그렇게 하기를 몇 달, 점점 지쳐가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저녁뉴스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00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웬지 반갑고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아는 체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가계부 적어 주는 일이 대단한 일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남편에게 저것이 내가 하는 통계청 조사라고 자랑을 했다. 남편이 대단한 일 한다며 허허 웃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기만 했던 가계부 적는 일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매일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한줄 한줄씩 정성껏 써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가계부를 적는 일이 익숙해져갔다. 그러다가, 전자가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 집을 방문했던 통계청 직원은 통영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고, 그 다음으로 오게 된 통계청 직원이 전자가계부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가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가계부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권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며 처음에는 망설였고 또, 좀 귀찮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5만원을 준다고 하여 마음이 움직였다. 통계청직원이 우리 집의 컴퓨터에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다운받아서 깔아주고, 사용법도 하나 하나 알려주었다. 친절하고 쉬운 설명에,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통계청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배운대로 하나 하나 순서대로 쳐서 오늘 내가 슈퍼에서 샀던 물건들을 하나 하나 입력해보았다. '사과'를 하나 입력하는데도 키보드의 어디에 '사과'의 자음과 모음이 위치하는지를 빨리 알 수 없어서, 시간이 좀 필요했다. 오랜만에 키보드를 두드리려니까, 잘 되지 않았다. 내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반이어서, 컴퓨터를 조금 만질 줄 알았지만, 솔직히 요즘에는 쇼핑이나 인터넷만 해서 마우스를 주로 사용해서 키보드로 글자를 두드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이 싫지 않고 재미있었다. 전자가계부를 사용하면서 그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키보드를 만지게 되었고 새삼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전자가계부가 참 좋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이렇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아이들이 컴퓨터로 장시간 오락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사용할 시간이니까, 이제 너희들도 컴퓨터 그만하고 숙제하거나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그만해서 좋았다. 또, 종이가계부를 쓰면

며칠 전의 내용을 보고 싶거나 몇 달 전의 내용을 보려고 할 때 그 당시의 종이가계부가 없으면 내용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한데, 전자가계부는 날짜를 변경해서 쉽게 그것을 찾아서 내용을 볼 수 있어서 편리했다. 한달의 수입과 지출내역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살림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표와 그래프로 체크가 가능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등록금이나 하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약해야 하고 얼마나 더 저금해야 할지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처럼, 단순히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를 씬으로 해서 내 가계의 씬씀이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통계청은 나에게 참 좋은 기억들을 많이 안겨주었다. 다달이 생활에 꼭 필요한 선물들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낱알이 가계부를 써서 살림이 조금씩 불어나는 재미도 느끼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던 '통계'라는 것을 내 생활의 일부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기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통계조사에 참여했으면 한다.

아름다운 동행



이미경 | 경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

천둥 번개소리 놀라 눈을 떴다. 어둠속에서 내리는 비 소리는 나의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고요 속에서 지난 일들을 더듬어 보니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 진다. 십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니 내가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8년이 지났으니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해 간다고, 아니 요즘은 삼년에 한번 강산이 바뀐다고 하니 여섯 번이 바뀌었나...

첫 걸음... 자유로운 젊은 날

스물이 갓 넘어 그때 당시 조사통계국에 첫발을 내딛고 힘찬 내일을 설계하는 꿈과 희망과 도전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무조건 용감했고, 미안하면서도 당당하게 물어보던 철없던 스물, 나의 시절은 그래도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품속 같이 항상 감싸주는 그런 동료들이 함께 해서 행복했고 즐거운 시절이었다. 업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맡게 되었고, 가계부를

작성해 주시는 가구는 가구마다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가득했다.

할머니와 손녀가 살면서 글씨 모르는 할머니 대신 뻘뻘한 글씨로 가게부를 작성해 주었던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 형제가 살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데 지나고 보니 속셈이 있었던 웃지 못 할 사연과 부부가 살면서 장애가 있었던 남편을 위해 재봉틀을 열심히 돌리며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면서도 가게부에 대한 정성은 참으로 고마웠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나서 가게부는 어렵도 없다며 냉대했던 새댁이 어느새 우리의 식구가 되어 가게부를 적극적으로 적어주고 간담회 때 체험사례 발표까지 해 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하루도 웃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나의 스무 살 시절은 열정과 더불어 자유로운 젊은 날을 마음껏 누렸다.

두 번째 걸음... 정으로 사는 세상

서른이 되었다. 모든 게 안정이 되는 듯 했다. 가정도, 일도 그래서 마음도 편했고, 그저 행복한 순간순간만이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후배들에게 나름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기본 지식과 노하우를 쌓고 있었고, 후배들은 내가 처음 느꼈던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느낌도 가끔은 가졌다. 웃음이 났다. 나도 그랬었다고... 그것 역시 경험이며, 업무의 연속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었다.

“좋은 게 좋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범한 진리 속에 난 살아가고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만에 빠질 때 쯤 통폐합이라는 이름아래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 사무실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빠져들었다. 낮선 사람과 낮선 업무들로 서로를 경계 아닌 경계를 하면서 자리 찾기에 정신이 없었으며, 우린 또 출장소라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현재 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짐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서른 초반에 하동과 서른 후반에 거창 두 출장소를 다녀오게 되었다. 하동출장소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생소한 농가 경제를 맡게 되었다.

남해군 삼동면, 남해라는 곳도 처음 가 보았지만, 처음 맡은 업무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정신없이 10가구를 찾아다녔다. 대부분의 가구가 60~70세의 노부부가 살고 있는 가구였고, 가구마다 환자가 1명 정도는 계셨다.(그 조사구는 유독 암 환자가 많이 있었다.) 친 부모님처럼 가슴으로 대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찾아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고, 2~3개월 후의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처음보다 한층 다른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된다고 억지로 밥을 먹게 하셨고, 힘들게 지어 놓은 마늘 농사를 맛이나 보라며 싸주는 마늘이 집집마다 다니면 일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정을 가지게 했던 조사구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난 또다시 창원으로 떠나야 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한가구의 아버님께서(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던) 그 동안 고마웠다고 가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라며 꼬깃꼬깃 구겨진 만 원권의 지폐를 한 장 내 손에 쥐어 주셨다. 어느새 내 눈엔 눈물이

돌았고, 난 연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며 고개만 숙이고 또 숙였다. 거창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시골의 인심을 마음껏 누리며,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조사구의 비슷한 나이의 언니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아직 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 아직도 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했다.

세 번째 걸음 . . . 내면 가꾸기

마흔, 창원으로 돌아와 맡은 업무는 또 다른 업무였다. 남자 직원들이 주로 맡고 있는 소비자물가조사와 도소매, 서비스업조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하는 건 도전이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나를 위로하며 신규 직원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부딪치며 ing... 그리고 한편으로... 늦은 후회를 한다.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아니 좀 더 나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한 층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나를 위로하며, 새로운 각오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보고,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나를 돌아보고, 맡은 업무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하고, 내면의 변화도 가져보는 나의 마흔이 되어야지! 마흔 중반이 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나를 바꾸어야지!

삶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기회를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잘 잡을 줄 아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것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시기가 바로 40대라고 한다. 빛나는 사십대로 가꾸어가기 위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지금이라 생각하며, 자유로운 젊은 날의 내가 아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계기를 마련 하리라.

마지막 걸음 . . .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동행

쉰 (오십), 이제 오십대면 나 역시 어쩔 수 없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닐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과연 여기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있을까? 돌아보면 무언가 남아 있어야 할 텐데 벌써 걱정이 앞선다. 그 때쯤은 모든 걸 완전히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 돌아보면 한번도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 삼십년 동안 몸담은 이곳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남기고, 같이 가야할 사람들이 영원한 동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가장 행복한 동행” 얼마나 좋은 말인가?

통계여! 통계인이여!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으니, 함께 손잡고 늘 준비되어 있는 진정한 프로가 되어봅시다.

가계부는 나의 운명인가?

김 소 영 | 경남지방통계청 통영출장소

9월 1일 토요일 아침이다. 여느 때 같으면 아이들과 늦잠을 즐기고 있을 테지만, 이가 부실한 탓에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쏟아지는 잠을 쫓아버리고 길을 나선다.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말에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토요일 아침이다.

음악을 좋아해서 차안에선 항상 라디오든, mp3든 틀어져 있는데 오늘은 라디오가 틀어져 있다.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다. 감미로운 목소리 김기덕 아저씨다. 오프닝 음악과 함께 들려오는 말 “9월 1일 통계의 날, 7일 사회복지의 날, 18일 철도의 날, 25일 추석, 27일 관광의 날... 행사가 가득한 한 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멘트 중 유독 나의 귀에 쏙 들어오는 한마디... “9월 1일 통계의 날”... 이럴 때 나는 느낀다. 나도 어쩔 수 없는 통계청 직원 이구나. 올해는 토요일에 들어있어 사무실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대신 어느 해와는 달리 우리청(경남지방통계청)의 내부 행사로 가득 채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다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부담감과 함께 어느 해와는 다른 여러 행사에 호기심도 가득하다. 그중 나는 가족사진, 응답자와의 사진전에 이미 참여했고, 지금은 이렇게 입사 이후를 한 번 돌아보며 체험수기를 쓰고 있다.

2001년 5월 9일. 나의 입사일이다. 입사 당시에 몇 년씩 근무하신 선배님들을 보며, 나는 언제쯤 일을 해서 저렇게 능숙하게 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어느 덧 나도 일명 '통계 밥'을 7년이나 먹고 있다. 업무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선배님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역시 통계 밥의 위력은 대단한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럼 이쯤에서 나의 업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한다.

입사이후 계속 가구업무(가계, 경찰)만 맡아 오던 나. 2006년 1월 4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통영출장소 발령이다. 출장소 근무도 처음이지만, 5년 동안 해오던 가구업무를 끝내고 어가경제조사의 새로운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맡게 될 업무에 대해 걱정하는 나에게 주위 분들은 가구업무 열심히 한만큼 새로운 업무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겁먹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다. 어쨌든 새로운 어가경제조사에 발을 들여놓은 첫 달. 연초인지라 전년도 내검으로 정신없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 달을 넘기고 일계부 회수에 들어갔다.

혼자로는 처음으로 조사구로 출장 가던 날, '아~ 나도 가계업무

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응답자 답례품이었다. 항상 차안 가득 싣고 다니던 답례품, 간혹 판촉사원으로 오인 받기 십상이었던 답례품이 어가경제조사 4조사구를 다 합해도 경찰조사구 하나에 미치지 못하니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업무특성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어가경제 왕초보인 나는 이것만으로도 업무만족도가 양껏 올라갔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구 아버님과 어머님들도 어찌나 친절하게 대하여 주시던지 가구업무 5년으로 문전박대에 익숙해져버린 나에게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가경제조사가 쉽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그런 조사구를 일구어 놓은 선임자의 노력에 존경하고 있으며, 어가경제조사 왕초보자가 하는 말이니 이해하기를...

가구업무에 비해 부호집도 간단하였지만, 처음 서너 달은 어가의 환경을 모르는 탓에 선박이니, 어구이름이니, 물고기이름, 작업량 등 모두 생소한 용어에 골머리를 아파하며 지냈다. 다행히 나의 업무 구세주였던 팀장님과 여러 동료의 도움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선배님 한 분이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밀려오는 이상야릇한 예감! 그 동료분의 담당업무가 가구업무가 아닌가!! 그리고 당시 그 선배가 그만두면 남자직원이고 발령 나게 될 순서였고, 거기에다 가장 최근에 가구업무를 한 사람은 나뿐이었던 것이다. 그 이상야릇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 어가업무를 머리 속에 하나 둘씩 새겨가고, 가구업무는 셋 넷씩 지워버릴 때쯤 다시 가구업무를 맡게 되었다. 다행히 가구업무에 일하시던 선배님들이 입사당시 선배님이었던지라 크게 위로가 되긴 하였다. 그리하여 몇 개월 전에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업무 인계를 하고 또 인수를 하고... 어가경제업무와 가계업무를 맞바꾸면서 그렇게 다시 가계부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다시 찾아간 가구조사구 역시나 문전박대의 가구가 몇몇이 있고, 직원이 바뀌었으니 안하겠다고 협박(?)하시는 응답자들이 속출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간혹 반갑다고 반기시는 분들이 있다. 타지에 시집와서 친구가 없는 나 또래의 새댁들, 나의 아이와 비슷한 자녀를 가진 엄마들... 그리고 노부부만 거주하셔서 찾아오는 이 없는 가구들... 몇 달 동안 눈도장으로 불응과 협박하시는 분들에게 미운털은 조금 뽑히기 시작했고, 사탕과 과자의 뇌물로 조사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통계청 이모'를 인식시켰다. 아주 불응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더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득을 하며 가구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정말 가계부는 나의 운명인가 싶다.

다시 가계부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월초가 되어 가계부회수에 나선다. 이번 달에는 답례품이 교자상이 나왔다. 부피로 보나 여러 개의 답례품을 한꺼번에 들고 가기엔 역부족이라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6층의 계단식 아파트인 지라 1층에 답례품을 쪼로록 세웠더니 모양새가 택배직원과 흡사

하다. 잠시 한 숨 돌리던 차에 5층집 아이가 학원에서 다녀왔는지 입구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붙잡았다.

“너 503호집 아들 맞지?” 친근한 척 말을 건넨다.

“네” 역시 아들이라 무뚝뚝하기 그지없다.

“엄마 계시니?”

“아마 계실건데요.”

“그래, 엄마한테 조금 있다 간다고 전해줘~!”

“네.” 짧은 물음과 답변이 오간다.

2층 노부부집에 가서 모아둔 영수증을 다 꺼내어 가계부에 붙이고,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할머니께 이것 저것 여쭙어 보고, 통장까지 달래서 가계부에 적는다. 어느 누가 남의 집 통장까지 검사를 할까? 참으로 대단한 직업인 것 같다. 가계부 문의를 마치고 3층, 4층 가구를 건너 5층 목적지에 도착했다.

“계세요? 언니~! 통계청입니다”

“아~, 통계청이었어요?”

“네, 왜요? 아까 아드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아드님이 얘기 안했나 보네요?”

“아니, 아들이 어떤 이모가 상을 한가득 들고 엄마한테 온다던데 하면서, 아마 상 장사가 올 켜가봐, 이러는 거야. 하하하”

“푸하하하~” 언니와는 자주 만나지만 아이들은 요즘 학원이다

뭐다해서 자주 얼굴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간혹 만나는 통계청 이모 얼굴을 잊어먹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나서, 소중한 가계부가 나의 손에 들어온다. 나를 상장사로 만든 가계부이지만, 이제는 나의 운명인가보다. 한 장 한 장 정성들여 써 주신 가계부, 우리 통계의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통계청 조사관으로 산다는 것



김 형 준 | 인천통계사무소 경제조사과 |

마린보이처럼 이 섬 저 섬 누비다 경제조사과 산업통계팀으로 내려오게 되던 2006년 봄, 인천 지역 중에서도 응답자가 자주 바뀌고 협조도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남동공단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엔 아내가 『이젠 섬도 안 다니니 배타고 안 다녀도 되고, 날씨 때문에 괜스레 뉴스 때마다 일기예보를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즐거워하였다. 굳은 날엔 해상날씨를 장모님까지도 걱정 하시던 시절 이젠 섬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에만 다니면 되고 정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더 길고 여유로워 졌다.

정 많고 갈 때마다 따스하게 맞이 해주시던 섬 어르신들과 달리 공장 사람들은 그리 해주지는 않았으며 예전 섬 주민들과는 사뭇 달랐다. 내가 다니는 공단지역의 공장들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소수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보며 잦은 외근업무에 회사 경기도

어렵고 인원 충당도 안 되다보니 모두 힘들어하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있으며 웃음보다 힘겨워함이 역력해 보였다. 그들에게 통계 조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 왜 그리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지 짜증스러우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불편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체에선 한직원이 거의 여러 관공서의 통계를 협조 해주고 있으며 사내에서도 통계는 신입직원이 맡으며, 한직이라고 취급되기 일쑤여서 자료 내용을 좀 더 깊게 문의를 하려면 공장 내 다른 사람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어떤 사업체는 대외비라 하여 일정 간부 이상만이 직접 담당해주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부하 직원에겐 통계자료 유출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등 통계청 비밀보호 조항조차도 의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응답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봄비 내리던 그해 2월 인계자와 함께 남동공단을 다니던 날, 비가 와서인지 공장 골목골목 차들로 인해 주·정차 할 곳이 없어 몇 번씩 돌기를 여러 번 한 공장 한 공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드넓은 농어촌을 다닐 땐 나의 조그마한 티코 차를 댈 곳이 많았지만 이젠 내 차가 왜 이리 커 보이는지 좀처럼 주차 공간이 나지 않을 지경이 었다. 그렇게 그날 인수를 받고난 후 나름대로 응답자별 협조도를 체크해보니 몇몇 사업체만 힘들겠고 대체로 호의적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의 순간 판단들은 잘못되고 나름대로의 통계가 틀렸음을 알게 된 것은 인수 받은 다음 달부터였다.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이면서 사업체직접입력(CASI) 방식으로 자료를 사업체에서 응답자가 컴퓨터로 직접 인터넷을 접속 입력

전송하던 한 사업체가 있었다.

(주)철강공업이라는 사업체인데 새로이 인천 중구에 제 2공장을 금년에 신설한 사업체로 한정된 인원으로 2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려니 기존 회사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 했다. 회사 사정상 신규 직원 채용은 어렵다고 하니 통계조사를 담당하던 과장님도 결국 업무 외적인 일에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는 정리 작업을 하던 터였다. 그 중에 공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중 하나가 통계응답이라고 판단하시어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 자료를 중단하고 통계청도 통계응답을 중단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3·4월부터 계속 바쁘고 힘들다며 방문도 꺼리시고 자료도 마감 직전이나 보내주고 하자 계속 찾아뵈면서 통계 정보지와 통계자료를 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가볍게 단순 짜증이었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만날 때마다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고만 계속 피력했다. 다시 한 달이 지나 5월에 방문하는데 갑자기 사업체 과장이 크게 결심한 듯

“김 선생님! 이젠 우리 공장 통계조사에서 빼줘요. 내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계속해 줄 테니 매월 입력하는 것은 이번 달만 할게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다. 전임자에게 인수받을 때 이 사업체는 응답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5점 사업체였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그날은 그 의중을 알고자 듣기를 말하는 것보다 충실했고 일단 자료 마감일이 급박해 해당 자료를 받고 과장님도 때마침 바쁘게 계속 협력업체에서 전화오고 하던 터라 나는 그래도

결정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기 위해

“과장님 오늘은 저와 과장님도 마감 때문에 바쁘시니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올게요.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라고 과장님이 아직 다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뉘앙스를 남기고 일단 사무실로 돌아왔다.

난 그날부터 주말까지 내내 끙끙 앓았다. 신입시절엔 겁이 없어 선지 직책이 상무이사건 사장이건 릴레이 난상 토론과 설득을 하며 약간은 거만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젠 싸움보다는 회유, 간접 설득에 주력하다보니 내가 약해진 것 같고 지나온 농수산팀 근무시절 순박한 섬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라는 푸념을 하기에 급급했다. 늘 집에 와서도 내색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자 내 성격을 잘 아는 아내가 나의 얼굴에 쓰여 있는 근심을 못 읽을 리가 없었다. 하루는 아내가

“요새 왜 그래? 며칠 지켜보니까 고민하는 얼굴로 집에 오고, 서빈이랑 노는 것을 보봐도 온통 신경은 다른데 가있고, 나 아닌 서빈이도 당신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이야? 사무실에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다. 다른 일 같으면 숨김 없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무실에서 힘든 일만큼은 아내에게 해주고 싶진 않았다.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가 유일하게 화풀이를 할 때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사무실에서 힘들고 어렵게 현장조사를 한다면 안쓰러워 바가지를 긁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면 내가 안쓰러워 마음에 응어리가 진 시어머니의 험담도 나에게 못하면 울화병

으로 도질 수 있고 힘든 시대 방문 후에 두통과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나의 성격을 잘 아는 아내가 바가지라도 굽거나, 말이라도 제때에 하여 풀기 위해선 내가 편한 상태로 있어야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직장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업체에 대해선 해결방안이 궁색하여 아내와 의논해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자 며칠이 지난 저녁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부부는 <베드 스토리>라는 시간이 있는데 서로간의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우린 그 시간을 이용해 철강공업 과장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내는 한참 듣더니 나에게

“자기가 통계에 대해선 잘 아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 할게 없어!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잘해 주셨던 곳인데 그런다는 것은 자기가 통계에 대한 이론과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닐 거야. 내 생각엔 공장도 먼 곳에 한개 더 생기고 과장 혼자서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다 보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 일이 힘들고 짜증나면 누구나 한번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자거나 다른 관공서에서 다그치기만 하면 나라도 『이젠 그만 조사해줄래요』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 자기가 월말에 시간을 내서 편안한 시간에 중구에 있는 공장으로 가봐.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비 오는 날 가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봐. 그리고 그날만큼은 얼어먹지 말고 이번에 엄마가 주신 유자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줄 테니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해봐, 여자 직감으론 괜찮은 사람 같고 인간적으로 이야기 하면 잘될 것 같아”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주었다.

나는 며칠 뒤 봄비 내리던 날 과장님이 중구에 있는 2공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쑥 찾아가 “과장님과 차 한 잔 하러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늘은 통계조사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님을 부각 시키려 쓴웃음도 지어보이고 다른 주위 직원에게도 아내가 직접 끓여준 감기에 좋은 3년 숙성된 유자차라며 한잔씩 건네고 나서 과장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보았다.

처음엔 유자차가 별 도움이 안 되고 단순 눈속임으로 인식되었구나 하였는데 10분정도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기관은 제가 정색을 하고 통계 증지를 이야기하니까 안 오던데 통계청은 참 끈질기고 대단하다고 안팎으로 저를 공략하시니 제가 졌어요. 사실 요즘 힘들고 회사에선 인원 보충도 안 되고 하여 짜증났고, 일도 잘 안되어 그랬어요. 통계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앞으로 또 계속 응답해 줄 테니 다음에는 차를 안 가져 오셔도 되요 걱정 마세요. 이젠 김선생 맘 알겠어요.”라는 말을 하셨다.

나는 펄 뜻이 기뻐다. 연신 고맙다는 말과 악수로 대신하였고, 그분 또한 진정 나의 아내가 끓여준 유자차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비가 오는데도 내차가 있는 20미터 거리를 같이 비를 맞으며 배웅 해 주었다. 통계청조사관으로 산다는 것이 때론 힘들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통계청의 진실과 성실성을 보여준다면 불용사업체도 설득이 되어 계속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힘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사는 즐거움과 보람일 것이다. 또한 조금이나마 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사는 즐거움일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제2경인고속도로처럼 내 가슴도 탁 트였다. 집에서 웃고 있을 사랑스런 나의 아내 내 인생의 자문자요 동반자이며 통계청 인천사무소의 무급가족종사자처럼 통계조사에 간접적으로 일익을 담당해준 아내가 자랑스럽고 고맙고 어여쁜 나의 아내 얼굴이 자꾸자꾸 봄비 내리는 차 앞 유리창에 어른거렸다.



돌고래와의 항해



손창호 | 인천통계사무소 경제조사과 |

그 여정이 그렇게까지 길고 험할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정도니까...

몇 년전...

당시 농수산팀에 몸담고 있던 나는 어업기본통계조사를 위해 대청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상당히 먼 거리이고 거기다 섬 지역이었지만 평소 업무상 배를 자주 타던 나로서는 처음엔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루에 한번밖에 없는 배를 타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눈곱만 겨우 떼고 전날 꾸려 놓은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부라 부라 연안부두 여객터미널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배 멀미를 대비해 국수 한 그릇을 말아먹고 귀미테를 붙이는 등 만반에 준비를 하고 배에 올랐다. 그러저럭 쾌찬은 날씨에 의자에 편히 앉아 드디어 출발...

그러나 얼마 안가서 바람이 심상치 않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서히 롤링(배가 아래위로 요동치는 현상)이 시작됐다. 느낌이 안 좋았다. 그러더니 결국엔 배가 더욱 심하게 롤링을 하면서 그 고통스럽다는 배멀미가 시작됐다. (배멀미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배멀미는 장난이 아니다. 어지럽기 시작함과 동시에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구토를 하게 되면서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된다. 차멀미와는 비교도 안 되며 한마디로 반 죽는다.) 결국 평소 배를 자주 타던 나도 귀미테까지 붙였지만 어쩔 수없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검은 비닐봉지에 고통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일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출발한 지 4시간30분 후...

내가 탄 배는 소청도를 지나 드디어 대청도에 도착했다. 최악의 컨디션으로 배에서 내려 숙소를 정한 후 짐을 풀었다. 나쁜 컨디션을 뒤로 하고 조사구로 나와 조사구역도를 확인하고 어가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그날 할 수 있는 분량의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그날은 일단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전날 만나지 못한 어가들을 마저 조사한 후 숙소로 돌아와 조사표를 정리하고 다음날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가지... 그 당시 숙박 섬출장을 자주 가던 나는 섬에 가면 으레 날씨부터 챙긴다. 내일날씨가 어떤지, 그래서 배가 뜰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역시 섬사람들에게 다음날 날씨부터 알아봤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바다날씨

라고 내일부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해 길게는 일주일동안 배가 못 뜰 것 같다는 말이 들렸다. 당연히 다음날 육지로 나가는 걸 상상하던 나로서는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떡해야 하나...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나는 다음날 날씨가 좋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섰다.

다음날 새벽4시... 밤잠을 설친 나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날씨부터 살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역시 뱃터는 짙은 안개와 은근히 강한 바람으로 뒤덮혀 있었다. 모든 배가 출항을 못한다는 것이다. 최악이었다.

잠깐동안 고민하던 나는 급히 뱃터에 있는 해양파출소로 뛰기 시작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다급한 마음에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꼭 나가야 한다.”고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하자 듣고 있던 관계자중 한명이 “그럼 나쁜 날씨에도 유일하게 다니는 배가 있는데 그거라도 타겠냐?”라고 물어왔다. 나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관계자가 잠시 후 혼잣말로 나즈막히 하는 말... “근데 그 배는 아주 느린데...”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느린데”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결국 난 그 배로 뛰어가 선장에게 사정을 얘기한 후 유일하게 출항한다는 그 배에 다행히 오를 수 있었다.

새벽5시... 드디어 대청도에서 연안부두로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내가 탄 배는 다름 아닌 기름을 싣고 다니는 유조선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청록색계통의 색깔에 로고가 쓰여 있는 자그마한 LG유조선... 그러나... 배가 느리게 달린다는 말을 듣고 땀만 느려도 그렇게 느릴 줄은 미처 몰랐다. 알고보니 안전상의 문제로 그런 종류의 배는 모두 느리게 달린다는 것이다. 배는 “km”가 아니라 “노트”라는 속도단위를 쓰는데 몇 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일반인이 조깅하는 수준의 속도였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약 시속 10km... “내가 뛰어도 이거보다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의 선택이나 다른 방법은 없었다. 무조건 가는 수밖에... 나의 긴 한숨소리와 함께 배는 그렇게 느릿느릿 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주변에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했다. 망망대해에 조그만 하나의 점처럼 내가 탄 배 한척만이 물살을 힘없이 가르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유조선...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 나... 그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헤엄치는 돌고래들...

“이래 가지고 언제 연안부두에 도착하나?”라는 혼잣말과 함께 결국 이가 박박 갈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놈에 조사원팔자...”

“이다음에 자식 낳으면 조사원은 절대 안 시킨다...”

“차라리 저 돌고래 등에 타고 가면 이거보단 빠를텐데...”

“아니면 헤엄쳐서 갈까...”

그 상황에선 딱히 할일도 없고, 얘기할 상대도 없고, 입을 책도 없고, 휴대폰도 안터지고 그저 선원들이 해주는 밥한끼 얻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몇 시간후 또 밥한끼 얻어 먹고 하늘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돌고래들 몇 마리인가 세어보고... 그래도 지루해 “돌고래들아... 너흰 어디로 가니?”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다 결국엔 시간관념이 사라지더니 더 이상 시계를 안 보게 됐다. 또 얼마나 지났을까... 가도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항해에서 물끄러미 배 앞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드디어 저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감출 수 없는 흥분에 나도 모르게 배 앞머리로 뛰어가서 외쳤다.

“우와~아아아~~~육지다...”

잠시 후 오후 5시 30분... 장장 정확히 12시간 30분동안의 돌고래와의 항해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연안부두에 도착했다. 끔찍했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깊은 한숨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며 육지에 떨어지는 발을 내딛게 됐다.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발을 내딛을 때의 감동도 과연 이거보다 더 했을까... 선장에게 배삯으로 얼마의 돈을 주며 떨어지는 목소리로 꾸벅 인사를 한 후 벽찬 가슴으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한쪽 구석으로 갔다. 그런데 보통 그런 배에는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쓰는 나무판대기같은 것이 있는데 이 배에는 그런 것도 없다... 할 수 없이 커다란 가방부터 땅바닥에 던진 후 뛰어내렸다. 근데 그때의 충격으로 가방안에 있던 휴대폰 액정화면이 깨져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손실까지... 허탈하고 황당하고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든 발걸음으로 여객터미널을 빠져나가며 나도 모르게 속으로 내뱉은 말...

“죽어도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

신랑의 용돈



박진영 | 기계조사대상가구: 충북 충주시 연수동 |

통계청과 인연이 닿아 가계부를 기장한 것이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통계청 직원이 방문하여 가계부를 써야 한다고 하였을 때는 저의 생활을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는게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고 불쾌해서 한참을 망설이다 통계청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는 가계부를 통해 정보도 얻고 지출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제가 출산을 하여 가족이 한명 늘어나면서 예전과는 다른 쓰임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신랑이 친구를 좋아해서 퇴근 후에 잦은 식사와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항상 신랑은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수입 보다는 지출액이 더 많아 가계부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와 남편은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얻었고

그에 따른 남다른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늦은 나이에 첫아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쓰면서 지출항목을 비교해보니 우리 집에서 많은 지출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집의 알뜰살림의 노하우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신랑이 친구들과 후배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남편 용돈에 대한 지출부분을 무심히 지나쳤는데 통계청 가계부를 작성하며 살펴보니 신랑 용돈이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자기 계발이 아닌 음주나 흡연에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보여주며 항목만 지출내역을 말해주었더니 본인도 놀라며 앞으로는 생활습관을 바꾸겠다 하고 그 후로는 담배도 줄이고 취미로 운동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금연”을 생각 중입니다. 이런 기특한 신랑에게 올 연말에는 통계청 사례금을 꼬박 꼬박 모아 놓은 돈으로 예쁜 선물을 하려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모아 놓은 돈이 어느새 목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족에게 건강과 취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준 통계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이별

성 윤 경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

벌써 계절은 깊은 가을로 가고 있네요. 월악산의 빛깔은 온통 색동옷으로 입혀갑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청과 접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그저 인구조사 하는 곳으로만 알던 제가 농가경제조사를 하면서 통계청이라는 곳이 단순히 인구조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 고추수확으로 정신없이 바빠 정말이지 아이들이 오는 것조차 귀찮을 때 옛된 아가씨가 와서는 통계청이 어떻고 농가경제 조사가 어떻고 하기에 모질게 보내 버렸습니다. 맘은 안 그랬는데 사정이 너무 힘든 때라 그렇게 보내구 나서 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 아가씨는 다시금 인사를 와서 통계청에 다니는 직원이라며 다시 세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제일로 조금은 미안한 탓에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나도 딸 가진 부모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그렇게 시작한 농가경제조사를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끝나려나.’ 하는 맘에 지켜워 중도에 포기할까 하는 맘에 그 여직원의 속을 무척이나 애태우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매일 농사일에 지쳐 돌아왔을 때 정말 짐 같이 느껴지는 일계부를 바라 보며 왜 하필 나였을까 하는 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는 여직원을 보며 멀리 떨어져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하는 딸들보다도 더 정이 들었습니다.

야채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보내고 인터넷에 나오는 시세 및 가격정보를 보려고 해도 볼 줄 몰라 찢찢매는 저에게 자세히 정보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있는 책자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 매달 지급되는 답례품도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옆집에서는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 착하고 이쁜 여직원이 자주 다녀가는 것이 무척이나 부러웠나 봅니다. 사실 시골에서 분가한 자식들이 자주 오기는 힘들기에 집에 손님이 오는걸 부러워들 하지요. 그래서 한번 하기로 맘먹으면 해보자 했습니다.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생활 10여년 동안 그저 옆집에서 받을 가면 따라 받을 같고 소독하면 따라 소독하고 지출도 그저 닥치는 대로만 생활해 왔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하기 싫고 귀찮아도 수입과 지출을 적어가면서 가계생활비도 파악이 되고 농약 및 비료를 구입 하면서 투입비용을 알게 되어 갔지요. 그러다 보니 소독한 날도

파악되고 비용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통계청이라는 말만 나오면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씩 오면 자랑삼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통계청 자료가 되어서 통계청에서 발표도 해주고 나라에서 우리 농가정책을 수립하고 농업문제를 연구한다 하지 않는가 하며 자랑을 했답니다.

어느덧 4계절을 5번을 보내고 나니 끝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너무도 서운합니다. 자식처럼 왔던 직원들도 이제는 안 올 것 이고 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후유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속상 하게 한 것도 같고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무리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다고는 하지만 헤어지기엔 만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행복하십시오.

뜨거운 햇살에 나가 일한 농부의 기쁨을 알기까지…….



김진경 | 충북통계사무소 옥천출장소 무기계약근로자 |

결혼 초 저의 시댁어머님은 농사를 지어 자식들이 내려 갈 때마다 고추, 콩, 참깨, 기름이며 마늘과 김치, 한해 먹을 양식에 조미까지 준비하여 자식들의 짐을 가득 채워 보내주셨습니다. 늘 주신 것이라 우리는 당연한 양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드리는 것이 효도 하는 것인 줄만 알고 받기만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자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했고…….

제가 통계청 임시조사원으로 일하며 농가경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뜨거운 피약벌에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만든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년 전 통계청에 들어와 어느 정도 선정된 농가를 만나 옆집 아줌마 같은 편한 마음으로 마을주민들을 대하여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대해주겠지 하는 속편한 생각만 가졌지 농사짓고 사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훈훈하고 정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표본선정에서 설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서야 아직도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이 겉모습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시내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있고 넉넉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농가경제 조사를 시작할 때 저야 따뜻한 밥과 잘 만들어 놓은 반찬에 손가락 올려 먹는데만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또 하나의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웬지 다른 여름보다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비 또한 하늘 뻥한 날 없이 내린 것 같습니다. 표본농가 선정 작업에서 구 지구는 1개리에서 10집만 선정되지만, 이번 신 표본은 2개리 5집을 선정하는 작업이라 제가 하는 곳은 1개리를 지나 3km 지나 사람이 살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한 집 한 집 하얀 종이에 이름을 넣어가며 요도를 그럴 때 날씨도 나를 반겨 주지 않는지 비만 하염없이 내려 하얀 종이가 빨갛게 물이 번져감에 내 마음도 빨갛게 번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시골은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지기에 힘은 들어도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게 할 수 있었지만, 옥천 시내부근에 선정된 표본을 조사함에 농가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만나기가 힘들고 만났어도 그분들의 냉담함은 내가 지금 시내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슴 아팠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조심스레 눌러 이번에 이곳이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로 선정되었음을 조심스레 얘기하기도 전에 “농사는 우리가

뜨거운 햇살에 나가 일한 농부의 기쁨을 알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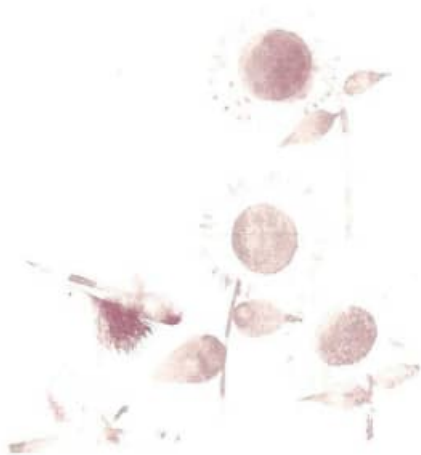
농사를 얼마나 짓는다고 그것도 남의땅 조금 짓는데 무슨 조사를 하냐고” 냉랭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세상살이 힘듦의 푸념까지 섞여 일계부의 내용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정년을 바라보며 일하는 아저씨와 일이 생길 때마다 가끔씩 일 나가시는 아주머니와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 곳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어땠고 하기가 무색한 가정이 한 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집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 들어가서 표본조사라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저씨는 저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내가 왜 그걸 해줘야하는지, 해줄 정신도 없으니 빨리 나가라”는 말만하고 고개를 돌려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그러게요 아저씨가 하기 싫다고 안하시면 그만이겠지만 저희들은 통계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은 해야겠죠? 그리고 나라의 중대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자료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버님 같은 똑똑하신 분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통계조사에 답할까요?”라고 같이 한숨만 쉬고 있으니 아저씨는 알 수 없는 병으로 부인을 잃은 지 49제가 엇그제였다며 아들도 그 충격으로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다고 내가 무슨 정신에 그런 것을 쓰고 있겠냐고 속상한 마음을 조금씩 보이시길래 나는 그냥 아저씨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같이 이해해 보고자 한 시간도 넘게 그분과 돌아가신 아주머니를 애도하며 혼자 살아계셔야 할 아저씨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사시는 길이 돌아가신 분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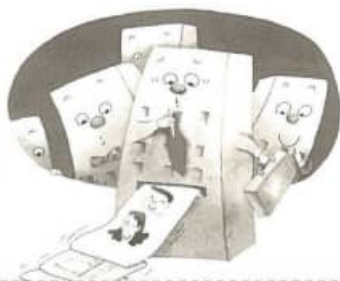
길이라 얘기하며 부담은 드리지 않겠지만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다시 찾아오겠다고 오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말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늦게까지 얘기해주는 그런 분은 그나마 저에게 불응이라는 아픔은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표본농가의 선정이 끝이 나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응답에 잘 해주실지는 아직 남아 있는 숙제이긴 하지만 표본농가 선정되기까지의 작업이 이렇게 가슴조이고 식은 땀나게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며 매년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오지만 올 여름이 그렇게 뜨겁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가을바람의 시원함과 상쾌함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 초에 받았던 어머니의 땀의 열매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면서 점점 주름이 늘어나신 시어머님께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며느리가 되어 그때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안부전화 한 번 더 드려야 겠네요…….



모범 답안지를 꿈꾸며...



신성자 | 충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기간제근로자

애들과 텅굴며 주말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을 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서울 작은 형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2005년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으니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다. 애들이 어리기에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형님의 권유에 용기를 내어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 당연히 서류에 합격되어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일 뿐이었다. 예비조사원으로 명단에 있으니 와서 교육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전화를 기다렸지만 조사가 시작될 때가 다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 사전조사 하루 전 날 오후 5시가 넘어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결원이 생겨 조사원으로 채용이 됐으니 오전 9시까지 동사무소로 출근하라고. 그렇게 통계조사라는 것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홍보가 잘 되어 협조는 잘 해 주었지만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조사표를 낼 때는 어느 때 보다 내 자신이 더욱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몇 달 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지역이 집 근처라 가까워서 좋았고 응답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시장에 가면 대형 마트에 밀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학원에 가면 최소의 원생수만 알려주고, 주점에 가면 처음에 손님인 줄 알았다가 통계조사를 하러 왔다면 싫은 내색을 드러내는 주인들도 있었다. 4월이라 저녁때가 되면 바람 불고 쌀쌀한 날씨라 추위에 떨며 영세 교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류 가게 연지 며칠 안 되는 분이 자기 가게에 들어와 커피라도 마시며 기다리라고 했다.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해야지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더니, 어느 날 다른 상호가 걸려 있었다. 착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1년 여간 통계청 문턱을 드나들다보니 나에게도 도급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임시 조사원이 되서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구를 맡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전 담당자에게서 조사구 인계를 받으러 갔다. 낮에는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기에 만날 수 있는 가구만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마쳤다. 아파트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라든가, 몇 호부터 몇 호까지라서 가구 특성까지는 파악은 못해도 조사 구역을 파악하는 데는 수월했다. 문제는 주택이었다. 학교 앞 주택가라서 주인집은 어찌해 기억한다고 해도 세 들어 사는 사람들까지 기억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당 건물 2층, 큰 개 키우는 집, 벽에 몰래 이름 새겨 놓기, 문에

나만의 암호도 적어가며 가구 파악을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첫 달 가구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답례품을 전달하려니, 답례품 무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다 여러 차례 확인을 해야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인사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다. 그래도 전 담당자와 안면이 있는 터라 문을 두드리면 쉽게 열려 얼굴을 익힐 수가 있었다. 3조사구중 한 조사구가 1월부터 연동을 시작해야되는 조사구였다. 전 담당자가 표본 확정을 해 둔 상태라 요도만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수월하다고 느꼈다. 첫 달 5가구 중 4가구는 면접을 했는데 1가구가 문제가 됐다. 앞집 할머니가 안면이 있으신 듯 나를 따라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으니 가구주는 호의적으로 대해주는데, 배우자의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묻고 연락처를 받아가기고 왔다. 다음 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빠뜨린 것이 있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통계청이 뭐 길래 남의 사생활을 다 캐어 가냐며, 내가 나온 뒤에 두 분이 다투셨다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음날 다시 한 번 찾아갔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엘리베이터에 돌이 남게 되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더니 어느 정도 마음이 수그러졌는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앞집 할머니와 시어머니께서 친구이신데 할머니 앞에서 이것 저것 물어보니 가정사를 다 드러내 놓는 것 같아서 싫으셨다는 거였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노라 다시 사과를 드렸고 지금은 가계부도 잘 적어주시고 협조도 잘 해주신다.

드디어 두 달째, 토요일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만나지 못해 일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갔다. 시골에 다녀오셨는지 쌀자루며, 호박이며, 짐 보따리를 잔뜩 들고 올라오시는 것이었다.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 면접을 시작했다. 가계부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이면 써 주겠지만 3년은 안된다고 하셨다. 사정을 말씀 드리고 다시 부탁 드렸더니 몇 달만 써 보겠노라 말씀하셨다. 아들은 군대 가고 두내외만 사시는지라 품목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 제발 누락 시키지 말고 자세히 써 달라고 반 쯤 울상을 지었더니, 올 까지만 아저씨가 쓰시고, 내년부터는 아주머니께서 쓰기로 하셨다고 했다.

낮에 집에 있는 가구가 많지 않은데, 안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벨을 눌렀다. 통계청에서 왔다고 말하자 “됐어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벨을 눌렀더니 더 큰소리로 화를 냈다. 용기를 내어 방문 목적을 말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욕설뿐이었다. 그렇게 두어 번을 더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주말에 다시 용기를 내어 찾아갔지만 집에 없었다. 2월이라 해도 빨리 지고 날도 풀리지 않아 두꺼운 점퍼를 입었어도 한기에 몸이 덜덜 떨렸다. 그렇게 2시간 쯤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부부와 여자 아이 셋이 내렸다. 너무 반가워 별떡 일어나 전에 방문 드렸던 통계청 직원이라고 말하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남편분이 옆에 계셔서인지, 나의 얼굴을 직접 봐서인지는 몰라도 전보다는 훨씬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 결혼해서부터 10년 넘게 가계부를 써왔다고 했다. 답례품을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미안했다고 하며, 한 번 써 보겠다고 흔쾌히 승낙 했다

1층에 서서 ‘하나, 둘, 셋 넷…….’ 층수를 세어가다 불이 꺼져 있으면 캄캄한 암흑세계로 바뀌고, 블라인드 사이로 조그만 불빛만 새어 나와도 아파트 전체에 불을 켜 놓은 듯 환하게 느껴진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다가도 기다리던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8월의 띄약벌 아래 서 있는 듯하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달갑지 않은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다가도, 멧쩍은 듯 미안하다는 한 마디가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려오기도 한다.

애기엄마 또 왔냐며 옥상에서 키우신 토마토를 주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매번 커피를 주시다 한 번 집을 비워 못 주신다며 경찰 봉투에 메모를 남기신분도 있고, 언제쯤 집에 있을테니 헛걸음 하지 말고 그날 오라고 전화주시는 분도 생겼다. 전화 보다는 문자를 보내면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오는 젊은 친구도 생겼고, 나와 같이 아이가 셋인 엄마도 만나 서로 아이 얘기에 푹 빠져 보기도 한다.

이렇게 10여 개월이 지나갔다. 조사에 누락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고, 변동 사항은 제대로 파악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곤 하지만 마감을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곤 한다. 방금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이 정답을 제대로 적었는지 몰라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모범답안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모범답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응가구에게 보내는 편지



경은숙 | 충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나 보다. 각종 성과를 체크하는 등 온 사무실이 술렁술렁 바쁘다. 나도 이제 2007년을 잘 갈무리하여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꽂아 놓을 때가 되었다.

올해 통계조사 업무가 14년째로, 3월 사무소 내 전보로 인해 고용팀장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모든 변화는 준비 없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내게 닥치는 듯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이 팀장 업무를 맡으며 화합으로 팀을 잘 이끌어 팀원들이 업무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팀장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팀장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얻은 점이 있다면, 미숙하나마 팀원의 현장조사 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나의 현장조사 업무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지도 점검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지도 업무를 수행하면 '과연 내 조사구는

어떨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 조사구 현장조사를 더욱 알뜰히 챙기게 된 것이 개인적인 큰 수확이다.

가구부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통 3조사구 60가구를 담당하게 되는데, 각종 업무총괄, 연동표본 설정 등 여러 업무가 매우 과중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표본대상가구를 설득하여 통계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통계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면 조사에 응해 주지만, 일회적인 조사가 아니라 한번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기본으로 3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돌아서 불응하게 될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것이 현장조사 직원들의 현실이다. 그 중 안내문과 인사장, 명함을 배부하며 면접을 시도하려 하지만 애초부터 거부하는 그야말로 골수 불응가구들이 있다. 팀원 지도점검 시 이런 가구를 방문하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면접 자체가 어려워 직원들의 불응가구 설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러한 가구들을 초반에 설득하지 않으면, 조사기간 내내 설득이 매우 어렵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통계청조사를 하찮은 것으로 퍼트리는 등 통계조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면접도 거부하고 애초에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불응가구의 설득을 위해서 ‘불응 가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통계청 총북통계사무소 경은숙입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여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 15세 이상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분석하여 각종 국가정책의 기본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국가 통계'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그 몫을 해 내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여 국제 사회에 제출할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용과 시간관계상 위와 같은 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시행할 수 없으므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귀 닥은 바로 그러한 소중한 표본 중 한 가구입니다.

귀 닥이 어떻게 표본가구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귀 닥에서도 2년 전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협조해 주셨을 겁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 전수조사에서 전국적으로 30,000가구를 뽑았고, 그에 따라 저희 충북사무소에서는 81개 조사구에서 1,600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본이 되신 것에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하여(모집단을 확률추정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 번 방문 드리고, 안내장을 배부하여 익히 알고 계시

불응가구에게 보내는 편지

겉지만, 저희가 통계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모두 데이터화하여 사용하고, 통계분석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 닥은 국민이 낸 귀중한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통계조사의 표본은 100% 응답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생활 실태를 추정하여 자료를 내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라살림의 기본을 꾸려 나갑니다. 불응하시는 가구가 있으면 이 자료가 흐트러지고 심한 경우에는 잘못된 나라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시는 데도 굳이 자꾸 찾아뵙는 이유는 바로 이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이 나라를 운영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 직원이 자주 찾아뵙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으시다면,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통계청 총북통계사무소 경은숙 드림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공동주택거주가구, 핵 가족, 맞벌이가구, 1인가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누구나 인식하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구부문 통계조사에 있어서 불응가구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응가구의 설득을 현장조사 직원 하나하나의 노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청차원에서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개인비밀 보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버지의 끈



정 동 섭 | 충북통계사무소 총주출장소 |

어릴 적에 동사무소 직원이 저희 집에 와서 인구조사 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다. 나도 크면 공무원이 되어 저 아저씨처럼 인구조사 해야지 하고 어렴풋이 생각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제대 후, 나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용돈이라도 벌어 쓸 양으로 다니던 중, 공무원 이시던 아버지의 친구 분 추천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 조사요원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옛말이 있지만, 저는 인구조사 하는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된 지금은 그저 씩씩한 미소만 입가에 머금을 뿐입니다.

그때는 통계조사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 통계 조사원이 되었지만 통계조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지를 조사를 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그래도 경제기획원하면 알아주던 때라 통계조사

하기가 좀 나았던 시절입니다. 사업체에서나 가구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몸 단정히 하고 깨끗한 양복입고 반짝 반짝한 구두신고 공무원 전용봉투에 조사표 넣고 어디든 가서 통계 조사해도 별무리 없이 통계조사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통계조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에서나 가구에서 문전박대는 보통이고 심지어 욕설에 나라 욕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통계조사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통계조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의식변화, 정부불신, 사생활침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통계조사에는 일가견이 있는 통계전문조사관인데.... 이런 와중에 제가 처음으로 농가경제 실태조사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곳은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하남이라는 충주에서 가장 오지 동네입니다. 강원도와 경계면에 있는 농촌입니다. 주로 담배와 밤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다년간 농가통계를 담당하신 분들이 말하길 5년 동안 일계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조사구요도를 그리고 농가의 기초조사를 하였는데 농가 대부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연로한 농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분들이 표본농가에 선정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일계부를 기입하고 농가경제조사에 응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은 가구가 선정 되길...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표본 대상가구를 받은 결과 3농가(1호,3호,5호)가 70이 넘으신 연로한 농가였습니다. 팀장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첫 번째 선정 농가를 설득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되든 안 되든 부딪쳐 보자고 마음먹고 명함·홍보 팸플릿을 들고 1호 농가부터 방문하였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농가경제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봐! 젊은이, 나라 정책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데 왜 하필 이런 늙은이가 사는 집인가? 뭔가를(일계부) 매일 써야 한하는데 눈도 어둡고 지금 농사일도 힘든데…….” 특히나 이젠 늙어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두 노부부가 사시는 가구인데 옆에서 할머니까지 못하겠노라고 장단을 맞춰주시니 할아버지께서 더욱 단호히 거절 하시더군요. 저는 어르신 절대 귀찮게 안 할 테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여쭙고 제가 일계부를 기장하겠노라고 설명드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영농일지와 가계부를 다시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고 제 명함 한 장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하고 황급히 떠나왔습니다. 3호 5호 농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짜고 고스톱 치듯이 거절하시는 말투나 이유가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순간 동네 이장님을 지목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초 조사할 때 별로 협조적이지 않던 이장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바로

이장 댁을 찾았습니다. 마침 이장님이 복숭아 선별작업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막무가내로 이장님께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장님! 이장님이 동네 분들한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협조하지 마시라고 귀뜸 했어요? 어째 하나같이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석은 면장님(5호농가)은 협조해 주실지 알았는데....” 순간 “이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5호농가가 면장님댁 이시라고요?” 저의 되묻는 말에 복숭아 솜털을 툭툭 털으시며 내게로 오시더니 10여년 전에 소태면장을 퇴직하신 분인데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 다른 가구는 몰라도 면장님은 협조해주시지 않을까 생각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스쳐가는 한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면장님의 연세가 적힌 기초조사표를 다시 보았습니다. 74세 저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장님께 저의 아버지께서도 옛날에 소태면 농민상담소장으로 근무하셨는데 혹시 서로 잘 아시는 분일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면장님 전화번호를 적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집으로 가 아버지께 사실 얘기를 하고 혹시 소태면 추치리에 사시는 이석은 면장님을 아시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 말에 반색을 하시며 석은이 소태면 산업계장할 때 내가 상담소장으로 몇 년간 같이 근무해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시면서 너 결혼식 때도 왔고 할아버지, 할머니 상 때도 왔었는데, 내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몇 년 못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묻는 것이었

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안부전화 한번 해 보시지요” 하였더니 주섬 주섬 개인 전화번호 기록부를 뒤척이시더니 전화를 하시는데, 어쩔 그리 서로 반가워하시던지 이산가족 상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소태면으로 이석은 어르신부터 찾아뵙고 자초 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주봉이(저의 아버지 존함)아들인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봐서라도 협조를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거기에 1호, 3호도 본인이 얘기해서 협조해 주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르신께 최대한 어려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바쁜 수확철이지만 통계청에 포로가 되신 주치리 5농가 열심히 영농일지·일계부 쓰고 계십니다. 설득과정에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결코 길지가 않구나 생각하면서, 지금도 통계조사에 열심이신 통계조사관님들 파이팅!!!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경수 | 충북통계사무소 육천출장소 |

오늘은 표본개편관련 광공업동태 신규사업체 설득 및 소급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 가는 날이다. 평소에는 세수 비누로 머리를 감았지만 집사람이 아껴 쓰는 향기 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턱수염도 1회용 면도기로 쓱쓱 밀고 나와서 화장대에서 스킨로션을 듬뿍 바르고 거울을 몇 번 보았지만 원래 험상궂은 얼굴에 까무잡잡한 얼굴이라 샤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킨냄새는 좋았다. 장롱 속에 흰 와이 셔츠를 입고 오랫동안 장롱 문짝에 걸어 두었던 넥타이가 네다섯개 있어 이것 저것 메어 봤지만 그래도 잔잔한 꽃무늬를 선택하였다. 촌스럽지만 나는 꽃무늬를 좋아하여 꽃무늬 잠바나 티셔츠가 많다. 양복상의를 걸치고 다시 거울을 보니 옷이 날개라 그런지 멋 있어 보였다. 화장대 거울에 집사람 얼굴이 보였다.

“오늘 왜이래?”

평소에 안하던 행동을 하니 이상했는가보다

“왜 그러기는 그냥....갈께” 말을 얼버무리고 현관을 나오는 내 뒤통수로 집사람의 모습이 의아하다는 듯 느낌을 받았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구두가 더러워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 뒷문 계단에 앉아 일회용 구두약을 아끼지 않고 듬뿍 묻히니 구두볼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사무실에 들어와 출장을 달고 협조공문, 소급조사표, 두꺼운 품목해설집 3권, 생산능력지침서 등을 챙기고 소장님에게

“출장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더니

“잘하고 와”하고 웃으셨다.

한 팔 가득 자료를 안아 차에 실고 출발하려다가 명함이 빠져 다시 사무실 들어가 명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처럼 각오를 다지고 힘차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다. 시작이 좋아야 하루일이 잘 풀리듯이 처음 간 사업체에서 잘해줘야 할 텐데 하면서 직물 제조하는 사업체 사무실 문을 힘차게 열고 다리와 목에 힘을 주고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하니 시선이 나에게 집중 되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본사에서 상무님이 나와 계셨다. 상무님, 공장장님, 나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 깔끔히 생긴 아가씨가 갖다 준 녹차를 마시며 본론에 들어갔다. 사업체를 다년간 다니다 보니 노하우가 조금 있었다. 사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해 얼버무리면 안되고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협조도가 높았다. 조사 목적 및 조사요령을 설명하였다.

30년간 직물제조업에서 근무하신 60대 초반 상무님은 내 머리

꼭대기에서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광공업동태 품목 중 품목분류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직물제조업이다. 의외로 상무님이 흔쾌히 말씀하셨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기관이니 해줘야죠! 공장장 자료 작성해서 보내드려” 머릿속이 환해졌다. 엔돌핀이 솟구친다. 그렇다고 내색을 하면 안 된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사업체 정문을 빠져나와 한가한 데다 차를 세우고 담배에 불을 붙여 깊숙이 들어 마시니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단전에서 올라 왔다. 그래, 처음 사업체가 잘 됐으니 다른 사업체도 잘 될 거야.

다음사업체는 안경렌즈 만드는 회사다. 명부 보완 때 나갔을 적에 젊은 이사님이 인상이 좋아 문제 없을거야 하면서 사업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사님은 안보이고 사장님이 계셨다. 반백에 60대 중반 사장님은 얼굴이 온화하고 눈매도 오너답게 중후함이 느껴졌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사장실에 들어 마주앉아 본론에 들어갔다. 광공업동태 조사 목적 및 취지를 말씀 드렸더니 모습에서 풍기는 온화함은 어디로 가고 의외로

“우리는 해줄 수 없습니다! 무슨 통계가 그리 많습니까? 노동부, 환경부, 도청, 군청, 중소기업청, 무슨연구소 한 두 번도 아니고 우리 직원 몇 명도 안 되는데 일은 안하고 통계만 내는데 시간을 다 보내 야만 됩니까?”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통계조사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한 있을 줄 알고 나왔으니까.

“통계를 작성하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 통계청은 통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통계청에서 많은 통계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공업동태 조사는 경제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표를 생산하는 통계인 만큼 꼭 하셔야 하니 협조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사장님 말씀이

“꼭 해야만 된다면 나는 중국으로 공장 옮길거야. 정부에서 혜택 주는 것은 없고 규제만 있고 만날 통계자료 해 줘봤자 우리공장에 혜택준게 뭐 있어! 노동부나 중소기업청 통계는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만 통계청은 아니잖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 빠르게 내 머리의 회로가 움직였다.

“사장님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세요. 사실은 통계청도 규제가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불응할 경우 과태로도 있고요 근래에 위에 지방 사업체가 불응해서 두어군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옆에 있는 J.C.S사업체등은 10년 이상을 조사하고 있고 자료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체에서 월말 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신 생산 출하 재고 인원 등을 그대로 저희 조사표에 기입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화제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장님실 벽에 십자가와 예수님달력이 있었다.

“사장님, 예수 믿는가 봅시다”

“예! 선생도 교회 다녀요?”

“저는 믿음이 약하고 집사람이 열심히입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PA교회 다닙니다!” 사장님은 교회장로셨다. 교회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하셨고 나는 맞장구를 쳐줬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말씀이 끝나지를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광공업동태가 문제다.

“다른 사업체를 가야 되어서 가봐야 됩니다. 사장님 자료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밖에 대고

“김 이사 들어오라고 해!” 저번에 본 이사가 들어왔다 “김 이사 저번에 통계청 선생한테 이야기 들었었는데 해줄 수 있어?” 이사님이 사장님 눈치를 보시더니 사장님 기분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 복잡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 드려!” 나를 보시더니

“대신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그 교회 목사 내가 잘 아니까 확인 할 거요” 하더니 웃으셨다.

“예!” 뻘구나. 또 한 번 단전이 환희로 요동친다.

“고맙습니다. 다음사업체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현관문까지 나오시더니 악수를 청하며 잘 가라고 손을 들어 올렸다. 10월 중순 저녁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을 들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인생은 기분에 죽고 사는구나.....

종이 한장의 실패



김 선 주 | 충북통계사무소 충주출장소 |

2005년 연동표본이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연동하면서 매번 여러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면서 회의와 보람을 번갈아 가면서 나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실패했던 일이다.

작년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새로운 내 연동 조사구는 첫 발을 내딛는 나에게 고요함과 적막함만이 느껴지게 하였다. 표본명부 작성할 때도 고생하여 정말 겁나는 조사구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로 맘을 다잡고 첫 구역을 방문하였더니 밤늦게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모든 가구를 만나서 기본 사항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였다. 순조로운 출발에 감사한 맘으로 희망을 갖고 2구역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폭탄이 터져 버렸다. 연동하기 전달에 이사 온 집이었는데 몇 번을 찾아갔지만 만나기가 힘들어서 말도 못하다가 저녁에 조사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조사를 하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과 표본선정된 것들을 설명하고 기본사항을 물었더니 어르신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 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따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일하므로 저녁 늦게 온다고 하여 그럼 리플렛을 두고 갈 테니 따님에게 보여 달라고 하고 리플렛을 두려했으나 다른 가구에 다 주고 여유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인사장이 없으니 내일 다시 갖고 따님이 계실 때 방문 드리겠다고 하고 그날의 방문을 마쳤다.

다음 날 찾아갔더니 딸을 만날 수가 없어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안한다고 요즘에 명함이나 인사장도 안 가져오는게 어디 있냐고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딸이 절대 하지말라고 해서 자신도 해줄 수 없다고 하셨다. 순간 노인가구라 아무 부담없이 인사장과 명함 등을 챙기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방문했던 것이 아차 싶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못해서 불용가구가 생겨 버린 것이다. 그 후로 할머니는 가게조사는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까지 불용을 해버렸다. 조사를 하면서 이웃집에서 알게 된 것은 딸은 원래 다른 곳에 있고 할머니만 여기서 사신다고 하셨다. 다른 불용가구가 있었지만 그 가구는 한 달 만에 다른 조사구역 가구와의 친분으로 설득하여 이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몇 달간 방문 드렸으나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집에 잘 계시지도 않고 운 좋게 만나도 완강히 거부하시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내 목소리만 들리면 피해 다니시기 바쁘셨다. 가게조사 회수율이 너무나 낮아 (연동 가게부 첫 회수율이 26.6% 미만) 꿈에서까지 시달리면서

가계부 설득 중이라 몸이 지치기도 했고 할머니에게는 좀 여유를 두고자 만나면 인사만 하고 조사에 관해서는 일체 얘기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다녔다. 인사하면서 얘기해도 답도 안하시고 나를 본체 만체 하실 때는 정말 속상하면서 내가 그 종이 한 장을 왜 안 챙겼을까 후회를 많이 하였다.

몇 달이 지났을까? 가을햇살에 따뜻함을 느끼던 어느 날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거~ 인사하나는 잘 하네” 하시면서 반응을 보이셨다. 어찌나 뿌듯하던지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은 듯하였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찾아갔을 때 집 앞 밭에 앉아서 밭을 고르고 계시길래 옆에 앉아서 또 한 번 열심히 떠들었다. 한 20분을 쪼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제야 속마음을 얘기하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본인은 세상에 마음을 닫았다고... 그리고 다시 왔을 때는 선물 들고 다녀서 보험회사 직원인줄 알았다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내 말은 다른 귀로 다 흘려 보내셨나보다. 어른들에게 통계청은 청계천이 되고 이해하기 힘든 곳인 것 같다. 그날은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들으면서 조사를 부탁하자 딸이 못하게 해서 안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한 거였다면서 아직은 선듯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 찾아오면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을 남기고 돌아왔다.

다음 달에 찾아갔더니 들어오라고 하면서 정말 조사에 응해주셨다. 기본조사는 물론 가계조사까지 해 주시기로 하셨다. 그 후로는

찾아갈 때마다 음료수며 빵도 주시고 정말 손녀처럼 잘해주셨다. 가계부도 너무나 훌륭히 작성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잘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 댁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일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또 하나의 소중한 연을 맺게 되었다.

살아가면서도 무심결에 또는 쉽게 생각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잊곤 한다. 나는 이 일로 그 기본을 챙기게 되었다. 가구에 나가기 전에 찬찬히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고 나갈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 차에도 항상 여유분을 비치해 둔다. 종이 한 장이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실수로 불용 가구를 만들지는 않게 되었다.



후회 없는 선택

김미정 | 충북통계사무소 총주출장소 |

통계청! 통계청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며 지금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누구보고 꼭 해야 한다고 의무감을 강조하냐며 통계조사는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문을 팡! 닫아 버리면 닫힌 문을 한참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도대체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일을 해야 되는지……. 나도 여느 공무원과 다름없는데 가정에서는 든든한 신랑과 재롱덩이인 두 딸아이의 엄마인데……. 정말 서글픈 생각이 밀려들면 이 통계일을 잘 선택했는지 후회할 때가 한두번도 아니다. 수십번, 수백번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건 남들이 말하는 그 놈의 정 때문인지 벌써 통계경력 14년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라는 직업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내가 10년이 넘으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사구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예전의 선배들이 했던 여유로운 마음과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점점 조사구 사람을 대하고 설득하는 일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자신 없어진다. 연동표본을 시작할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든다.

24평 소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의 대상 가구들……. 아파트 지대가 높아서인지 사람들의 성격이 어찌나 까칠한지 사람을 만나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면 아파트 계단에서 들리던 말소리나 TV소리가 순간 작아지거나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처음 연동조사를 시작하며 가계부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직도 그 가구의 아주머니가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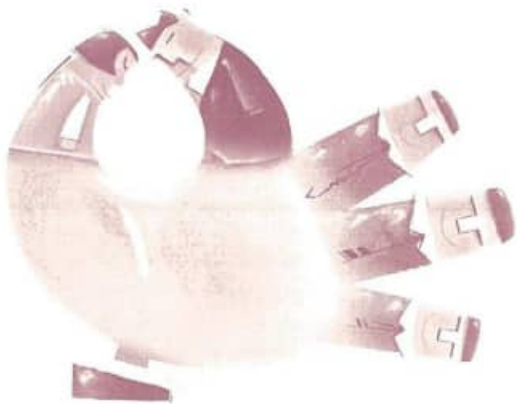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지난주에 일한 시간이며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제 살림살이까지 적어야 하나”며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주머니는 “절대 가계부를 적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가계부 얘기를 하려면 아예 오지도 말라고 협박까지 하셨다. 나는 너무나 흥분하며 말씀하시는 아주머니 앞에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며 그 집을 나왔다. 다음날 다시 방문 드렸지만 집에 계시지 않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 다음날도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메모지만 아파트 문에 붙여 놓고 왔다. 계속해서 며칠을 방문했지만 그날 이후로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퇴근 후에 다시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께서 아파트 문을 여시면서 지금 며느리가 아직 안 왔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면서 집안에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난 오늘 꼭 가계부 설득을 위해 아주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참 처량하다는 슬픈 생각이 밀려들어 오니 눈물이 절로 나왔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할머니께서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이시며 깜짝 놀라시는 표정으로 아직도 안 갔냐고 하시며 문을 살짝 열어 놓으시고 계단 아래로 내려 가시는 게 아닌가 난 문이 닫힐세라 집안으로 들어서며 “잠깐만 들어갈게요. 통계청에서 왔는데요. 가계부 때문에 방문 드렸어요. 잠깐이면 되거든요.”하며 집안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직도 안 갔냐 하시며 좀 누그러진 표정을 보이시며 얼른 집에 가라고 하셨다. 난 이때다 싶어 가계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약 8,700가구가 기장을 하고 있으며 아주머니가 쓰시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는지, 가계부에 기재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아주머니께서는 내가 밤늦게까지 다니는 게 안쓰러웠던지 알았다고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한번 써보겠다고 하시며 가계부를 놓고 가라고 심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난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가계부

쓰시다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향한 나의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아주머니께서는 꼬박 꼬박 가계부를 적으시며 내가 혹 빠진 내용이 있어 전화 드리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 해주신다.

지금도 또 다른 곳의 연동표본을 시작하고 있지만 항상 처음은 두려움이 앞선다. 나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가구 한 가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젠가는 불운했던 가구도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통계조사에 응해줄 거라는 나만의 최면을 걸며 희망을 가져본다. 통계조사를 한 기간보다 앞으로 통계 일을 해야 할 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내가 통계공무원을 선택한 일이 후회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통계청이 안겨준 행운



이성진 | 가계조사대상가구 : 김제시 신풍동 |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 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지출을 한다. 소득은 조절하기가 어렵지만 지출은 자기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한정된 소득으로 최고의 효용을 얻는 것이 경제생활의 기본원칙이다.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어렵게 지내지만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소비지출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기도 한다. 필요 없는 부분에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알뜰하게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올바른 계획적인 가계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가계부작성이다.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부터이다.

나는 형과 같이산다. 2월 초에 형과 나는 형 직장 문제로 2월 초에 전북 김제시 황산근로자 아파트로 이사오게 되었다. 형은 김제시 공무원이고 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이사 온 다음날 새로운 환경에 어색해하며 쉬고 있던 때 누군가 찾아왔다.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나왔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통계청에서 왔다니까

신기할 따름이었다. 통계청에서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왔을까 했는데 가계수지조사를 위해서 나에게 가계부를 써달라고 했다. 그 때 난 공무원 시험공부를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터라 가계부 쓸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통계청 직원은 시간 얼마 안 걸린다고 하면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 제대로 협조하여 가계부를 잘 작성하여야 국가경제 전체가구의 소비성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나를 설득했다.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라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협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공부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먼저 직원에게 가계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까 쉽게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켜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가계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플래시데모를 보거나 가계부작성요령에 대해 읽어보고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직접 사용해보았다. 사용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모르는게 있으면 그때 그때 통계청 직원분께 물어봐서 어려움을 해결하곤 하니 별 어려움 없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가계부 작성을 잘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 하루 지출과 수입내역을 기입 해 나갔다.

하루가 끝날 때면 형과 나는 습관처럼 가계부를 작성했다. 걱정과 달리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5분에서 10분정도면 하루 가계부 작성은 충분해서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를 쓰면서 알뜰한 소비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가계부 쓰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가계부를 쓰게 되더니 이제 돈 나가는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나는 원래 좀 잘 아끼는 편인데도 가계부 쓰면서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한달에 수입, 지출, 저축내역이 한눈에 보이고 매달마다 지출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보면서 '이번 달은 어디다 이렇게 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에는 예산 설정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류신발비 등 분야별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어느 분야에서 돈을 많이 썼고 또 저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매달 예산을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가계에 딱 맞는 알뜰한 소비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신문이나 TV에는 통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온다. 전에는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 내가 통계조사에 참여하고 보니 '아 이렇게 통계조사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계 경조사비가 현황 같은 통계결과에 대해 뉴스가 나오면 '저 통계조사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빙긋 웃으며 뿌듯해 하곤 한다. 그래서 더 꼼꼼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난 현재 공무원시험에 합격했고 7월 발령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쓴 경험으로 앞으로 수입을 예상해보고 짊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건실하게 가계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통계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가계부를 쓸 수 있게 기회를 준 통계청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신 통계청직원 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씩 쓰는 가계부? 일계부?



황진숙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익산시 중앙동1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부도 위기가 왔을 때쯤, 익산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작은 애냐? 일꾼이 모를 심어 놓고 일이 나 버렸다.”

“네? 무슨 일어요?”

“갑자기 죽어 부렸다.”

신랑도 신랑이지만 나는 셋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된지라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신랑의 판단이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무를 보고 있던 나보다 숲을 바라보는 신랑의 예견이 훨씬 현명했다.

“아버지! 저희가 빨리 정리되는 데로 내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 줄래?”

그렇게 우리는 서울 살림을 접고 전북 익산으로 내려와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에 초짜인 우리부부에겐 한해 농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다. 이듬해 농사를 시작하고 추수를 할 때 쯤 통계청이라며 낫선 남자가 '대표가구라나?' 하며 농사 짓는 것을 상세히 물어본다고 한다.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는 돈 등을 적어야 된다고 하며 '일계부' 라는 걸 놓고 간다. 뭐라고 쓰는 요령은 알려주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 이것 저것 여간 복잡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농사 짓는 게 서투르고 농지가 많다보니 이것 저것 큰 몫으로 나가는 것과 식구들이 많아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집의 사생활과 관련된 걸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떻게 하지? 내 개인사정도 그렇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고민이 많이 되긴 했지만, 나이도 큰아주버님 정도 되시는 분이 사정을 하는데, 참 민망하기도 하여 일단 승낙을 하였다.

일계부라는 걸 쓰다보니 보통일이 아니다 싶었다. 첨엔 부모님을 모시고 8필지가 넘는 농사를 지으며, 살림을 하다보니 내 가계부 작성도 힘들 지경이었다. 매일 매일 작성하긴 어렵고 하여 농사 짓는 사항은 대충 메모를 해드리고, 수입과 지출에 작성하는 사항은 내 가계부에서 옮겨 적는 식으로 하여 월말에 작성해 주는데, 담당자가 월중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 볼 때는 일계부 작성을 안한지라 얼른 가졌음 하는 맘이었다. 월말에 바빠서 옮겨 적어야 되는 가계부 내용을 늦게 적어서 다음날 통계청 직원이 다시 오기도 했다. 집안 청소하는데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

느닷없이 한번씩 가져오는 세제며, 샴푸는 식구들이 많아 우리

집에선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1년 남짓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1년 반쯤하다 보니 바뀐다. 그렇게 담당자가 몇 번 바뀌고 답례 품도 꼬박 꼬박 쌓여가며, 몇 해 하고 있을 때 담당자가 또 바뀌더니 이번에 여직원이었다. 전에 직원에 비해 이것 저것 물어봐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는데다가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는데 '알려줄 수 있는 만큼은 알려주자' 라고 생각하고 보니 땡벌에 애쓰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농사를 시작한지도 6년이 지나 갔고 일계부를 작성한지도 4년이 지나갔다. 전업농이 다 된 신랑. 메모에 대가가 되어 가고 있는 나. 내가 쓰는 가계부와 통계청에 제출하는 일계부, 내가 쓰는 농업수첩과 통계청 일계부의 작업사항란. . 두 번씩 쓰는 일도 올해만 한다고, 감사하다고 최근 집에 방문한 직원이 얘기해 준다. 마음은 '시원하다.' 생각이 들지만, 막상 또 안 오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직원이 왔다가면서 어머님과도 이런 저런 농사 짓는 얘기를 나누는데 서운해 하실 것도 같고..

암튼 어디를 가서 또 이런 일계부 조사를 하던지 땡벌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징그럽게 귀찮은 통계청



이 글 레 |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김제시 황산면 |

통계청 조사 응답을 하게 된 지 벌써 5년이 되어간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처음 한 여자 직원이 찾아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논에서 나락 베고 있는데 웬 여자가 통계청이라고 찾아와서는 책 하나를 건네 주면서 일계부를 써달라고 부탁 하더라구요. 뭔가 하고 들어보려 했더니 아니 우리집 논, 밭이 얼마나 있고,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집 개가 몇 마리 있는지까지 물어보더라구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래서 무조건 쫓아냈습니다. 우리 그런거 안한다고, 당신이 누군줄 알고 우리집 살림살이를 다 가르쳐주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한다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오더라구요. 한바탕 욕을 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젊은 여자한테 내가 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직원이 욕을 먹어도, 쫓아내도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처음에는 그게 더 귀찮았었는데 이 사람도 이게 직업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안됐다 싶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진작에 그냥 해준다고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보니 그 여자직원도 이런 조사가 처음인 것 같고, 저도 처음으로 하는 거라 처음에는 얼마나 펍펍했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어서 무엇을 심었고, 무슨 일을 했다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 듣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아휴, 그때 생각 하면 지금도 답답합니다.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처음에 그렇게 뭐라고 해서 내가 참 많이도 미웠을텐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하고, 무슨 일 있으면 걱정도 해주고,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나중에는 멀리 서울에 있는 우리 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느라 글자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글자 공부하면서 가계부를 5년 동안이나 쓰게 되었네요.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라도 일계부를 쓰지 않으면 화장실 가서 뒤 안 닦은 것처럼 꺼림칙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일계부를 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5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가나 생각 했었는데 이제 몇 달 뒤면 끝난다고 하니 시원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집을 거쳐 간 직원들하고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000직원,

000직원은 전화 자주 한다더니 전화도 안하네요. 참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나 표본이 바뀌어 일제부 쓰는 걸 그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 공책에다가 지금처럼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 쓴 일제부가 몇 년 쌓이다보니 살림에 제법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동안 통계청에서 매달 주는 선물도 고맙게 잘 썼었는데, 어쩔 그렇게 필요한 물건만 주시는지, 이제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네요.

징그럽게 귀찮았던 통계청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텔레비전 보면서 통계청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반가워서 유심히 더 쳐다볼 것 같네요.



가계부를 쓰기까지



박 관 숙 | 가계조사 대상가구: 부안군 부안읍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만 해도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거래되는 사건들이 빈번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조차도 나의 소중한 정보가 다른 곳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아 비협조적이고 성의 없이 답변을 했었고 이러한 편견은 한동안 계속 되었다. 더구나 해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면 이번에는 기필코 잘 써봐야지 크게 결심하고 한 삼일 열심히 쓰다가 그치고 마는 가계부조차도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부안에 이사를 오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게을렀던 생활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사 오면서 느꼈던 부안의 첫인상은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정감있는 주민들의 모습이었고 새로 이사 온 집도 앞뒤가 시원하게 뚫리고 전망이 참 좋은 집이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경제활동 가계조사의 대상가구라는 사실은 통계청 직원의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집의 가계부도 귀찮고 바빠서 못쓰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계부를 쓰라니 그것도 누군가가 - 비록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 나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사실이 선뜻 내키지 않았고 또한 나의 소중한 정보들이 누출되지 않으리라고 믿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사실 뉴스에서 보다보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인구조사 등 필요하고 유용한 조사를 많이 하지만 별로 관심 있게 보질 않았고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었는데 나 자신이 그러한 조사의 중심이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신기하고 애국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싶었다. 내가 쓴 가계부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국가의 기본 자료가 되고 또한 뉴스나 각종 매체의 자료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매년 작심삼일에 그치고 마는 나의 게으름도 한번 고쳐보고 싶었기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상가구에 응하기로 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번 써봐야지 하는 의욕이 넘쳐나서 재미도 있었고 또한 답례품도 새로운 것들로 매달 가져다주니 살림 늘어가는 재미도 만만치 않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쓰고 협조해 주었는데 이것도 한달 두달 지나니 월말이 왜 이다지도 빨리 오는지 금방 가계부 제출할 날이 다가오고 서둘러서 제출하면 또다시 월말이 닥쳐오니 점점 싫증이 나고 있었다. 한 다섯 달 쓰다보니 이제는

월말을 넘기기도 하고 애들 개학날이 다가오면 방학숙제를 한꺼번에 하듯이 아예 한달 분을 이삼일에 한꺼번에 다 쓰기도 하고 그나마 못 쓴 달은 전화로 불러주기까지 하는 등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썼던 가계부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몇 달동안의 기록이라면 기록이고 역사랄까? 그동안 기록했던 살림 살이며 콩나물 천원어치 샀던 것까지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 가만히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간의 지출내역까지 한번에 볼 수 있으니 이래서 가계부를 쓰는가 싶었다. 일기는 아닐지라도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무얼 먹었는지 어디에 지출했는지가 보이니 나의 소중한 기록이고 아름다운 과거라 생각이 든다.

그래!! 열심히 써보자!! 다시 한번 마을을 굳게 먹고 나의 기록, 나의 역사를 성의껏 써보기로 했다. 어차피 밖으로 보여 지는 것은 전체의 한 일부분일 뿐이라 나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게 없었다.

단지 제출용과 보관용 2부를 쓴다는 것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차피 한번 쓰나 두 번 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든다. 한번 쓰고자 마음 먹고 쓰기만 한다면 한 번 더 쓰는 일은 조금도 귀찮거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콩나물 천원, 관리비 사만삼천원 등 나의 일상, 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는 현재의 스승



배영민 | 전북통계사무소 경제조사과 |

통계청에 입사한지도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짧다고 하면 짧지만 길다고 하면 긴 세월이겠지요. 물론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선 짧은 시간이구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체험한 사례를 발표 할까 합니다.

저는 2002년 11월 1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광주에서 10월 한 달간 파트타임으로 농가경제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일계부 정리 및 입력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드디어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곳은 삼향 삼의라 불리우는 녹차의 고장 보성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전부터 보성은 녹차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속으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녹차밭을 구경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참을 가야만 구경을 했던 바다를

바로 옆에 두었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맡았던 곳은 고흥반도에 위치한 농가경제 조사구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곳. 살면서 처음으로 구경하는 곳. 너무나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왜 이리 좋은지~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랬지요. “와 좋네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되니 너무나 기뻐요~” 그러자 선배님이 하는 말 “지금이 제일 좋을 때지. 그 소리가 언제까지 갈까?”라고 하더군요. 전 솔직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한 조사구. 경치는 눈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나중에 후배가 들어 왔습니다. 그 후배도 저와 같은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선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 줬죠. 그 후배 역시 나중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 때는 신표본과 구표본을 같이 병행 조사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올해와 같은 상황이죠. 그 당시 제가 발령 받자마자 담당했던 업무는 농가경제 신표본조사, 구표본 관리, 어가경제 신표본조사 및 요도작성, 비계통통계조사 3개지역 신표본 선정 및 요도 작성, 어기본통계조사 1개 지역 조사하기, 농기본 통계조사 4개 지역 조사하기 등. 처음으로 통계청에 들어와 맡은 업무가 이러다 보니 정말 이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계청은 사무실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요도 작성하고, 밤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농가경제 일제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평균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요도를 작성하는데 일명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요도를 작성하는데 좀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하면 따라가서 요도를 그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시간은 금방 가더라구요.

보성 출장소에서 담당하던 지역은 보성, 고흥, 장흥이었습니다. 정말 경치가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경치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녹차 밭, 청정해역이라 소문난 고흥반도, 꼬막으로 유명한 벌교, 키조개 등 여러 해산물로 유명한 장흥... 이 지역은 단지 제가 일하는 일터였을 뿐입니다.

바닷가이어서 그런지 해산물은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회, 조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음식들. 제가 원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뭐 좀 먹고 가라고 하면 뿌리치지 못하고 먹고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농가경제 조사구에 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거절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같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보니 음식이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꾸역꾸역 다 먹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녁 때부터 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랍니다. 이 초겨울에 식중독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식중독이 맞습니다.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될 수 있으면 누가 먹고 가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농기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구에 가서 열심히 요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워져 사무실에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이러다보니 사무실 선배님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까지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비몽사몽으로 하루를 혼자 자취방에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역시 비몽사몽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프면 집 생각이 난다고 하던데... 전 집 생각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질 않더군요. 너무 아프다보니...

이렇게 있다가 보니 선배님이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같이 와서 밥을 차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잊지 못할 분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아쉽게도 남자였습니다~. 오해 마세요, 그분의 간호 덕에 3일째 낫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아프고,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이 일이 있는 후론 저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발령을 받은 지 2개월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이지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추억도 많았습니다. 보성의 가이드 하면 제 이름을 말할 정도로 저는 저희 출장소에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보성에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이드라니.. 보성에서는 영화촬영도 많이 하는데 그 중 유명한 배우 차인표가 와 영화를 찍고 있었다. 차인표하고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찍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입사한지 2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도 옮기게 되고, 사무실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잃은 게 있다면 그 때의 식중독으로 인하여 조개 종류를 아예 못 먹는다는 것이고, 얻은 게 있다면 말로 설명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가 있기에 현재의 제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과거가 현재의 스승인 것 같습니다.



유도 피아를 꿈꾸며!



오미숙 | 전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꿈길 같았던 나의 공직생활 28년! 79년 10월 공직생활에 몸담은 이후의 생활은 '통계'라는 함축된 단어에 나의 이상과 열정이 고스란히 베어있다.

20대의 젊은 시절엔 두려움이 없었던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것 같다. 내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낄 겨를도 없이 달리는 전차처럼 나아가기만 했던 것 같다.

30대에는 어땠을까? 내가 조사한 일계부가 한 달씩 마무리 되어질 때, 뿌듯함과 함께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해 보람과 나름대로의 성취감도 넘쳤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삶에 대한 무게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나의 40대의 통계생활은 그리 즐겁지 않은 않았던 것 같다.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국민(이용자)들의 통계 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응답자의 인식은 높아진 그 수준만큼 따라오지 못했던 건 아니었나 싶다. 조사환경이 열악해진 그 만큼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자의 입장은 더 고통스러웠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 조사대상자(응답자)가 동조해 주지 않으면 비표본오차를 줄이는 무결점에 다가 가고자 노력하는 나의 소망과는 대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자의 '뭣' 만으로는 안 되는 안타까움에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 온다.

특히나 일반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불만의 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요즘엔 옛날처럼 공무원에게 고분고분(?)하던 가구나 사업체는 더더욱 없다. 뭐든 공무원에게 큰소리치고, 불만스런 요구사항을 토해내면 다 해결 될 듯싶은지, 또는 개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요즘 세태엔 '왜 해 줘야 되느냐?' 며 막무가내 불응엔 참으로 막막 해진다. IMF 이후엔 서민층이 늘어나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많아져 가구 방문시 왜 그리 조심해야 되는지도 조사 여건이 어려워진 요인 중 하나가 된 것 같다.

임대APT 경찰 조사구를 담당하던 때의 상황이다. 가구주는 젊은 아내였고, 장기 실업자인 남편은 가정주부로 자리하고 있는 가구였다. 전임자에게서 아내가 없는 낮 시간대에만 방문하라는 주의사항을 들었지만 가구주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여(ex : 일용직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수시로 파악하여야 되는 부담이 많았는데, 남편은 사업체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조사구 인수를 받고 두 번째 달에 경제활동조사를 하는 실사기간동안 남편의 부재가 계속되었다. '아차! 이래선 안 되겠구나.' 싶어 귀청불능을 보고하고

집 앞에서 마냥 기다렸더니 7시쯤 아이 둘을 데리고 귀가하는 부인과 맞닥뜨렸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인데요.” 나의 인사에 미간의 흔들림조차 없는 무표정으로 그대로 철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농·어가경제조사 가구만 조사하다 처음으로 가구부문 조사를 담당했던 나는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렸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문 안쪽에서 아무런 기척을 느낄 수 없어 벨을 눌러보았다. 철문을 두들겨도 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농어를 담당할 때면 집에 없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는 사례는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 없는 사람(투명인간) 취급 받는 건 처음이었던 난 그 황당한 상황이 이해가 안됐다. 그래서 가구조사가 어렵다고 했었나 보다. 그 날은 나중을 기약하고 그냥 되돌아 와야만 했다.

이튿날 곧바로 방문하긴 좀 그래서 하루를 꾸~욱 참고 사흘째 저녁 8시쯤 그 가구를 다시 찾아갔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철문 앞에서 잠깐의 심호흡을 하는 동안 갑자기 피자배달원이 오더니 ‘딩동! Ding!’ 벨을 누른다. 남편의 장기부재로 늦은 저녁대신 피자를 시킨 것일까? 나도 그냥 모른 채 따라 들어가 본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뵈던 통계청 직원인데요. 어머! 참 미인이시네요.” 아예 얼굴에 첩판을 뒤집어 쓴 체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부드러워진 젊은 부인의 표정을 얼른 놓치지 않고, 연신 입을 놀렸다.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본데, 여쭙어 볼 일이 있어서 제 욕심만 부렸나 봐요.”

‘불응으로 가진 않겠지?’ 내심 조마조마했다. “저녁 안 드셨어요? 아저씨 어디 가셨나 봐요?” 눈치보며 묻는 내가 조금 안되어 보였던지 상냥하게 대답을 한다. ‘남편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잠시 출타 중이라는 등....’ 잠깐 동안의 부드러운 대화분위기 속에서 살짝 나의 목적을 드러내 본다. “그런데,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애들 때문에 맘이 편하지 않겠어요.”라는 격려에 순순히 남편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사업체관련사항등을 말해 주는 그녀를 보며, 늦은 시간에 젊은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사하는 내 자신보다 그녀가 더 안쓰럽다. 면담만 가능하다면, 응답자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요령도 많이 생겼지만, 오늘 이 가구 조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쩔 내겐 피자배달원과 함께 방문 할 수 있었던 행운은 아니었을까 싶다.

또 한번 가계조사의 신규 적격가구로 월중 전입된 노인부부 가구가 있었다. 시골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등 각종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든 대화가 큰소리 일색이다. 말만하면 다 정부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가계 수지사항을 물어볼라치면 혹여 자기네 집에 어떤 불이익이 올 줄 알고 노발대발 화부터 내신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때마침 멀리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딸이 와있었다. 교사라면 이해해 주리라 싶어 더 열심히 설명하고, 매달렸는데.... 그 선생님의 대답이란, “통계조사요,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꼭 해 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의무사항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골 노인들이 생활비를 얼마를 쓴다고

가계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배운 사람이, 알 만한 사람이 더 심하다 싶었다. 이대로 물려서면 이 가구의 설득은 무산되고 말 듯 싶어 강경하게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선생님,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제 명함이 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사무실로 확인해 보시구요. 여기 가계부에 보시듯 통계법에 따른 비밀엄수도 있지만, 국민의 의무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글씨를 모르시니까 제가 와서 받아 적겠다고 하는데, 국가의 녹을 받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거시기(?)한거 아닌가요?” 명함을 받는 딸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다. 결국 그 가구의 설득 열쇠는 그 딸이었던 것 같았다. 그 일이 있는 후 가계부 조사시 그때 그때마다 작은 실랑이는 벌어지지만, 설득엔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사구 표본교체가 이루어지는 9월이 다가온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오겠지...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또 설득하게 되겠지.... 우리 조사담당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절인 또 하나의 통계조사 결과물을 위하여 우린 나아가야만 하겠지....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지만, 언제쯤 응답자와 조사자와 이용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조사환경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조사담당자들의 유토피아를 상상해보며!!!

고난 속에 피는 꽃, 가계부!

장선남 | 전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2004년 10월, 처음 연동을 시작하는 조사구번호였기 때문에 10월부터 연동조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조사가구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었기에 별 두려움이 없이 준비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준비조사 작업도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조사구역 설정도 잘 된 것 같았고..... 그런데 문제는 가구관리명부 작성부터였다.

1층 8가구 2층 8가구 3층 4가구. 처음 2003년 조사구 설정시 이미 가장 협조도가 좋은 곳으로 선정된 지역이 기존 조사 구역이었기에 기존 구역보다 더 이상 협조도가 좋은 곳으로 선정될 수는 없었다. 나름대로 최상의 지역을 선택한다고 조정을 한곳이 1층, 2층, 3층 가구관리명부를 주말에 야외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도 하고 퇴근하고 밤에 차안에서 가구에 불이 켜지기를 바라면서 며칠을 잠복근무(?)도 하고... 19가구를 드디어 완성하고, 그 뿌듯함을

가슴엔 앓고 마지막 한 가구를 남겨두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2004년 12월 어느 겨울날, 마지막 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며칠을 방문하였지만 쉽게 방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 쉬운 듯한 준비조사 작업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어느 밤 희미하게 백열등만 켜놓은 창문을 보고 반가운 맘에 남편을 차안에 대기시켜 놓고 방문을 하였다. 늦은 밤 방문이 죄송하였기에 충분히 죄송한 맘을 아뢰며(?) 아저씨 혼자 계셔 두려운 맘을 다스리며 겨우 기초 조사를 하면서 마지막 학력을 조사하려던 찰나.... 인내에 한계를 느끼신 듯한 아저씨 갑자기 화를 내시며 신분증을 낚아채더니 거실 바닥에 딱지치듯 내팽개치시며 이 연약한 조사원을 현관으로 마구 끌어내셨다. 침부터 예감이 안 좋았기에 가방을 겨우 챙겨들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얼굴에 미소를 담고 넉죽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아주 비참한 심정을 다스리며 나올 수밖에..... 그리고 일주일 후에 통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동행 방문하였다.

초인종을 누르니 그때 그 아저씨 대뜸 쌍시옷 발음을 하시면서 쫓아 나오셨다. 으 무서워! 통장님과 실랑이를 하더니 통장님께도 거친 욕설을 거침없이 쏟아 부으며 위협을 하시니 통장님도 무서워 '걸음아 나 살려라' 둘이 일단 몸을 숨기는 수밖에.... 그때 통장님께서 그런 상황을 겪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후로 조사구에서 가끔 보면 이 조사관을 피하신다. (한 가구 기초 조사를 하기까지 수많은 사연은 본론 때문에 중간 생략함)

결국 그 아저씨를 피하여 다른 곳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아들을

수소문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아주머니와 연락을 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 시작. 1층 8가구, 2층 2가구 총 10가구 연동지역 교체로 인한 가계조사 구역으로 선정되었고 가계부 설득작업을 시작하였다. 1층 두 번째 가구까지 설득을 완료했는데 다음날 재 방문을 하니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법원 집달관들이 조사대상 가구에 들이 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아주머니는 통곡을 하시고 가장 협조도가 좋았던 가구가 가계부 시작도 하기 전에 가정 사정상 쫓겨나고, 그때부터 불길한 징조..... 3번째 가구 방문 아주 깎쟁이 같은 젊은 가구. (이 3번째 가구가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이 가구는 이 조사관과 같이 두 딸을 두고, 나이도 두 명 다 똑같고, 속으로 '뭔가 통 하겠구나' 싶어 반가운 맘에 공통 소재를 가지고 두 시간여 수다를 떨다가 가계부 얘기를 하니 안색이 완전 변하더니 '가계부는 절대 쓸 수 없다' 일언지하 거절하였다. 이런, 참! 어이없는 상황 발생.... 그래도 문을 열어주니 고마운 마음을 위안삼고 경제활동인구조만 겨우 조사하고 있는 상황.(당근! 가계부는 불응) 4번째 가구는 주말 부부 공무원가구로 처의 출산일이 임박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가계조사 시작 전에 출산을 하게 되어 병문안으로 아기 내의를 들고 방문하고 퇴원 때 또 다시 방문하여 겨우 설득.

5번째 가구 방문. 기초조사를 했던 가구라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였는데 아주머니 이미 지급했던 답례품을 가슴에 내팽개치며 현관으로 모질게 밀쳐내신다.... 아주 완강하다. 이 가구는 가구원

3명이 전부 완강한 불응. 밖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도 이 조사관이 마치 유명이라도 되는 듯 아는 체도 안하신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꾸도 없으시고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도 반응도 없으시고 팸플릿을 넣어도 핸드폰 문자를 넣어도, 전화를 하면 아무 말 없이 푹! 푹! 끊어버리신다.

중간 생략

8번째 가구 또 젊은 부부. 또 이 조사관과 비슷한 상황의 부부 이번엔 반갑지도 않다. 뜻밖에 사과도 깎아주고, 하지만 역시 가계부엔 불응. 1개월 후 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하였다. 둘째 아이가 3월에 입학예정이라 미리 학용품을 사들고 직장으로 방문하여 설득 시도 하였지만 완강한 불응이 이어지고 매달 답례품은 물론, 조사관 개인적으로 책을 선물하고 편지공세도 펼치며 간식도 사다 날랐으나 1년 동안 불응하던 중 2006년 1월부터 전자가계부 도입으로 그렇게 불응가구와 교전을 하던 중 일년을 두드리던 8번째 가구 전자가계부 5만원에 설득 성공을 하였다. (진짜 고마운 전자가계부)

9번째 가구 역시 불응. 밖에서 대기하다가 귀가시간 아파트에 불이 켜지면 얼른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니 불을 꺼버리고 대꾸가 없음. 밖에서 다시 한 시간을 대기하다가 불을 켜지니 다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통계청이라 하니 다시 불을 꺼버림. 다음달 직장으로 가니 역시 완강히 거부함. 2주 후 팀장님과 재 방문 하였으나 계속 시선을 맞추지 않고 불응. 현재까지 계속 불응. 다른 불응가구들

5만원에도 생활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눈도 깜짝 안하신다.

2005년 9월 가장 협조도 좋았던 10번째 가구 이사로 진출을 갔다. 2005년 11월말 10번째 전입가구 지금까지 상황보다 가장 강력한 불응 가구에 등극. 인구주택총조사 마저 불응.

3번째 가구 2005년 5월 건설업통계조사표 자료 내검 및 입력 요원에 강력 추천하여 사무실로 출근시켰다. 그러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그러나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6월 운수업 통계조사 입력요원은 안한다고 하셨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200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또 조사원에 도전하라고 설득하였지만 조사는 하기 싫다는 반응으로 불응 일관. 그 후로 1년여 동안 냉랭한 반응.

2006년 일년 만에 06.5.2~9(4일간) 건설업통계조사 자료입력원에 추천하여 출근하여 자료입력을 하였고, 서서히 반응이 오는가 싶었다.

2006년 5월말 5.22~5.31(중 5일간) 운수업통계조사에도 자료 내검 및 입력원에 추천하여 채용되었고, 2006.6.7~6.29중 가계 자산조사 자료내검 및 입력원에 또 추천하여 기존통계조사에 많이 응했던 다른 임시조사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서서히 설득하면서 팀장님과 같이 점심식사도 하면서 유대관계를 돈독히 쌓아가고, 거의 한달 동안 가계자산조사 자료 입력을 하면서 가계조사가 사생활 침해가 절대 되지 않고 중요한 자료가 됨을 깨닫고 남편을 설득하여 가계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설득의 서광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하였다.

6월분부터 써보겠다고 결심 하였으나 남편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 그래서 6월분부터 종이가계부를 쓰고 계신다.

3번째 가구의 처 그동안 내게 고생했다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악수를 청하셨다. 연동 3년 중 벌써 절반의 세월이 흘렀다. 대문도 안 열어주시는 완강한 불응가구들이 3번째 가구처럼 마음을 열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계속 대문을 두드리면 연동이 끝나기 전에 문을 열어주실까?

전국에 계신 불응가구와 고전하시고 계시는 많은 조사원 여러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조사도 잘됩니다.

조사관 여러분 파이팅 !!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송은정 | 전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본격적으로 통계조사를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이 되어 갑니다. 4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며 제가 느끼고 체험한 바를 글로써 써 보려 합니다.

처음 조사구에 가서 가구원들과 만날 때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응답을 잘해 주시는 가구를 만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사를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보면 조사해야 할 사항을 빠트리고 온 경우가 많아 다시 조사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가구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을 미리 메모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조사를 하니 가구에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제가 얻고자 하는 조사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구들은 3년 가까이 조사가 진행 되어서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연동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접하는 가구에서는 불응이 심하고 문조차 열어 주지 않으려는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들은 낮에는 만날 수가 없어 밤에 조사하러 갈 때가 많았는데 그마저도 밤 10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는 가구도 많았고 만난 가구도 순순히 협조해 주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 조사구는 그 당시에는 임대아파트이고 복도식인데 복도에 창을 만들지 않아 14층에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11월인데도 한겨울 같은 추위가 몰려와 밤에 방문할 때는 무섭기도 하고 무척 춥기도 했지만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하고 나면 모든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구에서는 제가 여러 번 방문 했는데 바쁘다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집 앞에 가니까 인기척이 들려 벨을 눌렀는데 그때부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다른 가구로 이동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조사구 16층에 사는 사람이 통계청 직원이 자꾸 방문하여 귀찮게 한다고 항의 전화가 왔다며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사구에는 15층까지 밖에 없는데, 본인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할 집은 인기척이 있었던 그 가구라고 확신하고 연동 조사구 이어서 기본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터라 마음은 복잡했지만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할 겸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구의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의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소리가 없던 가구에서 '지금 바빠요~~' 라며 인터폰으로 말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잠시 1분만 시간 내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고 착하게 생기신 아저씨 얼굴은 본 순간 아~ 이제 되었다!! 생각이 들자 저도 마음에 여유를 갖고 천천히 조사를 하려는 순간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아저씨의 하소연을 털어 놓기 시작 하더니 바쁘다던 가구에서 저를 붙잡고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추운 현관에 세워 둔 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고 정부 정치가 어떻고 부정적이고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1시간이나 넘게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하던 자세대로 쭈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리가 저려서 '일어섰다 앉았다' 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 일이 가구에서도 미안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통계조사에 조금은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가구에서는 다른 집을 조사하라며 완강히 거절했는데,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더니 다시 한번 물으니까 시택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타고 가시느냐고 물으니까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해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버스를 타러 한참을 걸어가야 하니까 마지못해 제 차를 탔습니다. 그 가구원은 터미널 까지만 태워다 줄 걸로 알았는데, 목적지인 시택 동네 안까지 모셔다

드렸더니 매우 고마워하며 그 후로는 조사에 조금씩 협조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가구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계조사도 해야 하는 가구인데 경제활동조사만 해 주겠다고 해 지속적인 답례품지급, 간곡한 설득 및 잦은 방문을 통해 드디어 가계부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동조사구에서의 일입니다. 가구명부도 작성되지 않아서 명부작성을 위하여 가구에 방문했습니다. “딩동”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바빠요~라는 소리만 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문을 열게 되어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초조사를 위해 가구주의 생년월일을 질문하고 받아 적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지우개를 들고 나와 받아 적었던 내용을 지우개로 지우며 기초조사도 해 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동 전에 가계부를 기록하다 이사 간 가구와 친분이 있었는데 엄청 귀찮아했다며 자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체가 싫으니까 다른 집이나 조사하라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계속적인 방문에도 응답을 회피하던 중 가구주가 있을 때 방문을 했더니 가구주가 문을 열어주어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기 남편을 끌어당기며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 끝에 가구주만 계신 틈을 타 가구명부 작성을 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만 가까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구는 가계부도 작성해야하는 가구인데 배우자가 있을 때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안 한다고 했죠?”라는 대답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가계부 불응한지 16개월이 되었을 때 그동안도 계속 방문하고 답례품을 놓고 왔던 탓인지 외출했다 들어오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시장에 다녀오세요?”라며 인사를 건넸더니 상냥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 사람대하는 자체가 싫다는 말이 생각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전자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례비로 오 만원을 드린다고 설명하고 아르바이트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써 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정말 끈질기다며 잠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무슨 수술을 했냐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목에 흉터를 보시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며 자기 동서도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힘들어한다며 괜찮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상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긴 다면서요!”라고 말씀하셔서 “약간은 관련이 있나 봐요!”라고 대답했더니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고 하시며 전자가계부를 한 번 써 보겠다고 해 혹시 맘이 변할까봐 그 자리에서 조사관에서 등록을 하고 컴퓨터에 자료를 다운받아 설명을 해 주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써보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구에서 나오는 저는 뿔 듯이 기쁘고 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계부 불응한지 16개월 만에 설득한 것이니까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말을 실감하고 통계조사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구특성상 젊은층이 많아 출산하는 가구가 많은데 출산 때마다 직접 병원으로 찾아 가서 아기 옷을 선물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니까 전에는 투명스럽게 대하던 가구들도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진심은 아무리 어려운 경우도 통하게 되나 봅니다. 조사구의 가구를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과 친절로서 대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통계조사 이지만 내일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저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하게 해주신 통계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0%에의 도전

정미화 | 전북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딩동! ding동!

예!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한 잔 하시고 가세요. 반갑게 맞아 주는 가구주!
오늘도 나의 하루는 “100%에의 도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북사무소 경제활동 인구·가계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원 정미화
입니다. 제가 2002년 10월 남원출장소 농가경제조사 조사원으로
근무한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농가경제의 농가를 인수받고, 조사공무원을
따라 다니며 조사요령을 배움에 정신이 없었으며, 농가의 어르신들
대하기가 어렵고 서먹서먹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니 정말로 세월이 유수(流水)와
같습니다.

내 고향도 농촌이라 친근감이 들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낯설기만

하는지 출장 내내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우선 이 일에 대한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고민하던 차에 순간 머릿속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먼저 표본농가(標本農家)와의 친분을 가져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중에 만나지 못한 농가와는 일과 후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자주 유대관계(紐帶關係)를 가지다 보니 저는 대부분 농가에서 낯선 방문객이 아닌 반가운 얼굴이 되었고, 또한 그 분들과 제 부모님 처럼 편하게 지내게 되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생겨 출장이 즐거웠던 날들을 자주 돌이키곤 합니다. 그렇게 3년 10개월을 남원 출장소에서 보내고 다시 전북사무소 조사원으로 경제활동 인구·가계조사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생소해서 자신이 없었지만 농가경제 조사경험이 있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북사무소에서 김제시 신평동의 표본조사 구를 인수 받아 조사 요령을 배우는데 연동, 산업직업 등 생소하기만한 단어를 접하고서 겁부터 났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도 할 수 있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조사를 하다 보니 불용 가구에 대한 설득력도 키워지고 일에 대한 보람과 함께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한 의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이였습니다.

어느 때처럼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다가와서 “삼천동 우성아파트 306호는 가계부를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하더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조사구는 내가 맡고 있는 조사구가 아닌가!’ 내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지 꿈이길 바랐고 마음속으로 내 조사구가 아니기를 바랐지만 원망스럽게도 그 가구는 분명 내 조사구였습니다. 어렵고도 어렵게 설득하여 한 달 가계부가 겨우 나온 곳 이었는데... 또 다시 설득 할 일이 너무도 막막하고 까마득하여 걱정부터 앞섰지만 한 번 더 부딪혀 보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새 내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뛰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지만 퇴근시간이 되어 조사구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벌벌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러 보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집안의 불은 분명 켜져 있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가구주 휴대폰으로 여러 번에 걸쳐 전화해 보았지만 분명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걸듯 삼고초려(三顧草廬)를 되뇌이며 포기하지 않고 초인종과 전화를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하였습니다.

한참을 지나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살며시 문을 여는 가구주를 보고서 너무도 반갑고 고마워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안 계시더군요” 하면서 손이라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를 건네며 “사무실로 전화 하셨어요?” 했더니 가구주는 “네! 제가 전화했어요. 스트레스 받아 가계부를 그만 쓰겠다.”고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하며 설득을 할 것인가 머릿속은 하얘지고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어지럽기만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되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내 동생뻘 되는 가구주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지만, 비통한 마음을 가다듬고 문전박대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구주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에 ‘좀 더 친절한 자세로 접근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 번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가계부를 기록 해주겠다는 가구주의 다짐을 받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모든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세! 만세! 정미화 파이팅!’ 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회수 하는 날이 드디어 다가 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하였는데 잘 정리된 가계부를 내어 주시며 하시는 말씀, “한가할 때 차 한 잔 같이 마시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내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으나,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한 가구 한 가구 설득하다보니 90%까지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불응한 가구를 설득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길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지난겨울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날 따뜻한 호빵을 사들고 방문하였으며, 어느 토요일 아이가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어 제 차안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때가 점심때인지라 점심을 같이 먹었던 일등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배우자의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불응가구와의 사이가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무렵 전자가계부 애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아주 쉬우니 해보시라고 권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게 한 다음 같이 가계부를 써보았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배우자께서 “아주 쉽네요.” 하시는 말씀에 저는 속으로 성공이구나! 외치며 쾌재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 결과 351019지역은 100%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351036지역이 남았습니다. 이 지역은 한가구만이 불응입니다. 답례품도 받기를 거부하는 가구이지만 아이들만 있을 때 살짝 놓고 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뒤 미안했던지 써주진 못하고 영수증만 모아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친정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공 드린 것은 아깝지만 어차피 불응가구이고 협조도 저조한지라 빨리 보내고 새로운 가구와 도전해 보는 것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새로 전입한 가구를 면접하는 날 가게부와 매니페스트 제도 등을 준비하여 방문하니 젊은 부부였습니다. 가게부 얘기를 했더니 “귀찮아서 쓰기 싫고 왜 내가 써야하는지”를 반문하여 재빨리 매니페스토 설문지를 꺼내어 읽어 드리고 가구주 앞에 내밀었더니 가구주는 재차 설문지를 읽는듯하더니 “꼭 써야 하는 것이냐”는 말에 “그럼요, 제가 잘 알려 드릴 테니 써보세요.”라고 자세히 안내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에게 기입지도를 하고 돌아왔다.

며칠 후 다시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하여 방문하였더니 아주 가지런히 잘 기입된 가게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로써 두 조사구 모두 “100%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년여 동안 한 가구 한 가구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때론 불응가구를 원망하기도 하곤 했지만 나의 진실된 마음과 불굴의 의지로 도전한 결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고, 세상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렵게 성공하면서 흘린 눈물이 나에게 강한 성취욕구와 새로운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구를 방문 할 때마다 첫 대면에서 느끼는 어색함과 초조함, 불확실한 부담감으로 지냈던 날들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100%에의 도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소극적으로 대하던 내 모습은 잊혀진지 오래고 지금은 일에 대한 자신감, 보람 및 재미도 생기고 간단한 농담정도는 던질 줄 아는 여유로움을 갖게 되어 가끔은 나 자신도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항상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부담스럽다며 불응한 가구, 친절히 대해 주신 가구, 힘들지만 어렵게 참여해주신 한 가구 한 가구 모두 제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잊지 못할 분들입니다.

끝으로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을 줄 모르는 원동력과 힘을 주신 가구 여러분! 그 분들과 소리 높여 '파이팅, 정미화!' 라고 외쳐 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의 "100%에의 도전"은 시작됩니다.



물 한잔의 훈훈한 정을 느끼며.

장길 호 | 전북통계사무소 남원출장소 |

때는 바야흐로 뜨거운 여름 어느날.

금방 서있기도 무척 힘든 폭염의 기습을 받아가며 조사현장에 도달했다. 조사구로 향하던 도중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우연한 만남이 이뤄졌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포근함이 느껴 지는 분들과의 만남이어서인지 미소로 눈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어디 나가세요? 하고 짧은 인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자 “밥은 먹었어? 우리 손자처럼 잘 생겼네” 하시면서 “응” 고추밭에 물좀 주러 나간다고 말씀하시던 검게 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흘러내리는 땀을 손으로 훔치시던 할아버지께서 더운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하고가 하시면서 건네주시던 그 물 한잔 그 물 맛은 지리산 청학동 3000m 암반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감이 있는 물맛이었다. 난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물 한잔이 그렇게 꿀 맛 같을 수가 없었다. 그 덕택인지 등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땀방울들이

어느새 사그러들어 조금이나마 그 할아버지 때문에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나서 일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조금씩 물어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어젠 무슨 일 하셨어요? 몸은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지난주 딸이 와서 자고 갔나요? 뭐 이것 저것 조금스레 물어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짜증한번 내시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로 응대하면서 상세하게 물음에 답해주셨다. 그런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오늘 하루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먹게 되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를 마치고 다음 농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집에 무슨일이라도 있었는지 아주머니 심기가 무척 불편해보였다. 나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면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아저씨께서 대뜸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다.

“이거 가져가!! 농사일도 신경 쓰기 바쁘데 이것까지 신경 쓰기 싫으니 가져가!!” 하시며 일계부를 마루에 던지셨다. 내심초사 마음속으로 5초만 헤아리게 되었다. 잠시 후 아저씨의 맘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었다. 물론 농사일로 바쁘시고 쓰기도 귀찮으신 줄 알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중히 일계부를 다시 건네 드렸다. 그러기를 이십분쯤... 장에 다녀오신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주머니 짐을 받아들여 방안에까지 옮겨드렸다. 아주머니께서는 겸연쩍으셨는지

밥은 먹었냐는 등 더운데 미수가루 한잔 하고 가라고 하셨다. 아저씨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하니 나가버리셨다. 아주머니께서는 어제 동네사람들과 안좋은 일이 있었다며 다음에 다시 한 번 들려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일이 있는 후 며칠 뒤 다시 한 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저씨는 안계시고 아주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고 계셨다. 아주머니께서는 “아이구 통계청 총각 왔네, 어서와”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길... “우리 집 양반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때 총각 보내놓고 좀 미안했던지 그 날 저녁에 연필을 찾더니 적기 시작하더라고 꼼꼼한 성격이라 잘 할 거야.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했던 거 같아”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아주머니 덕에 든든하게 점심도 얻어먹게 되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뵈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새털처럼 무척 가벼웠다. 힘든 조사 현장에서 이런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날씨 더운데 수고가 많아 사람들 없지? 어젠 아들이 왔다갔어. 두유도 사오고..”라며 응답도 잘해주시고 아들 대하듯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발걸음이 가벼운 조사현장이다.

오늘도 석양녘에 지는 일몰이 나의 두 주먹에 힘을 불끈 쥐어지게 한다. 힘내! 파이팅...

홍곡리의 다정한 정을 그려며



김 현 남 | 전북통계사무소 남원출장소 |

저의 조사구는 임실군 삼계면에 위치한 홍곡리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아늑하게 밀려오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을입구에 서있는 오래된 고목나무 한그루가 고적함을 자아내며 한 폭의 수묵화처럼 어르신들과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풍경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저는 2002년 10월 처음 3개월간 신 표본 예비조사를 하고 파트 타임으로 3개월, 그 후 다시 인연이 닿아 20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조사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시 일을 했던 곳이라 큰 낯 설음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 역시도 편안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듯이 저희 조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협조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조사 대상가구가 있었는데 바로 4호 택 경영주 아저씨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저씨 댁을 방문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배시시 열려 있는 대문을 살며시 열며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집안을 쳐다보니 아저씨께서 밭에 나가 실려고 경운기를 살피고 계시길래 열린 대문을 들어서며 “아저씨,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정작 아저씨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우리 집 안한다고 했는디 뭘라고 또 왔는가 귀찮게, 다른 집으로 옮겨부려, 만날 하는 일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 사는 것이 별다른 게 없는데 무엇을 말하라고 하” 하시며 목청을 높여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저씨는 호탕한 성격에다 술을 좋아하시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시는 편이라 매몰찬 성격이 아님을 알고 있는 저는 “공계 귀찮아서 어찌까요. 아저씨 귀찮게 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기왕 제가 왔으니까 몇 개만 열린 여쭙보고 갈게요.” 하면서 눈으로는 집안을 살피고 그날 아저씨에게 일어났던 나름대로의 기막힌 하루 동안의 사연들을 묻고 듣고 하며 조사를 하였는데 어느 날 아저씨께서 인천 아들네 댁에 다녀오시다가 버스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저씨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도하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다리와 목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계시는 아저씨가 보이길래 열린 달려가 “아저씨 저 왔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레 여쭙보니 특유의 큰 목소리로 “아파죽겠어. 나 얼굴 상처 난 것 좀 봐” 하시며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 난 얼굴을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통계청 아주머닌디 나를 아주 귀찮게 혀, 먹은 것, 입은 것, 쓴 것, 어디 갔다 온 것, 심은 것, 캔 것, 10원짜리 하나 쓴 것까지 전부 다 말해 줘야 돼” 하시며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 차례 병문안을 하고 퇴원을 시켜드리면서 각별한 정이 들었는지 이제는 최상의 협조도를 보여주시는데 어느날은 달력을 주욱 찢어서 여백에다 그날 하루 동안 생활하셨던 품목들과 기분이 좋았는지 나쁜지 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제가 조사구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회관 앞까지 일부러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날의 상황들을 알려주시고서야 외출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저씨가 진정한 통계의 주이공이시며 애국자이십니다.”하고 농담 섞인 감사함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뭐라고 다 설명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의 정을 베풀어 주시고, 때론 사람이 사는 정과 삶의 지혜까지도 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기업인은 소비자의 마음을, 조사원은 응답자의 마음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 소중한 농가의 어르신들과 마음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는 노력은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문득 돌아난 새싹에서 기다림의 미덕을 배우며 한발 한발 저의 미래를 쌓는 것

입니다.

조사자도 그냥 단순한 조사자가 아니라 연구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변하면 통계도 변합니다. 농가에서도 전년과 금년에 사는 삶이 똑같아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들 하시지만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못 느낄 뿐이지 분명히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느끼고 몸으로 부딪쳐서 잡고 기록하는 것이 통계가 아닐까 합니다. 도급 조사원으로 조사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의 소중한 체험들이 저를 좀 더 발전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구내 어르신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지 생각도 많이 해보고, 조금씩 이것 저것 도와 드리기도 하다 보니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보고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사구 어르신들 모두다 어느 한 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체계는 너무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다 편안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심과 농심



조 순 희 | 전북통계사무소 남원 출장소 |

모처럼 식구들과 주말여행을 나와 아름다운 사찰과 공원을 둘러 보는데 내 눈엔 유독 차 밖으로 보이는 모내기 끝낸 논들과 고추와 참깨, 꽃이 피기 시작한 감자가 심어져 있는 밭들의 평수만 세고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직업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2005년 8월에 농가경제조사를 시작했으니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처음 농가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빨리 농가와 친숙해지는게 좀 더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임을 깨달았다. 조사 기간이 2년 반 정도 흐른 시점이라 농가의 협조도가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새로 온 조사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농가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으로 농가의 특성을 빨리 파악해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1호 농가 공재석 아버님택은 모두 문맹이라 방문 시마다 우편물에

꽃아져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 쉽게 설명해 주었더니 지금은 먼저 우편물을 챙겨 나에게 상의하곤 한다. 2호 농가의 어머니와 10호 농가 어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10호 농가 방문 시 “훈이 엄마 뭐해?”하고 묻길래 생각 없이 “오늘 복숭아 밭에 일도와 주러 가셨어요.”했는데 며칠 뒤 2호 농가 어머니의 얼굴빛이 어두워 사정을 알아보니 남의 집 일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 몰래 일하셨다가 나로 인해 밝혀 진 것이 기분 나쁘신 것이었기에 거듭 사과 말씀드리고 그 뒤론 서로의 안부를 물음에도 각 가정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호 농가 아버님은 작년 쯤쯤가무시병으로 몇 달을 입원하신 후라 평상시 어머니가 거의 일을 도맡아 하신다. 과수원을 경영하여 봄이 되면 일손이 귀하기에 “일 있으면 연락 하세요.”했더니 “내일 복숭아 좀 싸 줘 잉”하고 전화가 온 것이다. 다음날 서둘러 새벽같이 나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도와드렸더니 그 뒤부터 일계부 기입란이 눈에 띄게 많아 졌다. 일이 서툴러 며칠씩 몸살로 고생해야 했지만 직접 작물재배 현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9호 농가는 제일 젊은 농가라 부인과 나는 나이가 두 살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경영지가 많아 일이 많았고 협조도도 갈수록 떨어지며, 방문시에도 만나기가 어려워 작성한 일계부와 전화로 힘겹게 조사 하던 중 식구들과 가깝게 사귀어보자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마침 초등학교생인 아들은 작은 시골 학교에서 친구 없이 늘 심심해했는데 우리 집으로 데려다

포레인 딸아이와 놀게 해주고 바쁜 농가를 대신하여 이밭도 시켜주었다. 시내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9호농가에 자주오시는데 1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어렵게 기다려 시내로 나가시곤 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춰 차로 자주 모셔 드리면서 9호농가와 가족과 모두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봄이면 딸기, 감자, 여름엔 수박등으로 하우스 작물이 많아 일손이 늘 필요한데 시간 날 때 마다 일을 도와드리면서 수확, 운반, 선별, 출하과정까지 직접 보고 노동시간과 자주 일을 도와주는 동생 부부의 일손돕기 시간, 점심을 직접 해 접대 횟수와 고용노동임금, 시간 등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조사를 정확히 조사 할 수 있었다. 특히 딸기는 품질과 맛이 좋아 직원들과의 직거래가 몇 번있었는데 이를 통해 농가는 매출에 도움이 되었고 직원들은 싱싱한 딸기를 싸게 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처음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 어색했던 어머니라는 호칭이 지금은 언니로 호칭이 바뀌고 높은 협조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이면 신표본으로 조사를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나로서는 두려움이 앞선다.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것이 농가경제조사라고 했던 말이 새삼 되뇌여진다. 처음엔 몰라도 겁도 안 나던데 이젠 농사철이 시작되어 논과 밭으로 일 나온 농가를 보면 일 년 농사 계획이 머리 속에 한 줄로 주욱 스쳐가면서 같이 한해 농사를 지을 마음에 조사항목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걱정해보곤 한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지금까지 일 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최선을 임한다면 신표본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봄이면 부끄러운 듯 피어나는 사과와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푸르게 물결치는 벼들, 가을엔 풍요롭게 열린 감과 밤, 익어가는 곡식들, 겨울이면 하얗게 덮은 솜이불처럼 포근한 눈, 이 모든 사계절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일 할 수 있는 농가경제조사야 말로 나의 천직이 아닌가 싶다.

노쇠한 몸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농가의 아버님 어머니를 보며 가을엔 풍년이 들어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퍼질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농심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SUN of MOON 17년.....



진 규 현의 가족 | 전북통계사무소 남원출장소 |

세월이 쓴 화살과 같이 달려간다고 했던가? 참 빠르게 지나간 세월인 듯하다. 공무원이라고 여느 공무원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업무만을 담당하는 일이 아닌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남편은 그동안 입사 이래 거의를 놓어준 농가경제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충남 서천에 입사 해 첨엔 눈, 발으로 여름 피약 별에도 1시간 거리를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녔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남편을 하는일을 들었을 때는 모내기를 해 놓고 벼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몇 개로 포기가 나뉘는지 가을철 벼가 익을 무렵에는 하나에 몇 개의 벼가 피어 여무는지를 조사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경제를 맡아 겨울철 매선 바닷바람을 맞으며 어촌경제 조사를 하고, 농가경제를 맡아 산 밑 농가까지 조사를 다니고 그렇게 충남에서의 농수산 통계를 담당하다 어렵게 도(道)를 넘어 전북에 와서도

고창으로 익산으로 거의 12~3년을 타향에서 지내다 2002년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와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편은 추위나 더위를 많이 못 견뎌 하는데 일년내내 농가로 어가로 출장을 다니는 일은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간 직장생활을 이야기하면 힘들기 짝이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행복한 무용담을 이야기하듯이 신이나서 말하는 남편을 보면 그래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 나 또한 뿌듯하고 행복해진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도 최근 사업체총조사나 기업총조사나 여러 이유로 통계 조사 요원들이 방문을 하는 기회가 잦았다. 내 남편이 그런 업무를 하기에 차를 한잔 대접하고 성의껏 조사에 응해 주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내를 해주고 싶지만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맘 한 구석에 약간은 귀찮은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 예전 일이지만 가끔 조사 가구가 부득이 바뀌게 될 때 못하겠다하는 표본농가에 사정하며 부탁하는 남편을 본 일이 있었기에 잘 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다.

2년 전 남편이 담당하고 있는 순창의 어느 조사 지역을 시간이 나서 남편을 따라 방문 했던 적이 있다.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내게 시원한 물을 권하며 남편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르신들이 농번기때 시내 나가기 어려울 때 심부름도 해주고 또 바쁠때는 일손을 도와 주기도 한다고... 참고로 남편은 집에서 농사라고는 손에 대본일도 없는 사람이다. 남편의 성격은 쉽게 속을

내 비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르신들과 이렇게 친하게 되기까지 본인 스스로가 노력했을 것 또한 생각하니 맘이 짠하게 생각 되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결혼하여 17여 년을 살면서 남편이 해 온 일에 대해 어떤 때 힘들어 보일때도... 본인의 노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같이 기뻐할 때도 있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흐른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남편...

남편의 성격은 나와는 정 반대로 꼼꼼하고 세심하고 속된 말로 쫄쫄한 성격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완벽하지 않으면 본인이 못견뎌 하고 본인이 해 놓은 일이 좀 어설피다 싶으면 두고 두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많이 투덜대기도 한다.

최근에 농가경제에서 경제사회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익히느라고 많이 힘도 들고 짜증도 나는 듯하다. 그동안 입사이래 그 업무만을 담당했기에 눈감고 할 수 있었겠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 어렵지 않게 표본농가들을 설득해 자료를 구할 수 있어 덜 힘들었기에 새 업무가 힘이 들겠지만 잘 해 낼꺼라고 생각한다. 남편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니 여보 너무 조급히 하지말고 또 나름의 노하우를 찾아 내세요.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하자구요...

여보 파이팅!!!!...

힘내세요.♡♡♡

소중한 만남

진영아 | 전북통계사무소 남원 출장소 |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6월의 어느 날 오전, 낯선 방문객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배하고 계시네요?”

“네, 누구신지?”

“통계청 직원인데, 이 지역 가계부 담당을 맡고 있어 마침 지나다 대문이 열려 있어 들르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쁜데요” 아침부터 도배한답시고 마루가득 벽지와 풀들에 서툰 솜씨로 벽지를 바르고 있었다.

“이곳 동네 가계부 담당을 맡고 있는데 한 가정이 가계부 기입을 못하게 되어서 부탁하려 합니다.”

“글쎄요, 낮에 직장일 마치고 오면 집안 일하랴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교사를 맡고 있어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려울 거 같아요” 일언지하 거절의 강한 뜻을 보였는데도 좀처럼 돌아설 것 같지 않아 보였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 달간 가정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빠짐 없이 그날 그날 가계부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계부 기입으로 인해 평소 우리 가정의 씬씀이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간식소비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편하고 빠르긴 하지만 무엇보다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아이들의 건강과 피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 되도록 누룽지, 부친게, 떡볶이로 간식을 만들게 되어 간식비를 줄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통계청과의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다. 작년 12월 다니던 직장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남원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인데다 농업위주의 지역이라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10~20년 동안 일하던 동료들은 직장이 폐업한다고 하자 아직도 자녀들이 학생인지라 일할 곳을 찾느라 힘들어 했다. 이럴 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곳 가계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통계청 조사원의 자리를 권유받게 되었다. 순간 나는 기쁘기보다 두려움이 컸다. 솔직히 나는 남보다 학벌도, 자랑할 만한 자격증도 없는데다 경험도 없어 그의 권유는 감히 다가서기 힘든 높은 벽처럼 여겨졌다.

생각해 보겠다고는 했으나 부족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친 언니처럼, 나의 사정을 알던 그는 주생면사무소 사회복지과로 찾아가 이것 저것

꼼꼼히 상의를 했다며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망설이는 나를 위해 직접 다른 곳과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 전망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용기를 주는게 아닌가. 하지만 선뜻 하겠다며 나서지 못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이런 나를 위해 자상하게 챙기는 그 공무원의 배려로 두려움 가운데 통계청 남원 출장소로 2006년 12월 18일 첫 출근을 하게 됐다.

‘농가경제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되어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추운 날씨라 사무실은 너무 추웠다. 더욱이 추운 날씨만큼 가뜰이나 웬지 공무원하면 권위적, 거만함으로만 여겼던 터라 나는 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의외로 모두들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게 하고 지침서를 많이 보라고 알려 주는게 아닌가. 조금씩 나의 마음도 차츰 따뜻하게 변하고 있는 봄처럼 그동안 거만하고 권위적으로 생각했던 공무원의 인식을 달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평소 농사는 커녕 밭작물을 가꾸시는 친정어머니를 도와 드린 적이 많지 않아 솔직히 농사에 관한 한 문외한이었던 것이다.

고들빼기김치를 담그려고 봄에 씨를 받아 고들빼기를 심어 두셨는데, 그게 모두 풀인 줄 알고 죄다 뽑아다 빨리 시들어 버리라고 일부러 햇볕에 말리질 않나, 숙갓씨 받으려고 햇볕에 말린 것을 태우려고 말리는 줄 알고 죄다 태워 버린 일, 씨 받으려고 일부러 키우던 고들빼기를 민들레로 착각하고 뽑아 내던 일... ‘농가경제조사’에 경험도, 지식도 없던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되었다.

농약의 이름은 왜 그리 많은지, 살충제라 해도 입제인지 유제인지를 알아야 하고 평당 얼마큼 사용하는지, 비료도 밑거름, 웃거름을 주는 사실, 껌은 씨앗 자체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다른 작물처럼 파종 전후 특별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지혜롭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고... 땅의 기온에 따라 배추와 무를 심고, 고추와 감자를 심는 지혜, 크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숨어내는 일, 성정에 나오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유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비유처럼 모두들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분들로 인해 자녀들은 학교도 다니고, 또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자녀들에게 보태 준 만큼 받겠다고 계산하거나 댓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들이 어찌면 땅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맡은 조사구는 시장과 가깝고, 공판장이 가깝기 때문에 일년 내내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당연히 농업노동 투입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기경이 뭔지 트랙터가 어떤 농기구인지 또 300평당 얼마큼의 노동시간을 투입하는지... 몇 달간은 정말 쉬운 일로 생각했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장롱면허로 서툰 운전 실력이던 나는 농가를 방문 할 때마다 왜이리 복잡하며, 어찌 작물은 또 군데군데 이것저것 다양하게 심어 놓았는지...

“오늘은 무슨 일을 했나요?”

“이쪽 밭 콩은 언제 심었나요?”

“비료는 얼마큼 뿌렸나요?” 모두들 귀찮아하지 않고 알려주신 반면, 행여 조사하여 세금이 높게 나올까 염려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모두들 부지런 하고 성실한 농가들이었다. 2월 달에 하우스 열무를 재배하던 농가에서 아직은 열무가 흔치 않으니, 생각하고 싸 주시길래 처음에 자전거로 다니던 나는 솔직히 가져올 것이 걱정돼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이 자전거 뒤에 실어 주시는 거였다. 울퉁불퉁한 도로위에서 몇 번이나 떨어트려 줍기를 여러 차례... 집에 와서 풀어보니 몇 차례 떨어지면서 으깨진 것도 있고 도로 위에 뿌리고 온 것도 많았다. 또 한 번은 고구마를 좋아해서 갈 때마다 삶아놓은 고구마를 맛있게 먹자 애써 수확한 고구마를 한 박스나 거저 주시는 정성에 다시 한번 가슴이 찡 해왔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딸기를 싸주셨는데 물론 오면서 소복이 담아주시던 딸기들은 덜컹거릴 때마다 푹, 푹 열심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도로이다 보니 주워 담을 수 없어 그냥 오게 되었다. 그 분의 인정만큼이나 소복이 담아 주시던 딸기는 다 떨어지고 반절만 남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딸기보다 더 달고 맛있게 먹었다.

모두들 인정이 많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 분들이 정말로 고맙고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미흡한게 많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도

다른 동료들처럼 잘 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을 지니고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오늘 하루를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맡은 일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 다짐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되새김질 해 본다.

이렇듯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소중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서로간의 신뢰감과 더욱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확신하게 된다. 조그마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길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



만남과 헤어짐 속의 15년



이 은 정 | 전북통계사무소 진안출장소 |

1992년 9월,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맡게 된 업무가 농가경제 조사였다. 농촌생활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한 농가조사 업무는 힘들다기 보다는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계장님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조사구로 향하는 길에 노랗게 물든 논외 벼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하였고 어언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 풍경은 잊혀지지 않는다. 9월에 입사하여 농가경제조사 표본 개편이라고 하여 새로운 농촌마을에서 표본 농가를 뽑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후로 표본개편 2번을 더하고, 2007년 올해 또 농가 경제조사 표본개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처음 업무를 시작한 후로 공무원답지 않고 창피한 업무라고 생각하여 타 기관으로 떠난 동기도 많다. 신기하게도 전출 가는 입사동기들을 보면서 서운하기는 하였어도 부럽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힘들고 불응하는 가구들로 인해 맘고생을 할 때는 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도 되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면 조사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농촌의 생활은 썩 나아지지 않았다. 그 때 당시 쌀 한가마에 12만원 했던 거 같은데 15년 후인 지금 겨우 3만원 인상된 15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투입되는 비료나 농약, 인건비, 기계값의 인상률을 생각하면 거의 이득이 없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것은 농촌의 후한 인심이다. 한 여름 땀벌에서 일을 하고 와서도 통계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저저거 묻고 귀찮게 하는 나에게 오히려 더운 날 조사 다닌다고 걱정을 하시고 선풍기도 틀어주시고 찬물이라도 한잔 잊지 않으시는 응답자분들을 보면 마음이 짱하다. 단순히 통계조사자와 응답자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15년 전에 만났던 부안의 산골 할머니는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마늘 한 접 싸주시고, 호두 농사지었다고 호두 한 박스 싸주시던 노총각아저씨, 그 어렵게 판 먹시감을 한접 흔쾌히 선물해 주시던 농가 아저씨. 지금도 격포로 놀러가면서 그 마을 근처를 가면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맺힌다.

성격이 너무나 꼼꼼하셔서 초기 폐암 판정을 박고 수술하고 오셔서 일제부 걱정 먼저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던 김제 백구 아저씨. 표본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2년 전에 담당하던 완주군 시설채소 지역에서는 도시근교라 응답자들이

쌀쌀 맞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담당해보니 명절에 떡값(물론 큰돈은 아니다. ㅎㅎ)까지 챙겨 주시는 호의를 베푸셔서 깜짝 놀라고 다음에 조그만 선물과 함께 돈을 돌려 드린 적도 있다. 그 때는 70넘으신 어르신 덕 두 분이 거의 경쟁적으로 잘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 현재 담당 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구는 무주 안성면에 위치한다. 무주는 완전 깡시골 일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변 면소재지에 마트며 정보화집이며 각종 문화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조사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깨어 있으시고 친절하시고 부지런하신 너무나 좋은 마을이다. 이 조사구를 맡은 지 겨우 한달이 지났을 때 몇 년 동안 담당한 지역 같은 생각이 들었으니 두말 할 것도 없다. 산간지역 특성상 각종 발작물을 심어 농사일이 엄청나게 많은 에도 불구하고 일계부 기장을 생활의 하나로 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항상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통계청이 국가 통계기관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다.

통계조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낸 분들과 표본이 개편된다는 이유로... 전출한다는 이유로 인수 인계만 하면 조사구를 떠나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듯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이다. 떠날 때 마음은 항상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야 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업무를 맡아 하다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만남은 좋아하지만 이별은 여전히 어렵다. 15년 경력인 지금도 그 점이 가장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 8월부터 표본개편작업이 시작

되면 신표본 준비조사니... 신품표본 병행조사니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현재 담당한 조사구를 다른 분에게 인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된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쁜 일정 속에 차곡차곡 모아둔 좋은 기억들을 지금처럼 가끔씩 꺼내어 보고 그리워하겠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힘차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아~ 통계청이여

심영자 | 전북통계사무소 진안출장소 |

올해로 통계조사를 시작한지 11년이 되간다. 초년에는 이런 직장도 있구나 두리번거렸고 선배들하는 조사 따라하느라 종종걸음 쳤고 그러는 와중에도 통계조사하면서 성취감도 느끼며 보람도 느끼며 나름 잘 지냈다고 자부했는데... 올해 들어 나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시련이라 함은 연동으로 인한 조사구 교체로 가계부 신규 가구 설득이었다. 침부터 시골이라고 만만하게 본 건 아니었지만 나의 마음 자세가 무방비 상태였는지 가계조사에 대한 가구들의 불응도 생각보다 거셌고 그만큼 나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앗사리 먹고 살만한 사람은 살만하니 국가 조사에 협조해준다고 한다지만 내 조사구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에서 해준게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맨날 나와 사람 귀찮게 하나며 공무원이면 나라 세금으로 봉급 받아가는거 아니냐며 그 따가운 눈총에 철통같던 나의 살들도 꺾꺾 빠지기 시작했다.

바로 구조사구와 담벼락 차이로 한집 건너 왔을 뿐인데 눈빛도 말투도 참 다르다. 첫인상 좋게 보이려고 한껏 멋을 내고 관련 공문과 답례품을 양손에 가득 들고 들어갔는데 모두들 냉담하시다. 주위에서 그동안 통계조사 해왔던거를 얼핏이라도 들어 아실텐데... 그래도 냉담하시다. 심지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 뭘 어떻게 하든 맘대로 하라며 그냥 대문 밖으로 날 밀쳐내신다. 그래 처음이라 신경 안쓰고 편하게 살다가 통계청 직원이라며 한달이면 몇 번씩 자기집을 드나 드는데 얼마나 신경쓰이고 피곤하시겠어. 내가 더 잘해야지 훌훌 털어버리려 해도 다음에 출장을 나가면 그 집 대문앞에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긴긴 한숨은 어쩔수가 없다. 동안 내가 겪어온 모든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설득해보려 해도 그럴수록 되려 우리집이 없어 보여 무시하나, 안받고 조사 안하겠다고는 왜 말귀를 못알아 듣냐, 사람 말이 우습게 들리냐 등 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 하루가 갈수록 연동 조사구 정착이 시급할수록 가계부 회수일이 다가올수록 내 속은 바짝 바짝 타들어갔다. 곁에서 지켜보던 후배는 보기에 딱해보였는지 조언해준다. “언니, 집집마다 불응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각각이 따로 해야 할 것 같어. 지금까지 방식처럼 무조건 공문 밀고 답례품 밀고 애원한다고 절대 안될 것 같어” 그래 맞다, 맞아. 내가 넘 무사안일하게 대처한거야. 별받은거야. 가계부 적격 중에 흔쾌히 한번 써보마 하는 집이 고작 3가구라니.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할일인가.

늘 인자하게 웃어주며 반겨주시는 친정엄마 같은 성당사모님.

그분은 필시 하늘에서 나를 위해 내려온 천사임에 틀림이 없어. 대화 도중 기회를 봐서 망설이며 내민 가계부를 보시며 “어 나도 전에 조사구 사람에게 들었어. 자기집도 이런걸 했다며 며 좀 신경쓰이고 불편은 하다고 하지만 나쁠건 없다고 그러더라구. 하지만 우리집 남편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월말에 받아본 가계부는 아저씨가 더 꼼꼼히 잘 적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 아랫집 새댁은 배시시 웃기만 하면서 “이런 통계조사도 있어요 살면서 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것두 행운아니겠어요. 잘부탁드립니다.” 그 새댁은 알뜰하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계부를 쓰고 있었던거였다. 왓싸,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자녀는 다 외지로 공부하러 나가고 임대수입과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아저씨는 자기도 군청에 있을때 통계를 좀 봤다며 차마 내치시지는 못하고 가계부를 작성해주셨는데 두어달 지나니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이젠 끝날때가 된거 아니냐며... 아뽀싸 기간이 넘길어 못하겠다고 불응할까봐 두려워 기간을 확실하게 말씀 안드렸더니... 겨우 우리 팀장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조 부탁 말씀드리니 그럼 알았노라 하신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러나 이제 겨우 3가구 설득이다. 예고고 아직도 나의 갈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내 조사구 불응 사례를 보면

집에 들어서면 화사한 정원이 주인부부의 마음도 이처럼 아름다우리라 생각했는데, 부부는 진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는 엉터리 통계라 그런 통계 조사에는 절대 응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30대 만크이나 완벽한 몸매와 미모를 가신 사모님은 늘 바쁘시다. 그 와중에도 살림은 또 어찌나 정갈하고 깨끗하던지 집에 빛이 난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남편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난 가계부 같은건 모르고 살았다고 이런 일이 아니여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왜 스트레스를 주냐고 하신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스트레스의 주범이라니 일보다도 좀 인간적으로다가 친하게 지내보아야지 싶어서 말을 걸어도 나만 보면 통계청 가계부 생각밖에 안난다며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하신다. 에휴, 넘 냉정하시다

한참 나이에 부인과 사업을 모두 잃은 아저씨는 교통사고(자살기도) 휴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데도 장애 등급을 못받았다고 한다. 아직 시집 안간 딸아이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당신 삶이 구차해서 타인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하루는 마지못해 응해주시다. 하루는 극도로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통계 조사랍시고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하나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도 서슴치 않고 하시고 그것도 분에 안풀려 눈앞에 띄면 죽이겠다고 까지 하신다. 욕을 먹어 서글픈 맘보다 아~ 아저씨를 그만 괴롭혀야지. 차라리 내가 괴롭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아랫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부부는 나름 이유가 있다. 늘 생활인으로 바쁘신데 요즈음은 자기차로 과일 장사를 하고 계신다. 새벽부터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니 전화 통화하기도 일부러 늦은

시간에 찾아가기도 미안할 일이다. 그 부부는 다른 사회통계조사표처럼 그런 응답은 해줘도 꾸준히 하는 가계부는 못하겠다고 단호하시다. 이깃 통계 대충 편집으로 가서 교체해서 해도 별반 어려움이 없겠구만 꼭 우리집만 와서 이 야단이나며 아예 표본 가구 대체도 직접 해주신다. 몇 번을 사정하고 부탁하고 졸라보고 막무가내시다. 아마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막무가내일 것이다. 죄송한 맘뿐이다.

맞다. 내 조사구에는 여러 유형의 불응가구가 있다. 자기집에는 발도 못들이게 하는 완전 봉쇄형 가구, 사람은 호인인데 정부조사는 응하고 싶지않다는 사람, 안타깝게형 가구, 나도 먹고 살기 복잡하니 제발 자기네 사정을 먼저 좀 봐달라는 되려 애원형 가구,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며 인생무상형.

난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건 신경전을 벌이는지 가끔은 망각하고 싶다. 그마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준다. 그러나 그집 아직도야? 더운데 애쓰네. 점심은 먹었어? 이리와 같이 밥먹자고 챙겨주시는 천사표 사모님, 내가 동네 사람들마다 죄다 홍보했어 응원해주시는 이장님, 가끔 좋은 선물도 주고 늙은이 외롭지 않게 말도 걸어주고 참 좋구만 왜 싫다고들 그러냐며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 내가 동네 다방을 하고있지만 이런 조사는 국민들이 딱딱 밀어줘야 한다며 성격 시원시원한 마담 언니, 정년 퇴직하고 집에만 있는 늙은이가 먼 통계조사에 도움이 되겠냐며 겸손하신 교장 선생님, 첨엔 세금떠러 나온줄 알았다며 경계심을

플지 않던 서울 언니, 모두들 나에게서 친정식구 같이 정겹고 고마운 이웃들이시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친정집에 가서 기운 얻어 다시 돌아오듯 난 오늘도 그들에게 사랑과 힘을 얻어 다시 도전한다

그래 조금만 더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꼭 일관계가 아니어도 좋아 난 전주사람 그분들은 무주사람 거리가 얼마나 먼데 우리가 보통 인연인가 밀기고 당기는 인연이 보통 연애하는 사이보다 더 진하다. 짝사랑 하다보면 님께서도 내 본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동안 무심했다며 나를 바라봐주는 날이 오겠지 행복한 그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며 열악한 조사 환경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통계청 조사 직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조사원의 좌충우돌 체험기



이 현 화 | 제주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보러 가던 날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난다. 지금도 제주통계사무소 구청사 앞을 지날 때면 기분이 묘해지면서 아직도 떨리는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면접시간에 맞춰 제주통계사무소로 들어갈 때 까지만 해도 나는 자신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때 나는 조사원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조사원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란 생각은 해 본적도 없었던 터라 자신있게 면접 대기실로 들어섰다. 대기실에 첫발을 들인 순간 나는 '팡' 하고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대기실에는 내게 익숙한 얼굴들도 몇 명 눈에 들어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대화의 일부를 들어보니 쟁쟁한 경력에 알고 있는 인맥까지 이걸 시작해 볼 필요조차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 자신있게 들어 설때의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이젠 서서히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지원서 낸 것 자체를 후회하면서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릴까 어차피 안 될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쯤 기획과 직원이 와서 (지금 보니 그분이 명륜씨 였나보다) 면접을 보는데 즉흥 역할극을 할 거란다. 잠시 대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 역시 자포자기한 상태지만 역할극이란 말에 면접에 대한 호기심과 설레임, 긴장감까지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리 흥가분해 보이진 않았고, 나 역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조차 떠올리지 못할 만큼 긴장해 있었다. 창피할 따름이었다. 여전히 몇몇 사람은 자신감에 찬 얼굴로 많은 대기자들의 기를 팍팍 죽이고 있었다.

면접을 조용히 마치고 나는 아는 몇몇 사람에게 먼저 간다고 하고 축 처진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그 길로 나는 면접의 악몽을 잊으려고 언니 가게로 가서 한참 수다를 떨고, 다시 친구에게 가서 쇼핑하자고 졸라서 그 기억을 잊으려고 애를 썼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오늘 면접 어땠어?' 라고 묻는 말에도 나는 단호히 "안됐어"라고 내 자신에게조차 조금의 기대심리조차 묵살시켜 놓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하리만큼 그 기억은 잊혀져갔고 다음날은 아예 전날의 기억은 완전히 잊고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다. 한통의 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제주 통계사무소란다. 그리고 합격했으니 3월 2일 10시까지 지방 합동청사 5층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고 다시 물었다. “정말 합격했어요?”, “정말요?” 그랬더니 남자 직원은 농담삼아 “그럼 합격 취소할까요?”라고 했고 나는 흥분이 최고조에 이른 목소리로 “아니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수화기를 내려 놓고 나는 터져 나올 것 같은 내 입을 막고 거실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남편에게, 친정엄마에게, 언니에게, 어제 쇼핑가자고 즐랐던 친구에게 열심히 전화를 했다. 이렇게 나의 조사원 생활은 시작은 시작되었다.

나는 나중에야 나 같은 왕초보 조사원을 뽑는데 무리수를 두신 관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관리자 역시 최상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려 애쓸 것이고 그게 곧 관리자들의 능력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이다. 안면도 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놔두고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를 뽑는 무리수를 둔 것은 분명히 내게 관리자가 요구하는 능력을 발휘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테니 그분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신입 조사원은 나를 포함해서 4명, 우린 서로 의지하면서 조사원 생활을 하루하루 해 나갔다. 지금은 3명이 남아있지만... 처음 나에게 주어진 조사구 업무는 가계조사 2조사구, 경제활동인구조사 3조사구였다. 그런데 가계조사 하나가 이제 막 연동이 시작되어 다음달부터 가계부가 나와야 한단다. 연동이 뭔지 가계조사가 뭔지 경황이

뭔지 용어조차도 제대로 모른 채 현장업무가 시작되었고, 모르는 단어가 자꾸 튀어 나올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러다 업무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 쫓아 갈까봐 불안의 연속이었다. 어쨌든 전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모든 조사구를 시찰하고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담당자가 바뀌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 한마디 표정하나 조심 스러웠고, 더 내게 가르쳐 줄게 없는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다음달부터 새로 연동된 조사구에서 가계부가 나와야 한다는데 아직 가계부 설득이 안 된 상태였다. 그게 내 첫 업무이자 나 자신에게도 첫 테스트였다.

가계부 설득!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냥 제 할일을 자기가 알아서 차곡차곡 각자 맡은 업무만 할 따름이고 신입에 대한 배려는 너무 서운할 정도로 싸늘했다. 어쨌든 여기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기에 옆자리 선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열심히 따라하고 물어보고 멀리서하는 대화내용이라도 들어야했기에 모든 신경이 긴장하고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주저앉을 만큼 녹초가 돼있었고, 미리 미리 챙겨야 할것은 없는지 지침서를 몇 번을 받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도 해가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챙겨주는 동료이자 선배가 생기기도 했다. 조사원 업무 중에 가장 어렵다는 '가계부 설득'을 이 신참이 통과해야할 업무인 것이다.

전 담당자가 미리 몇 군데는 설득해 놓은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적격 가구 중 3가구가 아직 설득이 안 된 상태이고 모두 30대 중반의 젊은 가구였다.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배워야 했기에 가계설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불안했고, 나는 남들이 쉬는 주말을 이용했다. 3가구 중 1가구는 아이가 림프성 종양을 앓고 있는 가구였다. 너무나 난감했다. 아이가 아파 그것만도 신경 쓸 겨를 없는 가구에 어떻게 가계부를 써달라고 얘기해야 할지 나였어도 이견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은 일하기에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지만 역시 예견된 대로였고, 차츰 나도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인지 팀장님의 동행 출장하여 오래된 노하우와 설득 덕에 조금씩 그 가구의 마음이 움직였고 “한번 써보겠다”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새삼 팀장님이 대단해 보였고 다음부터 내 힘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아야지 하는 용기가 생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구는 얼마 못가 가구주가 아이의 병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주신 과수원을 맡아하게 되면서 가계부 부적격 가구가 돼버렸다.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가면 도란도란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한다. 내게 시간이 짧아 오래 머물 수 없는 게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가구는 앞, 뒷집에 사는 동서지간이다. 여기는 한집이 거부하면 같이 거부하는 양상이었고, 온 가족이 절대 반대하고 계셨다. 작은 동서가 시부모님과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반대가 더욱 심했다. 1년도 아니고 3년을

에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설득하려 방문하면 한 분 한 분 어디 숨었다가 나타나서 한마디씩 거드셨다. 도저히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날씨는 점점 가계부 배부해야 할 말일이 다 돼가고 속이 바짝 바짝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나는 일주일 정도는 매일 출근도장을 찍었다. 오전에 며느님이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3, 4일쯤 지나서부터 조금씩 내가 와도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안쓰러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때다 싶어 나는 주변이야기며 애 키우는 이야기며 주저리 주저리 앉아서 한참을 말동무를 해드렸더니 일어서서 냉장고로 가시더니 쥬스 한잔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아 이제 됐구나' 하는 안도감과 내가 너무 기특했다. 다음날 며느님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또 다시 방문했다. 그렇게 거절하던 며느님도 시어머니 옆에서 거두시는 말 한마디에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조금은 물러서가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아예 가계부를 들고 다시 방문했다. 그리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계부를 꺼내들고 차근차근 기입방법을 설명해 나갔다. 흔쾌히 쓰겠다고 대답도 하지 않던 며느님은 어느새 열심히 내 설명을 듣고 질문까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내 힘으로 설득에 성공했고 그 용기로 앞집에 사는 형님 댁에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답례품까지 거부하던 형님 댁도 잘 써 질지 모르겠다고 가계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첫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 지금은 형님 댁은 종이가계부를 동서 댁은 전자가계부를 아주 잘 쓰고 계신다. 누락없이 써주

려는 노력도 보이고 나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다. 80이 다돼가는 나의 친정어머니는 어려서 일찍 시집가겠다고 했던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직장까지 그만둔다 했던 나를 못내 아쉬워하셨다. 그랬던 작은 딸이 아이 둘 다 키워놓고 어리지도 않은 나이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셨다. 남몰래 우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경찰 조사 기간에 조사 다닐라 치면 항상 행복한 표정으로 동행을 자처하신다. 졸음운전 하지 않도록 말벗도 돼주시고, 어두운 시골길 무섭지 않도록 벗도 돼주시고, 마냥 기다려야 할 때는 비닐 봉지에서 찢은 고구마와 따뜻한 커피를 꺼내시며 도란도란 지난 얘기도 나누어주시면서 나를 기분 좋게 바라봐 주신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놔두고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람들에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려 애쓴다. 나를 기분 좋게 바라봐 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나는 최선을 다하려 애를 쓴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하나 하나 일을 가르쳐 주고 챙겨주는 선배에게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잊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나의 가족! 나에게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과 내가 신경 쓰지 않도록 자기 할 일 차곡차곡 잘 해나가는 나의 두 아들... 너무나 든든하고 고맙고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주차해 드릴까요?



최혜경 | 제주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회수 못한 사회통계조사 조사표를 가지러 경찰 마감 날 아침 일찍 출장길에 올랐다. 동흥동 조사구인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막 내리는데 일 년 넘게 불응하던 가구의 할머니를 만났다. 불응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인사도 받아 주시던 지라 미소를 지어보이며 “안녕하세요!”하고 큰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래, 자주 보네” 하시며 대답해주셨다. 그런데 할머니께선 언제 구입하셨는지 운전석에 앉아 주차를 못하셔서 핸들을 이리 저리 돌려보며 킁킁거리며 힘들어하고 계셨다. 방문할 때마다 매번 거절을 하셨기에 그날도 아무 기대 없이 ‘오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말을 건넸다.

“이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할머니께선 너무 반가워 하시며 “그래줄래?” 하시며 선뜻 나의 호의를 받아주셨다. 할머니의 요구대로 반듯반듯하게 주차를 해주고 차에서 내리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가져온 답례품을 드리면서 “이모, 우리 여기 아파트가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하는 거 아시죠?”하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아니 난 안한다니까. 왜 또 그래……. 응?” 하시며 손을 흔드셨다. “이모, 그냥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심 안 될까요? 듣기라고 해주세요!”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오늘 일부러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 가버리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며 경제활동조사 및 가계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례품을 안겨드렸다. 답례품을 드려도 전에는 싫다고만 하시더니 그날은 주차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려고 싶지 않은데…….” 하시면서 “난 조사할 것도 없는데 왜 이걸 주는 거야? 난 조사할 것 없으니까 안 받을래. 부담스러워. 이거 안 받고 그냥 해” 이러시는 게 아닌가!

‘아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쁜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서 앗싸! 하고 쾌재를 불렀다. 조사표를 모두 회수하고 돌아오면서 바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혜림언니! 나 경찰 한 가구 지금 막 조사했는데 마감했어요? 입력 해도 되요? 나 불응가구 설득했어요!” 아주 큰소리로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평소 이웃주민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혼자 집에서만 지내신지 14~5년이나 되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공아파트가 생기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어울리지도 않으시고 낯선 사람들을 많이 경계하고 싫어하셨다. 작년 3월에 연동명부 조사하러 방문

하였을 때도 이집은 빈집이고 할머니께선 잠깐 청소하러 들리신 거라고, 집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 하셨다. 그 후 매주 가계부 때문에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차츰 동네 분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할머니의 사정을 조금씩 듣게 되었다. 아파트를 자주 방문 하게 되니 할머니를 만나는 횟수도 잦았는데 침엔 인사도 안 받아 주셨던 분이 인사도 받아주시더니 결국 경제활동조사에도 응해 주셨다.

6월 달에 불응설득하고 7월이 경찰 조사 두 번째 달이었는데 할머니께선 선뜻 집으로 들어오라시며 더운데 고생한다고 얼음을 가득 넣어서 냉커피까지 타주셨다. 5층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14~15년을 살아도 이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본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께선 그동안 살아오셨던 일들을 조금씩 말씀해주시며 요즘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취득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또 운전도 하고 싶어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말씀 해주셨다.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도 가기 싫다고 하시고 동네분들과 지금도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아직 많이 친해지지 않아서 할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하지만 그래도 딸처럼 생각해주시고 그동안 고생하는데 모른척해서 미안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땐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께 주차 한 번 해주고 이렇게 큰 성과를 얻었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주차하는 그 순간에 할머니를 만났다는 게 너무 큰 행운인 것 같다. 불응가구 중 또 주차해줄 곳 없을까?

태풍나리가 남기고 간 자리



김지범 | 제주통계사무소 사회조사과 |

9월 중순, 태풍 나리가 할퀴고 간 흔적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수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불어 닥친 태풍은 제주도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고,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듯 보란 듯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휩쓸고 가버렸다. 도내 어디를 가나 태풍과 수마로 인해 이미 파종한 당근과 마늘, 감자밭이 유실되고, 비닐하우스가 뿌리 채 뽑히고 찢긴 모습은 혼한 광경이 되어버렸으며, 태풍피해에 따른 고통과 피해 복구에 관한 불합리한 정책에 불만과 원성이 가는 곳곳마다 들려왔다.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에게 태풍나리의 여파는 앞으로 있을 농어가경제조사 개편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계시과? 통계청 직원이우다. 지난달에 뵈었지예? 무사 그때 왕삼춘내 하는 일하고 이것저것 물어봤던 직원마씨! 기억남수과?”

(계십니까? 통계청 직원입니다. 지난달에 뵈었지요? 지난번에 와서

삼촌내 하시는 일과 이것저것 여쭙봤던 직원입니다. 기억나시죠?)

“무사 와서?”

(무엇 때문에 왔지?)

“지난번에 뵙을 때 일계부 적어주시켄 하지 않아수과예? 경행 다음달부터 쓰게 되신디예, 잘 좀 부탁드리쿠다!”

(지난번에 뵈었을 때 일계부를 적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음달부터 쓰게 되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태풍 불영 하우스고 밭이고 다 쓸어버릴 땐 코빼기도 안보영게 뭐허러 와서? 이제 왕 일계부나 적으랜 허고, 그거 적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놈의 나라 공무원들은 다 X새끼들 밖에 없어 가지고 서는...”

(태풍이 불어서 하우스고 밭이고 다 쓸어버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뭐하러 왔어? 이제 와서 일계부나 적으라고 하고, 이하 생략...)

순간 당황한 나는 선뜻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8월중 어가명부보완을 하던 당시에만 해도 어가경제조사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다음에 표본가구로 선정 되면 일계부를 꼭 적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가구여서 더욱 그러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기입지도를 통해 당장 10월부터 일계부 기입을 시작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방문한 대상가구부터 암초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상 이럴 때는 우선 상대방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

까지 조용히 그대로 경청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되었다. 힘없는 민초들로선 같은 공무원이라고 우리에게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달리 풀만한 데도 없을 터이기에... 그리곤 죄인처럼 문밖에 서서 그렇게 한참이나 듣고 있었다. 사실 달리 할 말도 없었지만...

솔직히 어가경제조사의 중요성이나 목적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 분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우리야 이 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이른 새벽 밭에 나가 농약을 치고,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다가 집에 돌아와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향하는 저 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통계조사의 중요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까!

지침서에 있는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조사로 인해 응답가구에 무리하게 시간적 부담을 주거나 어업활동에 방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대로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미 부담을 주는 행위(낮에 면접이 어려워 피로에 지친 가구를 대상으로 밤에 방문하거나 한참 땀 흘리며 일하는 경작지로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일진데... 부담을 주지 않고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는 조사 방법이 있다면가! 누가 좀 가르쳐 줄 수는 없는가! 아니면 다음 지침서 발간 시에는 그 문구를 삭제해 주시길...

각설하고, 한참동안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가구의 어려운 사정을 경청해야만 했던 나는 발길을 그대로 돌려야만 했다. 그리곤 또 다른 응답거부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 채 다음 표본가구로 향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사정은 어느 가구나 매한가지였다.

명부보완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에서 부모 없는 손주를 양육하는 노인부부 가구, 파산선고를 받고 신용회복을 위해 매달 벌어오는 수입금에 일정부분을 떼어야 하는 가구, 이혼하고 자녀를 버리고 사라져 버린 조카 대신 조카 손주를 양육하며 해녀일로 겨우겨우 하루 하루를 이어가는...

하필 이런 가구들만 표본으로 선정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일수록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기입능력은 다소 떨어져도 조사거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겐 그리 별로 대단치도 않은 답례품 하나도 소중했고, 그에 앞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 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했으리라... 표본대상 가구를 방문하다보니 저녁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근처 해장국집에 들렀다. 뚜렷한 성과 없는 우울한 하루였다는 생각에 소주 한 병을 들이키고 보니 스물다섯에 들어와 이제 근 십년 남짓한 통계청 직장 생활이 마치 구한말시대 흑백 영사기처럼 꺾끄럽게 돌아갔다. 지방 조사환경이 날로 어려워진다고들 하면서도 뚜렷한 조사 지원책 하나없이 자체 실사다, 감사계 감사다, 실사과 감사다하며 지방조사인력들을 마치 잠재적 불성실 조사담당자로 취급하는 풍토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조사대상사업체 혹은 대상가구의 응답 태도에 따라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들이 흘러갔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제 백일도 채 못 된 둘째 아들과

자꾸만 이불을 걷어차는 큰 녀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니 낮에 만났던 노인부부가구의 부모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진 아이들이 떠올랐다. 토끼 눈으로 나를 뵈며 쳐다보며 “아저씨 누구예요? 통계청이 뭐하는 데예요?”하며 묻던 애들에게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 것을...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 실없이 웃음이 나왔다. 그리곤 다음날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심기일전하고 어제 처음 방문했던, 불응가구를 다시 방문했다.

“무사 또 와서?”

(무엇 때문에 또 왔지?)

“지나가당 그냥 들러수다. 오늘은 발에 안 나가수가?”

(지나가다가 그냥 들러 보았습니다. 오늘은 발에 안나가셨습니까?)하고 일단 화제를 돌리기로 했다.

“일 할 사람들 못 구행 오늘은 그냥 쉼서”

(일 할 사람들을 못 구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쉰다) 어제는 말도 못 붙일 듯 하더니 그래도 오늘은 화가 조금은 풀어진 듯 싶었다.

“어제 우리 할망이 무사 죄 없는 사람한테 경 험수광? 행계 마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놈의 피해보상은 비가 발을 쓰러버리당 그래도 받은 남았는데 문딱 갈아엎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어?”

(어제 아내가 왜 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까? 하더니만 기분 상해도 할 수 없어.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유실된 부분만 보상 해주면 되는데 발 전체를 갈아엎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그리곤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네 태풍피해 상황이며 아들 내외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던 신표본 조사구내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리사무소에 강 예,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삼촌내가 꼼꼼행, 일계부를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쓸거엔 험디다게.”하고 추켜세워 드렸다.

(리사무소에 가서, 사무장한테 물어보니까 삼촌내가 제일 꼼꼼 하셔서 이 동네에서 일계부를 제일 잘 쓰실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리장 해나니까 경 말 해실거여.”

(내가 옛날에 리장을 지내니까 그렇게 말 했을거여.)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유형의 응답자에겐 열심히 청취하고 가끔씩 맞장구를 쳐주다보면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응답수락으로 이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이나 연설 아닌 연설을 듣다보니 밤도 깊어지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때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

“경해도 일계부는 쓰지 못허커라게”

(그래도 일계부는 쓰지 못하겠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지금도 나는 그 분으로부터 일계부를

쓰겠다는 확답을 얻지는 못하였다. 마땅히 대체할 만한 어가가 없는 탓이기도 했지만 자주 찾아보며 이것저것 조금씩 묻다보니 가구 사항이며 자산, 부채에 이르기까지 이미 원부사항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미친 척하며 일계부 꽃이와 11월 일계부를 신발장 옆에 슬그머니 걸어두었다. 그 분께서도 다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쓰지는 않으시더라도 차마 일계부를 다시 가져 가라는 말씀은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듯 하다.

며칠 전, 통닭 한 마리를 들고 찾아뵙자,

“뭐하러 이렇거 가져와서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느냐) 하시면서도 아주머님께

“할망! 거기 찬장에 소주 가정와봐!” 하시며 술상을 봐 주시는 것이었다.

“조케! 나 죽으면 꼭 왕 절 허여이! 이 새끼! 실실 웃기만 허는 게 안 올 것 같네! 안 오기만 해 봐이!”

얼큰히 취기가 올라 돌아오는 길에 얼마 전 걸려왔던 뜻밖의 한통화가 문득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 농가경제조사를 하다 표본개편으로 조사중지된 가구의 전화였다.

“ 뭐 햄서! 나 알켜라! 일전에 가져다 준 압력밥솥 있잖아이! 거 뚜껑 위의 김 나오는 데가 고장나 버령게! 이거 줌 고쳐다 주켜라! 바쁘든 어디가든 고쳐지는지만 말해주젠!”

5년 전 표본개편 이후로 단 한번도 찾아뵙지 못했건만 마치 며칠 전까지 계속 만났던 것처럼 친숙하게 전화를 주시는 것이었다. 반갑고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었지만, 그 보다도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왜였을까! 우리는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그 어떤 대단한 애국심이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별 의미가 없을 터임을...

제 이야기가 우울한가요! 우리네 인생사가 원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라고들 하지 않읍디가! 그러니 우리, 털끝만치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늘도 조사현장에서 남모르게 고민하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힘냅시다! 가정을 지킨다는 게 어디 보통 쉬운 일입니까! 다만 되도록 인연을 소중하게 가꿉시다.

파이팅!

응답지를
가족처럼



발행처 | 통계청

발행인 | 통계청장 이창호

기 획 | 조사관리국

편 집 | 조사관리국

발행일 | 2007년 12월 29일

디자인 · 인쇄 | 강문인쇄기획

Tel 042) 226-4722~3